금주의 법구-〈법집요송경〉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2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27호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불교 홍보·성보 보존' 거점 내년부터 건립 본격 가시화

2017년 불교 관련 정부예산 살펴보니

조계종이 세종시와 위례신도시에 진행 중인 신도시 핵심거점 사업이 2017년 정부 예산지원에 포함됐다.

본지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등으로부터 불교관련 예산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불교관련 정부예산은 불교문화재 보존 보수 포함 13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행사 및 사업을 총괄하는 종무실 예산은 402억 원이며 세종시 한국불교문화 홍보체험관 건립에 5억 원, 천안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9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세종 · 위례 거점 사업 START

먼저 세종시 한국불교문화 홍보체험관 건립사업은 조계종이 진행하는 핵심거점 사업 일환이다. 조계종은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 종교용지 5000평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들어설 한국불교문화 홍보체험관은 총 사업비 180억 원 규모로 2017년 예산은 16억 7000만원이다. 이중 5억원이 정부 지원이다.

심주완 조계종 문화부 신도시TF팀장은 "지자체 예산이 나오면 세종시 불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년 예산과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건립 계획 수립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안 전통문화체험관은 2017년 단년도 예산으로 천안 성불사 인근에 건립될 예정이다.

새해에는 불교문화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조계종이 위례신도시에 건립하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시 한국불교문화 홍보체험관 건립사업보다 구체화됐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총 200억 원이 건립에 소요된다. 새해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6월 경 착공될 예정이다. 2017년 예산은 78억 원으로 문화재청 예산 54억 8000만원이 배정된 상태다.

조계종 문화부 신도시TF팀의 건립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불교문화유산

세종시 불교문화홍보관 5억원
위례 유산보존센터 54억원 지원
10.27기념관 건립, 부지매입 관건

보존센터에는 목조, 석조, 금동 등 불상과 불화 전문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

법난 기념사업은 과제 산적

세종 · 위례신도시와 달리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토지 매입 및 기념관 건립이 병행되는 10 · 27법난 기념사업은 부지 매입 지연 속에 예산 불용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문체부 10 · 27법난위원회(위원장 지현)에 따르면 2017년 예산은 227억 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10 · 27법난위원회는 2016년 7월 1일 국무총리 산하에서 문체부 종무실 산하로 이관돼 연구와 교육, 기념관 설립,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난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48억 5000만원 예산 중 부지매입에 12억 1282만원, 기본계획에 2억 7200만원이 사용됐으며, 2016년 632억 9200만원 중 부지매입에 10억 6893억 원이 사용됐다.

법난위원회 관계자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파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0 · 27법난 기념사업은 부지매입에 민간보조 형식으로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부지매입을 담당하고 있다. 부지매입 협상으로 인한 예산미집행에 대한 부담을 조계종이 떠안은 형국이다.

전통문화 개발 지속 지원

이번 정부의 예산안에는 전통문화 세시풍속 보존에 대한 지원 내역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안에는 전통불교문화행사 명목으로 25억 7500만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제종교교류에 3억 1500만원, 전통불교문화축전에 15억원,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에 12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또 문화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보존 관련 예산은 8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기획재정과 김응서 사무관은 "현재 지자체 문화재 예산을 취합하고 있다. 폐사지 비지정 문화재 조사, 사찰 대형불화 조사 등을 포함한 2016년 불교 관련 문화재청 예산은 총 810억 원으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종교 상생과 화합의 燈 밝혔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 앞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엄으로 환히 빛났다. 조계종은 12월 13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희중 대주교 등 이웃종교인,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상생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진은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과 종교인들이 따뜻한 사회를 의미하는 하트 손모양을 하는 모습이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물새는 영주댐, 계속 두면 안 된다"

지율 스님 '영주댐 철거訴' 패소… 즉각 상고 계획

서울고등법원은 12월 15일 지율 스님이 항소한 '영주댐 철거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서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는 지율 스님 외 18명에게 원고 패소 결정을 받은 후 2심서도 패소한 것. 지율 스님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상고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지율 스님은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물 새는 영주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영주댐 철거소송 및 영주댐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지율 스님은 "오늘 재판 결과를 들었는데 '기각'이란 말과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과거엔 최소한 왜 졌는지 이유는 말해줬는데 씁쓸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패소하더라도 피고 측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영주댐의 가치와 사업의 당위성 등에 대한 자료를 피고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고운 모래가 가득했던 영주댐 인근 지천은 굵은 모래가 생기고 풀들이 자라나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다. 그러자 주민들은 풀과 땅을 갈아엎고 땅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영

댐 인근 지천 황폐화 가속
연약 지반이라 안전 위험도

주댐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 원고(대한민국 · 수자원공사 · 시공사 삼성물산) 측은 '댐으로 인해 오히려 강이 더 넓어지고 모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란 변론만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율 스님은 "현재 영주댐에 균열이 생겨 물이 스미어 올라오고 있다"며 "콘크리트 벽에 첫 균열이 발생한 후 인부가 누수를 막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며칠 후 바로 옆에 새 균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원은 우리의 주장이 그저 감성적일 뿐이라 치부하며 댐에 물이 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지율 스님은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이 싸움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판결서가 송부된 직후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오경섭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도 "영주댐은 단층대의 연약지반에 건설돼 아무리 구조물을 단단하게 만든다 해도 안전과 기능을 보장할 수 없다. 댐 완공 후 현재까지 수직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균열들을 따라서 물이 새고 있다"고 지율 스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찰 '거짓 기부금 영수증' 올해도 기승

국세청, 거짓 영수증 발급 적발 명단 공개

58곳 중 46곳이 불교 사찰
수수료 받고 영수증 발급도

올해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된 단체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에는 불교계 사찰이 대거 포함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최근 2016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58곳이 적발됐다. 이가운데 종교단체는 48개로 전체의 83%에 달한다. 이밖에는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가 2개로 나타났다. 전체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 5곳이 감소했지만,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4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적발된 종교단체 48곳 중 46곳이 사찰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도 다수 있었다. 태고종의 경우 6곳의 사찰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들은 신생종단 사찰들이어서 범불교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거짓 기부금 영수증 적발 사례 중에는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써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향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철저한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127호 INDEX

시방세계 5
생명나눔실천본부 따뜻한 정 나누기 현장



道伴의 향기 14 · 15
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초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한일불교協, 차기 이사장 홍파 스님 추천

청소년교류사업 내년도부터 추진



前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가 총인에 추대됨에 따라 공석이 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직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추천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12월 12일 서울 견지동 법인사무실서 불기2560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부회장 종단이 번갈아 이사장직을 맡았던 관례에 맞춰 홍파 스님〈사진〉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이사장 선임은 이사회 추천 후 회장 동의와 총회 결의로 확정한다. 내년 초 총회서 홍파 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정관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임기 1년을 수행한다.

아울러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이 협의회 부회장으로,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 정사가 상임이사로 변경됐다.

협의회는 내년도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한국대회를 미개최 사찰인 보은 법주사서 6월 중 열기로 하고, 신규사업인 일한불교교류협회와의 청소년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일본 측과 논의를 거쳐 여름 · 겨울방학 중 회원종단 청소년 20여 명에게 일본 문화 견학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년 전 중단된 관월당(觀月堂) 이전 사업도 재개하기로 결의했다. 관월당은 일본 가마쿠라현 고덕원 경내에 있는 건물로 조선시대 궁궐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월당은 1924년 일제 강점기 조선왕실이 조선척식은행에 관월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은행 재정이 어려워져 파산을 면하고자 일본 자산가의 도움을 받으며 답례품으로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산가가 고덕원에 관월당을 기증하며 현재 자리에 있게 됐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3000사찰서 GBC 반대운동 벌인다

12월 15일 '최순실 게이트' 특혜 의혹 제기 후 첫 행보

전국 사찰 범국민운동 돌입
인터넷 · 모바일 서명도 예정
"GBC 인허가, 최순실 게이트"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왼쪽)과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이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조계종이 12월 15일 서울 봉은사 인근 현대차 그룹의 초고층 신사옥 건립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5일 현대차 그룹이 최순실 관련 회사들에 총 201억원을 헌납한 대가로 신사옥이 포함된 글로벌비지니스 센터(GBC) 건립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첫 행보다.

조계종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는 12월 15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이날 범국민서명운동은 조계종이 GBC 건립에 대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제기 한 이후 국민여론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위원장 지현 스님은 선포식에서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면담에서 현대차 사옥 개발 지원 요청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라며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결정을 통해 105층에 달하는 대형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이제는 건축허가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현 스님은 "정부와 현대차, 관계기관의 담합 의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는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 역사의 이름으로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포식에서 보존대책위 공동위원장 지현 스님과 원명 스님의 서명을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조계사와 봉은사 등 서울지역 사찰 종무원들의 서명이 이어졌다.

조계종은 이번 서명운동에 앞서 조계종 소속 3000여 사찰을 비롯해 이웃종단, 종립학교 및 사회복지관 등 불교관련기관에 서명지를 배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kr)를 통한 온라인 서명, 모바일 서명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조계종은 15일 현재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운동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명운동 안내에서 GBC건립과 관련된 사태를 '최순실 국정농단-현대차 게이트' 라고 명시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주요일간지 등에서는 2015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면담 후 2015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가 '한전부지 개발 조기 착공 지원'을 발표한 것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한문번역 인재 양성 성과 봤다

조계종·동국대, 12월 13일 연찬회

한문불전 역경 인재 양성을 위해 조계종과 동국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불교융합학과를 수료한 스님들의 연구 성과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학과장 김종욱)는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한문번역 연찬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연찬회는 수료한 스님들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지도 교수들이 강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찬회에서는 한국에서는 연구가 미흡했던 정영사 혜원 스님(523~592)의 저술들의 번역들이 잇달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신경 스님은 혜원의 〈대승의장〉 가운데 '팔식의'에 대한 번역을 진행했으며, 대진 스님은 〈대승기신론의소〉를 연구 · 역주했다.

신경 스님은 "일본에는 〈대승의장〉이 완역돼 〈국역일체경〉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관심이 적다"면서 "가능하다면 〈대승의장〉에 대한 연구와 번역을 이어가 20권 전체의 역주본을 내보겠다는 다짐도 해본다"고 말했다.

대진 스님은 "혜원의 〈대승기신론의소〉는 중국뿐만 아니라 신라, 일본 등 당시 동아시아 불교 사상을 해명하는 중요한 문헌"이라며 "후일 연구를 통해 기신론 사상의 유전(遺傳) 등의 특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연찬회에서는 △지현 스님의 '요대(遼代) 선연(鮮演)의 〈화엄경담현결택〉 연구와 역주' △선암 스님의 '조선후기 〈화엄현담〉 사기(私記)의 '왕복서(往復序)' 연구와 역주' 성과 △현서 스님의 '조선후기 묵암 최눌의 〈묵암집(默庵集)〉 연구와 영역 역주'가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34대 집행부 마지막 인사 전격 단행



기획실장 **주경 스님**



문화부장 **정현 스님**



문화사업단장 **수암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인사를 단행했다. 부실장 전원이 자승 스님의 인사 부담을 덜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인사는 총무원 기획실과 문화와 문화재, 복지 분야에 국한돼 진행됐다.

자승 스님이 직접 임기 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임기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3일 기획실장에 주경 스님, 문화부장에 정현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수암 스님을 임명했으며 15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에 제정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함결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특히 기획실장에는 지난 33대 집행부 마지막 해에 기획실장을 맡아 34대 집행부로의 인수인계를 원활히 해낸 주경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 12월 13일 부실장 인사
기획실장에 주경 스님

임명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기 내 마지막 임명장 수여가 될 것 같다. 34대 집행부 핵심종책사업들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설정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으며 부석사 주지, 불교신문사 사장,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신임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영도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으며 대적사, 덕사, 능인사, 건봉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철원 심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수암 스님은 설정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용봉사, 성주암, 정수사 주지 및 제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화계사 주지,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은 성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91년 수계했다. 호계원 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법인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16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은 선용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수계했다. 동국대 감사와 교법사, 금강산 신계사 도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16대 중앙종회의원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성효 스님

14일 임명장 수여… "소통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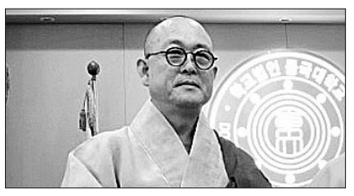
학교법인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서리에 성효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성효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리에는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한 학교 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효 스님은 "직위의 경중을 떠나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동국대의 발전과 위상 강화에 힘을 보태고자 사무처장직을 맡기로 했다"면서 "동국대가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인산하 기관 간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성효 스님은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82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1987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부 재정국장,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단장 등 종단 주요 요직을 역임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차별·증오 금지 법제화 시급” 불교계 ‘촉각’

종평위 심포지엄 개최·마주협 국회의장 면담 등 지속 행보

19대 국회서 무산된 차별 및 증오방지 관련 법제도가 20대 국회서는 반드시 통과돼야한단 사회적 요청이 높다. 특히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해 온 불교계는 최근 차별금지법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할 뿐 아니라, 이웃 종교계와 함께 국회에 정식 요청하는 등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는 12월 13일 ‘종교평화문화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차별 및 증오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증오차별방지법’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증오차별방지법’은 기존 ‘차별금지법’과 ‘증오범죄방지법’이 범죄 발생 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국가적 홍보 등 실시를 골자로 한다.

김 교수는 “차별이나 증오가 발생하기 전 예방차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 즉 성별·장애·나이·종교·성적지향 등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데 대해 “개별법제 형식을 취하면 차별 영역이나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자체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 반면, 처벌 규정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차별과 증오를 넘어 종교 평화의 시대로’를 주제로한 발제서 종교적 차별 행위 및 갈등을 막기 위한 법제로 △종교법인법 △차별금지법 등을 거론했다.

박 대표는 “거의 모든 선진 국가가 종교법인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개 분야 관련법(의료법·사립학교법·사회복지법)만 있고 종교법인법은 없다. 종교 간 첨예한 갈등과 정교야합 위험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종교법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종단은 12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과 면담을 갖고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한목소리’
범죄 사전 예방 필요성도 제기돼
이주민 인권 위한 인종차별금지도
정세균 “제도 정비, 조치 취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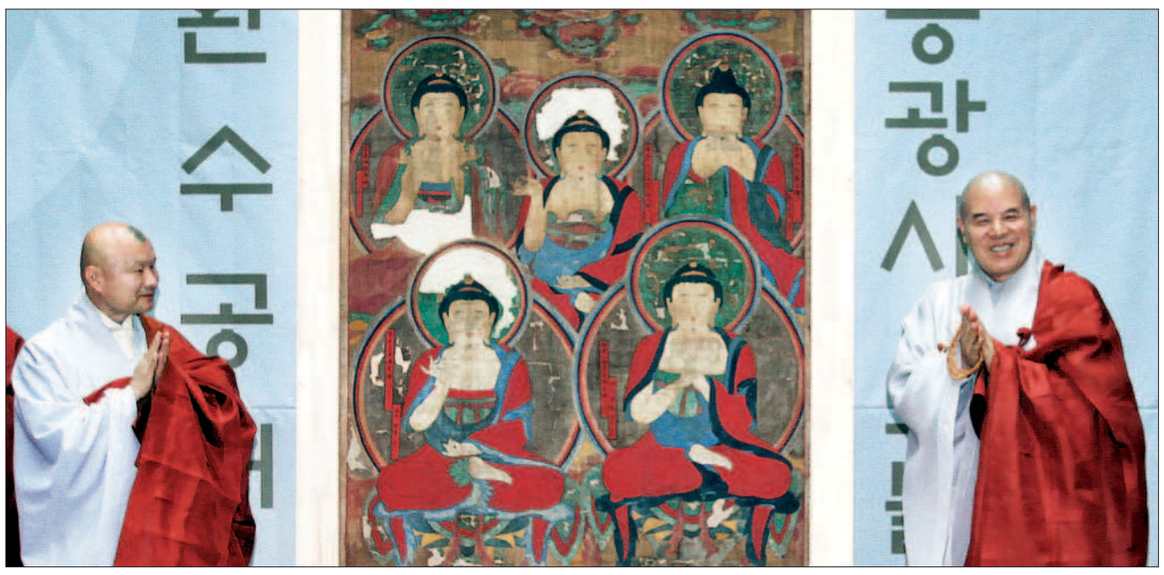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12월 18일 광화문 해치마당서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돌아가신 이주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위해 마련돼 1부 추모제 후 조계사로 행진, 이주노동자를 위한 저녁공양도 제공했다.

또한 사회노동위는 앞서 12월 14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원불교 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로 구성된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이하 4대종단)와 함께 12월 14일 국회 정론관서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위한 ‘이주민 200만 시대, 차별 없는 사회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대종단은 “이주민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제도 개선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용력과 국격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며 “현재 UN은 우리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종단은 기자회견 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인종차별 금지 법률 제정 △‘UN이주민권리협약’ 즉각 비준 △고용허가제 폐지 및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화서 제대로 된 나라란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오불도 환지본처에 감출 수 없는 미소가… 조계종은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송광사 오불도 환수공개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식에서 환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사진 왼쪽)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이 송광사 오불도를 가운데 두고 밝게 웃고 있다. **노덕현 기자**

선학원 성추행 혐의 스님 사의 표명

12월 15일 선학원 이사회는 수리 유보, 조사위 구성

최근 벌어진 선학원 최고위직 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 사건의 당사자 스님이 선학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12월 1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고위직 스님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선학원 이사회 측은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처리를 유보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사인 철오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북·지광 스님(이사), 원명·영은 스님(감사)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 관계자는 “성추행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며 내년 1~2월 초 열릴 예정인 차기 이사회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최고위직 스님은 지난 8월 초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스님에 대해 지난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는 12월 14일 성명을 통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직위를 감당할 도덕성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선학원 이사회는 마땅히 해임의결을 해 창립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신행혁신운동 밑그림, 결국 ‘붓다로 살자’

조계종 포교원, 연찬회서 슬로건·청규안 발표
주체·목표 불명확, 광범위하단 지적 뒤따라

수개월 장고 끝에 지난 8월 ‘신행혁신운동’이라는 포교종책을 내건 조계종 포교원이 ‘붓다로 살자’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도법 스님 주도로 2013년 출범한 ‘붓다로살자’와는 별개지만 기존 불교신행운동과의 차이가 없고, 주체·목표 등이 불명확하단 지적이 뒤따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주제로 제5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신행혁신운동의 이념을 ‘정법서 벗어난 신행을 혁신해 붓다의 삶을 따라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정리했다. 또 ‘붓다로 살자’는 슬로건과 함께 ‘삶을 지혜롭게·마음을 평화롭게·세상을 따뜻하게·지금 여기 깨어나 부처님처럼 살자’는 설명을 덧붙였다.

원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기를 △열정 없는 신행 △공부하지 않는 불자 △평화와 수행의 결핍 △보시하지 않는 불자 등으로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포교원 산하 신행단체, 승가단체, 명상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신행혁신 주체로 삼고, 핵심신도와 잠정적 불자를 타깃으로 설정했다. 신행지침서·수행록·신행요강·각종 프로그램 등을 방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신행혁신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모호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토론자 명법 스님(은유와마음연구소장)은 “신행혁신운동의 목표와 방법, 주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기존의 수많은 불교운동과의 변별점도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법 스님은 또 “신행혁신 주체가 결국 기존 신행단체인데다가 그럼에도 불교계 위기가 찾아왔다는 점서 이를 타개할 역량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불자계층을 끌어들이는 데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스님은 이어 재가신도를 주체로 설정하지 않으면 신행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위로부터 아래로의 관변운동’이 아닌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매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희승 성철연구원 연구실장은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을 발표했다. 그는 신행혁신 육바라밀(정견·신심·수행·자비·청빈·화합공동체) 불자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인 △가족과 도반, 이웃 △자연 △수행생활 공동체 등의 청규안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매일 아침 한 수행법 생활화’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도반의 지적 받아고치기’ 등이 담겼다.

이에 토론자 심산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장)은 “붓다를 근본모델로 불자상을 설명하면서 육바라밀을 제시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내세웠다면 기존 육바라밀을 덕목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직업을 갖고 일상생활하는 불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생활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항목의 고민은 더 간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도수 교수(능인대학원대 불교학과)는 “운동은 단순하고 명료화해야 하며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청규안은 구체적이지만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주제를 3개 정도 정해 놓고 시기별로 실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자가 동참하지 않는 신행혁신운동은 결국 이론화되기 때문에 신자에게 맞는, 변화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호섭 기자**



일 주 문



싱글만남 템플스테이

영관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12월 17~18일 경내서 '제2차 싱글의 만남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크리스마스 자비나눔

마가 (사)자비명상 대표 스님은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백사마을서 '산타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봉사'를 실시한다.



승려복지기금 기탁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재)아름다운동행에 승려복지기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겨울 철야정진법회

이황우 부산 새말귀선원 법사는 12월 19일부터 1월 1일까지 새말귀선원서 '겨울 철야 용맹정진 대법회'를 봉행한다.

부고 김원각 前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이 12월 15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일산병원에 마련됐다. 시조시인이기도 한 고인은 〈숟가락은 밥맛을 모른다〉 등 다수의 대중불서를 저술했으며, 한글대장경 윤문 등 역경사업에 참여했다.

"문화재포교로 불교위상 제고"

Interview

문화유산보호 대통령 표창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 지역사찰서 활용하면 대중포교 효과 이어져

"우리나라 문화재 중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는 어렵다거나 난해하다고 생각하죠. 불교계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면 사람들이 문화재와 가까워지는 동시에 불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포교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진병길 경주 신라문화원장(52 · 사진)이 12월 8일 열린 문화재청의 '2016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봉사활용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상은 문화유산 보존 및 연구 · 활용 등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진 원장은 먼저 "혜국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도움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공을 돌린 뒤 "경주에 불교문화재가 많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한 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3년 문을 연 신라문화원은 개원 이래 경주 소재 문화재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신라달빛기행을 비롯해 △경주 고택체험 △어린이 문화학교 △경주사랑 역사문화탐방 △살아 숨 쉬는 서원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 원장은 "1994년 경주 칠불암에서 처음 시작한 신라달빛기행이 기억에 남는다. 현재까지 참여 지자체만 20곳으로 확대되고, 서울 창덕궁 달빛기행이 이를 벤치마킹해 의미가 남다른 프로그램"이라며 "달빛기행은 불교문화자원을 답사하고, 사찰서 탑돌이를 하는 등 불교를 대중에 쉽게 전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불교계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라문화원도 어려움은 있었다. 창립 초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지적과 함께 신라문화원의 수명을 2~3년 정도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진 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열정에 힘입어 일자리전문기관 시니어클럽과 각종 사회적 기업도 운영하게 됐다. 문화재 특성을 잘 살린 덕분이었다.

진 원장에게 불교문화재는 구태의연한 포교서 벗어나 신포교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됐다.

진 원장은 "불교문화재가 무수히 많지만 불교계가 문화재 보존에는 비교적 미흡했다. 현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좋아진 만큼 문화재에 애정을 갖고 포교적 시각에서 접근할 때가 됐다"면서 "이 시대에 문화재를 잘 활용하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면서 대중포교로 이어질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화재를 알리고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낮은 자세로 초심을 되새기며 묵묵하게 일하는 개인, 그리고 신라문화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백용성 스님 사상 · 저술 '한눈에'

대각회, 12월 13일 총서 고불식



(재)조계종 대각회(이사장 혜총)는 12월 13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간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원로의원 도문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는 용성조사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돌이켜보는 소중한 자리"라며 "4년여 동안 총서 발간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강천사, 순창군에 이웃돕기 성금

12월 14일, 군청 방문해 500만원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는 12월 14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황숙주 순창군수에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종고 스님은 "경내 수각 앞 모금함을 비롯해 강천사 대중이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했다"며 "이 기회를 통해 종교인으로서의 삶과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수행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보공양운동 공로 표창

승려복지회, 개인 · 단체 선정해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보공양운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동국대 경주병원 원무팀, 봉은사 교무교육팀, 前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 대치노인복지센터 관장 지현 스님, 홍연술 불자에게 수여됐다.

동국대 경주병원 원무팀은 2015년부터 병원에 입원한 스님들에게 승려복지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입원진료비 신청 등을 지원했으며 봉은사 교무교육팀은 초하루 법회와 불교대학 종단필수교육, 기초학당 수업 때마다 홍보활동을 진행해 후원자 증대에 기여했다. 덕산 스님과 지현 스님, 홍연술 불자도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승보공양 후원자 확대에 기여했다. 노덕현 기자

청봉 스님 문도회 결성

대원불교조계종, 초대회장에 법현 스님

(사)대원불교조계종이 종정 청봉 스님 문도회를 조성하고, 초대회장에 법현 스님을 임명했다.

(사)대원불교조계종은 12월 8일 양산 불광사서 '청봉 큰스님 문도회 초대회장 법현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부회장은 법진 스님, 총무 해안 스님, 감사 지혜 스님이 임명됐다.

법현 스님은 "부족한 소승에게 중책을 맡겨줘 무한한 영광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하는 문도회, 열심히 노력하는 문도회를 만들어가겠다. 종회의원 스님들과 회원 스님들의 기탄없는 조원과 성원 부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무원장 해오 스님은 봉행사서 "법현 스님은 그동안 종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불사를 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청봉 큰 스님의 영도력과 문도회장 법현 스님의 혜안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불교활동가 더욱 늘어나길"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



동출 스님이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에게 지원금과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마다 불교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는 동출 스님이 올해로 13회째 행사를 이어갔다. 올해에는 △김양희 불교합창단 지도자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 △용수사 이주민쉼터 센터장 우르겐라마 스님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 △한국원폭2세 환우생활쉼터 합천 평화의 집 △416기억저장소 등 개인 4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됐다.

동출 스님은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열린선원서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선정된 활동가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민불동지회, 근본불교연구회, 정의평화불교연대, 나마스떼코리아 등이 동참해 마련됐다.

동출 스님은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불교활동가가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광주생명나눔, 자비의 김장

제22회 자비의 쌀 · 김장나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11일 5.18민주광장서 나주동신대 교직원, 후원자 등이 봉사자로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자비의 쌀 ·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무애암, 공옥진밥차, 성상기업 등이 후원한 행사서 2000포기 김치와 3000kg의 쌀을 지역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11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및 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전달식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 왼쪽)의 웃음꽃 속에 훈훈함을 더했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김용림 씨(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후원자의 손을 잡고 있다.



전달식 전 봉사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뒷열 왼쪽 네번째는 불자가수 김흥국 씨.


후원자 정현숙 씨와 설수현 씨, 현조 스님이 쌀과 이불을 전달하는 모습.


참가자들이 직접 쌀과 이불을 들고 백사마을을 누비고 있다.

가파른 백사마을 추위 녹인 '솜이불' 보시행

생명나눔, 12월 12일 '2016 제3회 따뜻한 정 나누기' 현장

노원구 중계동의 매끈한 아파트 건물들 가운데 상처 딱지처럼 내려앉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보인다. 마치 70년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영화 세트장처럼 이질적 느낌을 뿜어내는 이곳은 서울서 몇 남지 않은 달동네, 백사(104) 마을. 1960년대 후반 정부가 당시 용산 · 청계천 · 안암동 판자촌 주민들을 개발을 이유로 강제 이주시킨 곳이다. 허름한 천막에 덩그러니 던져진 사람들은 무슨 심정이었을까. 눈물을 삼키며 가파른 동네 비탈길을 오르내리던 이들도 하나, 둘 이곳을 떠나 지금은 빈집이 더 많은 백사 마을에 쓸쓸한 기운이 감돈다.

그런 백사 마을이 오랜만에 분주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백사 마을서 '2016 제3회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솜이불 · 쌀 · 연탄 등을 선물한 12월 12일. 동네 어르신들은 오전 10시부터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종종 걸음으로 마을 어귀에 모였다. 마스크를 썼지만 그 속에 함박웃음은 감춰지질 않는다.

"겨울엔 항상 석유난로 하나로 버팁니다. 그마저도 기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올해는 꼼짝없이 추위에 떨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이불을 선물 받아 보네요. 우리 같은 노인들을 잊지 않고 찾아 준 생명나눔에 정말 고맙습니다."

김선례(78) 씨는 따뜻한 분홍 솜이불을 손에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불암사,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등 단체와 더불어서 개인 후원도 빛났다. 특히 가수 수지의 어머니 정현숙 씨는 현장서 1,000만원을 후원하고, 일일이 포장한 간식과 함께 가가호호 이불 전달에 동참했다.

"광주에 살던 때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로 절에 다니곤 했습니다. 불교 신자라면 보시행을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을 찾고자 했을 때 지인으로부터 생명나눔에 대해 듣고 당장 후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딸 수지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좋아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적극 나서고 싶다며 현재 같이 홍보활동 중입니다."

정 씨는 며칠 전에도 딸과 조용히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틈틈이 보시행을 잊지 않는 진정한 불자의 모습에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어도 금세 손사래를 쳤다.

"사랑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일이 당연하기에 절대로 내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나눔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딸보다 앞서서 좋은 일들을 해나가야지요."

이후 생명나눔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에 직접 이불과 쌀을 배달했다. 이날 '나눔 배달부'엔 이사장 일면 스님, 본부 이사 현조 스님, 태석기 동국대학교의료원장, 김흥국 · 설수현 · 김용림 · 정현숙 씨 등이 나섰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을 이끌면서 아픈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봤다. 모두 주위 홍보와 치료비 모금 등 회원들의 도움 덕분이었다"며 "오늘 소외된 이웃 나눔 또한 회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가능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비탈길은 가파른 경사와 폐허 파편들로 올라가기 매우 힘들다. 그러나 마을 맨 꼭대기서 홀로 사는 김갑주(75) 씨를 위해 이불과 쌀을 짊어 진 봉사단 행렬은 순식간에 마을 꼭대기에 당도했다. 세월에 삭아버린 작은 나무문을 열어젖히며 김갑주 씨가 사람들을 반겼다.

강제이주민 모인 백사마을
현재 대다수 저소득취약계층, 생명나눔 쌀 · 솜이불 등 나눔에 주민들 "잊지 않고 와줘 감사"

"원래 있던 솜이불이 너무 무거워 허리와 무릎 관절이 다 나갔습니다. 쓸 수 없어 결국 버렸지요. 혼자 살고 있어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줘서 고마워요."

어르신이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꼭대기 우리 집까지 올라오느라 이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켜서 어쩌누"라고 말하자, 봉사자들은 부담을 덜어주고자 더욱 경쾌하게 움직였다. 특히 연기자 김용림 씨는 어르신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주시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어르신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처럼 베풀 수 있게 해줘서 우리가 더 고맙습니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용림 씨는 "90년대 중반 일일찻집을 하며 인연을 맺었으니 벌써 20년 가까이 생명나눔과 함께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겠단 사명감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보시활동이란 생각으로 매번 봉사에 나선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나누고 베푸는 생명나눔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봉사자들은 땀 마를 새도 없이 김영신(75) 씨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심장병 약을 비롯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약봉지들이 방 한 칸을 가득 채운 낡은 방. 이곳엔 김 씨가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방 공기는 매우 싸늘했다. 김치 등 밑반찬을 방에 그대로 둬도 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서로 손을 잡아주려는 봉사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심장병 수술을 한 후로 오한이 가시질 않아요. 정부에서 주는 돈 대부분은 약값에 써도 모자랍니다. 얇은 이불은 담뱃재로 구멍이 뚫려 참 난감했는데, 이불 선물을 받으니 날아갈 듯 기쁩니다. 게다가 연예인들까지 저를 찾아 주다니 꿈만 같네요."

이날 연예인 홍보대사들은 특유의 넉살로 어르신들의 어색함을 풀어주는데 일등공신이었다. 김흥국 씨는 10kg 쌀 포대가 무거울 법 하건만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불자에게 '몸'을 보시한다는 것보다 더 큰 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나눔을 만나 몸을 보시할 수 있어 엄청난 영광이란 생각뿐입니다. 추위에 떠는 어르신들을 위해 쌀을 나르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하하."

이 같은 어른들의 보시행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큰 귀감이 됐다. 아침부터 교복을 챙겨 입고 쌀 나눔에 참여한 광동고 학생회 학생들도 뿌듯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임규(광동고 2년) 군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쌀 500kg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백사 마을 존재 자체를 잘 모를 정도로 이웃에 대해 무지했던 점이 후회된다"며 "이번 나눔 기회를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보람차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훈훈하게 지켜보던 생명나눔 이사 현조 스님은 보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즘처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서 춥고 소외된 이들은 더욱 소외된 기분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누는 보시행이 절실합니다. 나누는 마음은 종교 · 문화 · 민족을 구별하지 않는 '희망'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솜이불 210채 · 쌀 200여 포 · 연탄 1,000장 등 선물 받은 백사 마을 주민들은 물론 나눔행에 참여한 봉사자들까지 행복한 기분을 숨기지 않았다. 이웃과 생명의 따스한 숨결을 나눈 백사 마을은 참 따뜻해 보인다. 마을 전체가 솜이불을 덮은 듯 했다.

글=이승희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프랑스 예술가들, 한국불교 禪을 만나다

동국대, 12월 12일 수불 스님 · 예술인 대담 개최

수교 130주년展 참가 예술인들 수불 스님에게 禪에 대해 질문 알기 쉽게 불교와 수행 설명해


동국대는 12월 12일 학명세미나실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 왼쪽)과 프랑스 예술인과 선의 세계 대담을 개최했다.

"어떤 스님은 히말라야에 가서 먹지도 마시지 않고 수행하는 데 이것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제가 만난 스님들의 옷은 빨간색이거나 주황색이었는데 스님의 옷은 왜 회색이죠?"

외국인들이 한국 스님에게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스님은 막힘없이 수행과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했다. 대중들은 진지한 답변을 경청하고 때로는 위트 있는 설명에 웃음을 지었다.

종교와 예술,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스님과 예술가들이 한국불교와 선 수행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2월 12일 학명세미나실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프랑스 예술인과 선의 세계 대담을 개최했다. 이번 대담은 한 · 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계현대미술전'에 참가한 프랑스 저명화가 2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담은 수불 스님의 질문으로 시작됐다.

"자기 눈을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스님은 "우리는 거울에 비친 눈이 자신의 눈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며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 본다.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후 프랑스 예술인들은 불교와 철학의 차이, 명상 수행 등 자신들이 평소 궁금했던 불교에 대해 수불 스님에게 질의했다.

평소 명상 수행에 관심이 많은 한 예술인은 선과 명상 수행의 차이에 대해 물었다. 이에 수불 스님은 흙탕물을 비유해 차이점을 설명했다.

수불 스님은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흙과 불순물이 침잠된다. 명상은 이와 같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흔들면 다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며 "선은 근본적인 문제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히말라야 수행승들의 고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변의 입장에서 답했다. 수불 스님은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착각 속에서 수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불교에서는 고행 뒤에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럿이 더불어 사는 삶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복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예술인도 여럿이었다. 스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지, 왜 회색 승복을 입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한 예술인은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세잔은 자신이 가장 어려워한 색으로 회색을 꼽았다"며 회색 승복에 대한 의미를 묻기도 했다.

이에 수불 스님은 "지금 장삼 위에 가사를 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춰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하며 "회색은 모든 것이 모아진 색이다. 모든 것이 귀결되는 색"이라고 답했다.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수불 스님은 침묵도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스님은 "또 다른 대화의 이면은 침묵"이라며 "침묵 속에서 정신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함께 정성껏!" 구호에 2,000kg 김장도 '거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한화S&C, 12월 13일 '제7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행사 현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한화S&C와 12월 13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서 '제7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를 개최했다.

불교계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모여 소외된 이웃에 나눌 2,000kg 분량 김장을 뚝딱 만들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한화S&C(대표이사 김용욱)와 12월 13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이용권)서 '제7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를 개최하고 지역 취약계층에 나눌 김장 2,000kg을 담갔다. 이날 담근 김장은 쌀 500kg과 함께 영등포구 거주 저소득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엔 총무원 사회국장 지상 스님을 비롯해 한화S&C 봉사단 · 한화S&C 협력사 임직원 · 조계종자원봉사단 · 삼정학교 학부모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지상 스님은 "보살은 불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누군가 아플 때 같이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라며 "김장은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나눔 활동이다. 오늘 와주신 분들은 몸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훌륭한 보살"이라고 말했다.

박찬홍(53) 한화S&C 상무는 "연말에 송년회서 술 마시는 것보다 이웃에 나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단 생각에 매년 봉사하고 있다. 오히려 직원들이 배우고 가는 행사"라며 "'함께 · 멀리'란 회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함경북도 온성군서 온 탈북자 이현화(64) 씨는 "북한과 달리 김치에 빨간 고춧가루를 쓰고, 손도 많이 가 힘들지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단 생각에 자원했다. 우리나라만의 전통인 김장은 이웃과 공감하기 참 좋은 행사 같다"며 "같은 탈북자 7명을 더 모아 왔으니 적극적으로 김장을 담그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화S&C는 IMF 이후 꾸준히 소외계층 나눔 사업을 진행하다 2010년 조계종복지재단과 협업,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행사로 김장 · 연탄 · 쌀 등 후원해왔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불자들이 캄보디아에 전한 행복바람

(사)날마다좋은날, 캄보디아서 분야별 봉사

조계종 교구신도회와 각 신도단체 임원들이 캄보디아에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행복의 바람을 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좋은날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박7일간 캄보디아 씨엠립서 '2016 행복바라미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실시했다.〈사진〉 올해는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 일환으로 31개 단체 78명이 1 · 2차 팀을 나눠 봉사에 동참했다. 봉사자들은 현지 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지부와 로까 초등학교서 유치원 건물 신축을 돕고, 학용품을 기증했다.

특히 건강나눔팀은 한의사불자연합회 의료진과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이 협력해 내과 · 외과 · 소아과 등 한방진료와 보건교육, 불소도포, 영양제 및 구충제 보급 등을 도왔다. 문화나눔팀은 제기차기 · 투호 등 한국전통놀이와 연꽃만들기 · 전통부채 꾸미기 등 문화체험 시간을 마련했다. 환경나눔팀은 건물도색과 운동장 평탄화 등 학교시설을 보수했다. 또한 봉사자 전원이 저가항공을 이용해 남은 차액으로 '행복바라미 유치원'을 신축, 간이막사서 공부하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공간을 제공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진료를 돕고 있는 의료봉사팀.

날마다좋은날 측은 "이번 봉사는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부처님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며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전국을 넘어 해외로 퍼져나가 한국불교 또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 전생 이야기 영어로 뽐내자

국제포교사회, 내년 1월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제10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예선은 7일에 열리며,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한다. 본선 진출자 발표는 9일.

참가자들은 자타카 이야기 한 편을 영어로만 암송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이 표현력 · 영어발음 · 태도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대회서 레크리에이션과 공연, 선물나눔 등도 이뤄진다.

참가자격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개인 또는 2명이 팀을 구성하면 된다. 국제포교사회 홈페이지(cafe.daum.net/IDIA)서 본인 연령에 맞는 원고를 선택해 암송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12월 24일까지 이메일(ipogyo@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2-2203)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한편 지난 대회에는 전국서 24개 팀 26명이 예선에 참가해 15개팀 17명이 본선에 올랐다. (02)722-2206 **윤호섭 기자**

"공무원도 봉사하며 부처님처럼…"

공불련, 12월 11일 보현의집서 자비행

공무원불자들이 연말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행에 나섰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12월 11일 감사원 불자회를 비롯한 10개 기관 불자회 48명이 동참한 가운데 노숙인 자활시설 영등포 보현의집에서 제14차 공불련 사회봉사의날 행사를 실시했다.〈사진〉 이날 공무원불자들은 점심식사 급식 준비와 배식, 시설청소, 제과체험 등을 했다. 또 십시일반 모연한 2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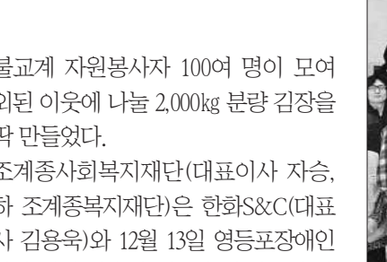
김상규 회장은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회원들과 하고 싶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보현의집에서 좋은 봉사를 하게 돼 조금 더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창사 36주년 기념 -
전 품목 25% 할인 판매 단행
※ 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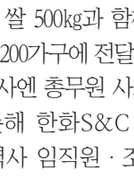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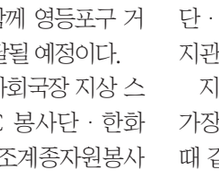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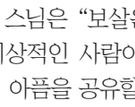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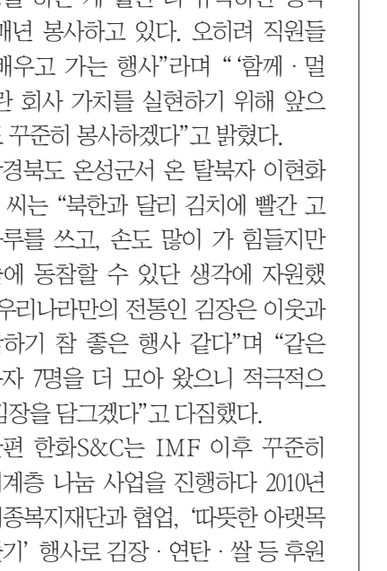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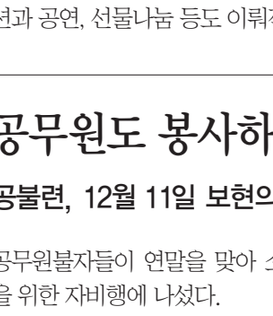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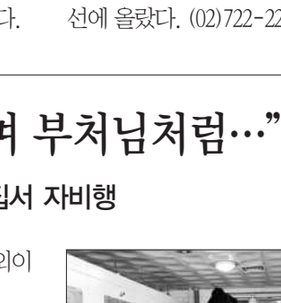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거룩한 진리 '사성제'… 현대인 질병도 고친다

K MOOC… 초기불교 의의와 붓다 진리관

임승택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근 베스트셀러작 〈사피엔스(2015, 유발 하라리 지음)〉서 작가는 현대인들의 병리현상에 대한 최고의 처방 중 하나로 불교를 제시했다. 심리치료학자들이 종종 불교명상을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꼽는 현상도 늘어가고 있다. 이렇듯 부처님이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치료제의 정체를 알기 위해 우리가 파악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K-MOOC '초기불교의 의의' 강좌를 통해 "초기불교와 붓다의 진리관에 대해 간략한 이해를 지니면 불교 전반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며 사성제에 기반한 독특한 불교관을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임승택 교수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인도불교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졸업, 초기불교 수행론으로 2001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요가연수원서 10여년 동안 하타요가를 수련 지도했고 미얀마 참매센터 · 세우민센터 등서 여러 차례 수행 안거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강신문

현대인은 억지 행복에 지쳐

초기불교란 붓다와 그 직제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불교를 일컫습니다. 초기불교가 형성된지 약 2,500년이 됐습니다. 장구한 세월이 흐른 만큼 초기불교의 유효성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초기불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사회적 현실과 개개인 실존적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씨는 저서 〈피로사회(2012)〉서 현대사회의 '성과주의'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한 씨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긍정성이란 덕목은 거의 모든 우리 삶의 지평에서 급속도로 부정성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긍정성이 금지와 강제를 철폐하고, 억압을 해체하며, 타자를 향한 관용을 더 많이 이끌어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개개인에게 무한한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긍정의 힘이 지나쳐서 초래된 과잉 긍정성입니다. 한 씨는 과잉 부정성이 부정의 힘을 상실한 수동적 존재만을 양상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21세기 현대인의 피곤에 지친 자화상이 탄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 씨는 인간 정신의 특별한 능력은 부정성이나 부정성의 고통을 감내해내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타자를 대면할 때 깨어나며, 타자의 부정성과 마주함으로써 스스로 생명력을 발(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이 긍정의 힘에 매몰된 상태에선 무언가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현대사회의 병리적 특징인 과잉 가동 · 과잉 생산 · 과잉 커뮤니케이션이 초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잉 긍정성 속에서 개개인 삶은 치명적 활동과잉과 피로, 소진 상태로 내몰리면서 자발적 동의 형식으로 긍정성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긍정성 조류에 편승하지 못했을 경우 닥치게 될 좌절과 포기란 공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초 병리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우울증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경계성성격장애 · 소진증후군 등이 모두 긍정성 과잉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부정을 긍정하는 능력

이에 한 씨는 불교전통인 참선(參禪)에 주목합니다. 참선을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시도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참선을 통해 무위(無爲)를 실천한다는 것을 '하지 않음'이란 부정성으로 공(空)에 도달하려는 시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선은 긍정성에 순응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능동적 과정입니다. 또한 자기 안에서 어떤 주권적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연습, 혹은 자기 중심이 되고자 하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붓다 가르침의 현대적 의의에 관해선 최근 화제가 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2015)〉도 참고할 만 합니다. 여기서 유발 하라리는 현생 인류의 성공 배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불교를 다루는 대목은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불교 외 대다수 종교와 철학에서도 내면의 행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면의 행복은 서구 뉴에이지 문화나 현대 생물학자들의 일치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책에서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역시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며 여타 단체들의 주장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짐작하는 경향이 있음을 짚어냅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가 생각한 붓다의 심원한 통찰은 따로 있으며, 이 때문에 대다수 다른 견해들은 붓다 가르침과 거의 반대 위치에 있다고 언급합니다. 붓다가 권한 것은 외적 성취 추구 뿐만 아니라 내면의 행복과 느낌에 대한 추구 역시 중단하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은 주관적 느낌이나 감정과는 무관하다는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작가는 쾌락의 총량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인류 행복의 역사 전체가 오도된 것일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쾌락이란 주관적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집착과 더불어 내면의 괴로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발 하라리는 "진정한 행복이란 특정한 감각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어떠한 감각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서 얻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기불교는 '苦' 해소에 집중
독특한 방법론인 사성제 제시
현대인 우울 · 피로감 해소에도
불교식 심리치료 효과성 입증

한병철 · 유발 하라리 저서와 같은 사례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우리에게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과 기여를 생각해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교적 대안이 21세기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교적 가르침이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오늘날 붓다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권에 전달된 불교명상이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포장돼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권에 역수입 되고 있는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2009년에 방한한 크리스토퍼 거머(Christopher K. Germer) 하버드대학교 심리치료학자에 따르면 불교명상은 그 어떤 치료 방법보다도 불안 · 우울증 · 공황장애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현대적이고 두드러진 형태의 행동치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저명한 심리치료학잡지 〈사이코테라피네트웍(Psychotherapy Network)〉(2007. 3, 4월호)은 미국서 활동하는 심리치료사 중 40%가 넘는 이들이 '불교명상'을 자신들이 선호하는 치료경향으로 뽑았습니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구체적입니다. 이후 어떤 시기 불교에서보다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괴로움의 대처방안을 제시합니다. 초기불교 가르침은 각 그릇의 특징에 맞게 설법을 펼치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이나 그릇에 따라 즉각 변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임기응변(臨機應變)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방식은 시대적 · 지리적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난 여러 지역 불교의 원형이 됩니다. 또한 불교인 뿐 아니라 일반적인 현대인에 대해서도 붓다의 가르침이 지닐 수 있는 의의는 오로지 괴로움으로부터 구제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들로부터 현대인들이 다시 초기불교에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성제, 거룩한 진리

그렇다면 이제 붓다만의 고유한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알면 초기불교의 독자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붓다는 인류 역사상 무수한 종교와 사상가들이 출현해 제각기 진리를 역설했단 사실을 첨예하게 의식했던 인물입니다. 붓다는 당시까지 전해져 온 다양한 유형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최초로 결집된 경전 〈범망경(梵網經, Brahmajala-Suttra)〉에서는 당시 존재한 사상을 62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하나하나를 고찰했습니다. 붓다는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상주론(常主論) · 죽음은 모든 것의 소멸이라는 단멸론(斷滅論) · 조물주 창조론인 일분상주론(一分常主論) 등 형이상학적 논의에 대해 치우침 없이 반성적 태도로 일관합니다.

붓다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지하거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상학적 추구가 내면의 탐욕 · 집착과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경험세계를 벗어난 문제들이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멸론은 자기 영속화를 위한 집착의 산물이며, 단멸론은 자포자기적 심리를 반영하고 조물주도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주장들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든다는 점이 핍박과 박해를 탄생시킵니다. 특정한 견해에 대한 요지부동한 확신과 강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기불교 경전에서는 소박한 문구로 "그대는 그릇된 길을 가는 자이고 나는 바른 길을 가는 자이다. 나의 주장은 옳고 그대의 주장은 그릇되었다"고 표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붓다는 누구보다 교조적 신념체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간파했습니다. 형이상학적 견해는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결국 힘의 논리로써 정당화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경험 영역을 벗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붓다는 삶이 황폐해지는 주요 원인이 스스로 한계를 망각하고 독단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붓다는 내면에 도사린 편견과 집착부터 가라앉힐 것을 권합니다.

45년에 이르는 붓다 설법 여정에는 깨달음에 관련된 여러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현실(苦)과 그것의 원인인 갈애(集),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滅)와 그 경지에 도달하는 길(道)이라는 4가지 거룩한 진리가 사성제입니다. 붓다는 사성제에 대해서만 '거룩한 진리'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붓다는 괴로움 해소라는 현실의 문제에 주력하고 여타 사변적 견해들에 대해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종교 · 사상가들과 구분되는 붓다만의 독특한 진리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초급과정	1년	불교학개론, 불교입문 천태종사, 심리상담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9:00 ~ 20:20 · 2교시 : 20:40 ~ 22:0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1년 20만원
	중급과정	1년	금강경, 불교의 신해 법화경, 대승불교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교법사과		2년	육묘법문, 비교종교론 천태소지관, 기신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학기당 20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23 평택 법장사 : 031.655.9090 신촌 성룡사 : 02.336.2052 수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리 금성사 : 031.563.9364 구로 명화사 : 02.854.0196 안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산 월강사 : 031.419.5048 성남 화성사 : 031.745.1482 부천 천화사 : 032.671.5353 일산 화성사 : 031.905.2912 군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6년 11월 11일(금)~ 2017년 2월 17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7년 2월 19일(일) 오후 3시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 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서울金剛佛敎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진도 쌍계사 서측 벽체서 발견된 서양식 산수도.

진도 쌍계사엔 '서양식 벽화'가 있다

진도학회, 12월 16일 쌍계사 조명 학술대회

진도 쌍계사의 불상과 불화에 대한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양식으로 그려진 사찰 벽화가 새로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정병국 동국대 교수는 12월 16일 진도학회가 '소치 허련의 예술세계와 운림산방 및 쌍계사' 주제로 개최한 동계 절례회에서 쌍계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벽화들을 소개했다.

이들 벽화는 진도 쌍계사 대웅전 본존불을 이안하는 과정에서 내벽의 그림 흔적들이 확인되며 그 존재가 밝혀지게 됐다. 총 19점이 발견됐고, 가로 3m, 세로 1.3m의 대형 벽화부터 가로 1m, 세로 0.6m의 크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벽화의 특징은 전통 불화기법이 아닌 서양의 유화기법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특히 서측 벽체 상부서 발견된 산수도는 이 같은 특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반적으로 동양적 산수화가 아닌 실경(實景) 주제로 그려낸 산수화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쌍계사 벽화의 산수화는 우리 산수의 실경을 주제로 자유로운 회화적 구도와 기법으로 그려졌다"며 "단색조의 색상이지만, 확실한 명암법과 투시법이 구사된 서양화법이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정황적 근거도 제시됐다. 진도 쌍계사에 인접한 운림산방은 소치 허백련의 화실로 사용됐고, 이후 5세대에 걸쳐 남도 화단의 중심이 됐다. 근대 서양화가 1세대인 김홍식, 오지호, 김환기 등이 여수 · 신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도 쌍계사의 서양식 벽화가 그려진 이유를 설명해준다.

정 교수는 "쌍계사 대웅전 벽화의 새로운 발견은 불교 회화사와 불교 문화의 큰 변혁으로 보여지며, 20세기 초 진도지방의 문화 · 예술 분야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선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쌍계사는 기록의 일실로 인해서 그 이전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조선조 후기에 기록된 사찰지에 따르면 1648년(인조 26)에 재건됐다. 법당과 시왕전(十王殿)이 차례로 건립되고, 희장 등 조각승에 의해 대웅전에 목조삼존불상 조성, 시왕전에 주존인 지장보살을 비롯해 33구 조각상들이 조성됐다. 신성민 기자

"아암 · 초의 茶脈, 원응 · 응송에 전수"

박동춘 소장, 12월 16일 '제다' 세미나서 계보 분석

조선 후기 대흥사 아암 스님과 초의 스님으로 인한 제다법의 전승 현황을 되짚는 논문이 발표됐다.

문화재청은 12월 1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다(製茶)'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사진〉이 '사찰문화에 따른 제다 전승의 현황과 특징'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 소장은 논문에서 사찰의 다맥이 어떻게 전승됐는지를 대흥사를 중심으로 살폈다.

박 소장에 따르면 한반도에 수행과 차를 연관지어 활용한 것은 7세기 도당구법승들에게서 비롯됐으며, 9세기 이후 이 같은 차 문화는 확산됐다. 특히 구산선문 개창 이후 사찰은 차 문화를 주도했고, 제다 기술도 한층 개량됐다. 차에 대한 안목이 높은 승려들로 인해 왕실과 관료, 문인들도 자연스럽게 차를 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 말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진 음다(飮茶)의 폐단은 조선 건국 이후 왕실에서 차가 퇴출되는 요인이 됐다. 또한 임진왜란 등으로 인해 차 문화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다시 차에 관심이 일어난 것은 조선 후기 대흥사 아암과 초의 스님에 의해 주도됐다. 특히 초의 스님은 차 이론을 구축하면서 대흥사로 면면이 이어진 제다법을 복원해 '초의차'를 완성시켰다. 또한, 초의차는 초의 스님과 교류했던 경화사족(京華士族, 번화한 한양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사족)들에게 전해지며 확산됐다.

대흥사 중심으로 茶僧 활동
교류한 경화사족에 전파돼
여타 사찰 차문화 조사 '숙제'

실제 추사 김정희는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에게 보낸 차품은 심폐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만큼 좋다"고 쓰기도 했다.

박 소장은 "초의 스님과 교류했던 사대부들은 초의차를 통해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확신했다"며 "초의 스스로 '육안차는 맛이 뛰어나고 몽산차는 약효가 뛰어나다. 우리 차는 아마도 두 가지를 겸했다. 만약 이찬황이나 육우가 있다면 그들은 내 말이 옳다고 여기리라'고 천명한 것은 자신의 차에 대한 자긍심을 한껏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초의차의 제다 원리는 아암의 제다법과 함께 그들에게 이어졌으며, 혼란했던 근현대에도 단절없이 이어졌다.

박 소장은 "대흥사 다풍을 이었던 승려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의 자취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드물다.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스님은 범해와 그의 제자 금명, 원응, 응송으로 이어진 정황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현대 제다법은 불회사, 백양사, 보림사에도 조사된 바 있지만 불교 정화 이후 민멸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후 이 같은 사찰들의 제다법의 전승 관계도 조사 · 연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제다'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는 정순일 교수(원광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조선 시대 '제다' 기법과 전승문화의 특징(박희준, 동아대) △일제강점기 이후 '제다'의 지속과 변화(강순형, 前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제다'의 민간전승 현황(이경희, 울산대) △해외 제다관련 문화재 사례를 통한 한국 '제다'의 전승 방안 모색(고연미, 원광대)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제다'의 보존 · 전승 방향(김기원, 경남과학기술대)이 발표됐다. 이후에는 연제영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한 문화재청은 "향후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해 '제다'의 가치 공유와 확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량사 건칠여래, 석굴암 본존불 계승

미술사연구회 12월 14일 학술대회 개최

대의 · 옷주름 등 유사점 많아
양식사的으로도 8~9세기 作
"한국 最古 건칠여래상 확실"

지난 11월 16일 보물 1919호로 지정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사진〉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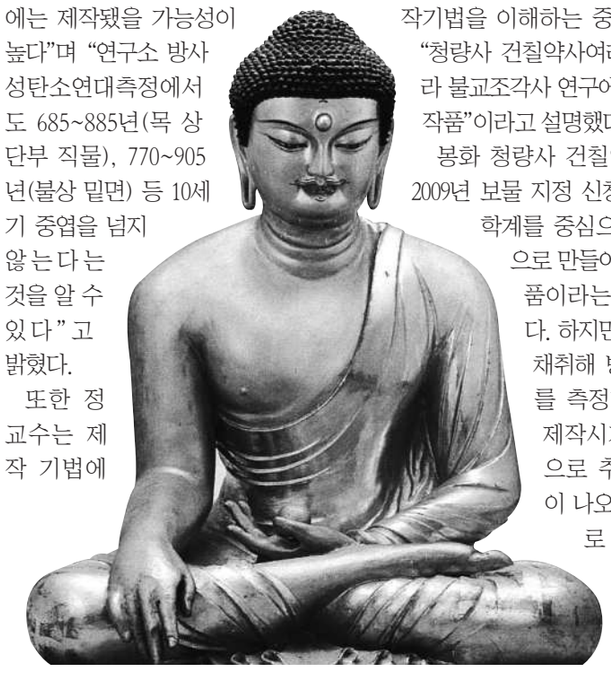
미술사연구회가 12월 14일 주최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전국학술대회'에서는 건칠약사여래좌상의 제작시기 검토 등의 고찰이 이뤄졌다.

정은우 동아대 교수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편견우단과 항마촉지인의 기본적 형식에서부터 신체에 밀착된 대의, 무릎에 흘러내린 옷주름과 사이에 접힌 옷자락 등이 거의 비슷하다"며 "청량사 건칠불의 눈동자에 수정이 감입된 것에 따라 고려시대로 분류했지만, 최근 익산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소조불상의 눈동자에 유리를 감압한 흔적이 나왔다. 이 같은 기법은 백제에서부터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적 특징만 고려한다면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석굴암이 제작되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에는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소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서도 685~885년(목 상단부 직물), 770~905년(불상 밑면) 등 10세기 중엽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제작 기법에서도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제작된 건칠상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두 판을 잇대어 제작했는데 이는 처음 발견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두 판을 잇대어 제작한 기법은 한국 건칠불의 시원적 제작기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 연구에 큰 과제를 던진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2009년 보물 지정 신청이 이뤄졌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20세기 기법으로 만들어져 근대 시기 작품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불상의 직물을 채취해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직물의 제작시기가 770~945년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오며 7년만에 보물로 지정돼 조성 연대 논란은 일단락됐다.

신성민 기자

고려사경 2점 등 보물 지정 신청

서울시, 리움 소장본 추진

서울시는 고려사경 2권과 고려말 문학가 이숭인의 '도은선생시집' 활자본 등을 국가문화재 보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한 '묘법연화경 권6',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5' 등 고려사경 2점과 팔만대장경 인본 '대승법계무차별론'도 보물로 신청했다.

또한 '도은선생시집'은 조선 태종 때인 1406년 고려말 문학가 이숭인(1074~1151)의 시문과 그의 시문을 칭송한 국내 저명 문인과 중국 사신의 서발을 엮어 만든 문집이다.

신청본은 활자 계미자본(癸未字本)으로 인쇄된 소수에 해당해 2006년 보물로 지정된 계명대 목판본보다 먼저 간행돼 학계에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855년 조성된 불화 '마하연 제석천룡도'를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했다. 이밖에도 도선사 석조관음보살 등 3건의 문화재는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수리 인재를 찾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 1년과정 교육생 모집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류춘규)이 1년 과정의 '2017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인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교육비를 전액 환불하는 등 무료 교육이 원칙이며 교육생은 실습재료 제공과 기숙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분야는 △기초과정 7개 종목(옻칠, 소목, 단청, 배첩(褙貼), 도금, 철물, 모사) △심화과정 7개 종목(옻칠,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모사, 보존처리) △현장위탁과정 7개 종목(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대목, 드잡이, 구들, 석조각)으로 3개 과정 21개 종목이다. 모집인원은 기초과정 10명 내외, 심화과정과 현장위탁과정은 5명 내외이다.

접수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30일간이다. 개강은 3월 초다.

신성민 기자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오른쪽 첫째)이 12월 8~10일 직접 김장에 나선 모습.


12월 9일 미소원 법당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나눔으로 한 데 모이니 동장군도 '주춤'

부산 불교계, 겨울 앞두고 나눔의 장으로 '훈훈'

범어사, 김장김치 복지기관 11곳에
미소원, 결핵환자 위해 음식 나눔도
고시생 위한 나눔 천불정사까지

부산 불교계서 다채로운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상은 복지기관서부터 국립마산결핵전문병원 환자, 고시생 등 종교·지역에 구분이 없다. 방법도 다양하다. 김장김치 뿐 아니라 쌀, 후원금, 장학금 그리고 음식까지 총 동원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8~10일 설법전 옆 마당서 총 5,000포기 김장김치를 담갔다. 범어사 김장은 1년 동안 대중공양으로 제공될 뿐 아니라 나눔을 위한 정기 행사다. 범어사는 10일 김장 김치 중 800포기를 사회복지법인 범어 산하기관 8곳과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산하기관 3곳에 전달했다.

특히 3일 동안 주지 경선 스님이 직접 참여해 대중들을 격려했다. 경선 스님은 오관게를 설명하며 "정사양약 위료형고 위성도업 응수차식(正思良藥 爲療形枯 爲療形枯 爲成道業 應受此食)이라고 했다. '밥 먹는 것을 약으로 여기고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도업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공양을 받는 것이다'란 뜻이다. 도를 이루기 위한 공양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며 "작은 울력이라도 함께 하고 나눔으로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격려했다.

(사)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은 계를 지키며 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2월 9일 법당서는 돼지고기를 자르고 담았다. 그 양이 100인분이 넘는다.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다. 홍시를 갈아 넣어 속을 버무린 맛깔스런 김치와 최고급재료로 마련한 음식들이 봉투에 차곡차곡 담겼다. 이 모든 음식은 다음날 방문할 결핵 전문 국립마산병원 환자들을 위해서다. 결핵환자들의 완쾌를 발원하며 영양 높은 음식을 준비한 것. 미소원은 결핵 환자 뿐 아니라 주변에 독거 어르신과 소외 이웃을 위해 더 넉넉하게 마련했다.

미소원은 1989년부터 매년 12월 2째주에 국립마산병원을 방문한다. 갈 때마다 팥떡, 수육, 김장 김치, 과일, 후원금 등 푸짐하게 준비한다. 특히 국립마산병원을 찾는 특별 봉사팀도 구성돼 매달 무료안경 맞춤, 이미용 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를 실시, 환자들의 손발이 돼주고 있다.

강순희 국립마산병원 봉사팀장은 "그분들이 쾌차하길 바라는 심정으로 한 달에 한번 병원을 방문한다"며 "이번에는 미소원 식구들이 함께 준비한 공양 드시고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불사도량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2월 10일 동네잔치를 베풀었다. 부산대 인근에 위치한 천불정사는 10년 동안 부산대 고시생들을 위해 사찰 내 기숙 및 학습공간인 '고담정'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2007년부터는 행정고시 준비반인 '신목정'에 매년 1,000만원 총 1억 원을 지원했다.

행사 당일엔 2016년 행정고시 합격자 전성민·허라윤·박은경 학생이 직접 주지 고담 스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천불정사는 합격자들을 축하하며 점심공양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과 지역민을 초대해 전승렬 학생 외 4명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장전3동에 불우이웃 돕기 백미 50포 1000kg을 지원했다. 천불정사는 연중 기도 정진 회향을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고담 스님은 "바른 인재가 곧 사회를 밝게 한다. 인재를 위한 나눔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회향은 곧 사회에 큰 힘이 되는 밑거름"이라며 "부처님 자비심 실천은 따뜻한 세상, 더불어 가는 세상에 핵심 진리"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광명사 일주문 낙성 '시민 위한 안식처 발원'

12월 12일, 사부대중 2000여명 염원 모아

부산 광명사(주지 월장)는 12월 12일 '일주문 현판 제막식 및 낙성 법회'를 신축 일주문 앞에서 봉행했다. 이를 계기로 광명사는 일주문을 해탈성불의 소식을 전하는 문으로 알고, 정진 도량으로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일주문은 높이 10.5m 연면적 20평(66.33㎡) 규모다. 형태는 다포식 5량가 맞배집 양식으로 웅장한 용모를 선보였으며, 화강석을 가공해 설치한 기단과 연꽃문양 연화문 초석이 자리 잡아 화미의 정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주문은 지난 8월에 기공식을 시작해 약 4개월 공사기간을 거쳤다.

낙성식은 △테이프 컷팅 △현판 제막식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 보고 △표창패 수여 △개회사 △법어 △치사 △축가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사는 일주문 낙성에 참여한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표로 윤종열 광명사 고문, 이창욱 광명사 신도회장, 이호목 신도회 부회장, 노성운·전순선 재무 부장에게 각각 표창패를 수여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문 밖은 세속이요. 문 안은 불국정토이니 이 문을 들어설 때 오직 일심으로 귀의하라. 일상에서 보면 삼라만상이 둘이 아니니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생사와 열반 또한 둘이 아니다. 이 문을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실상묘법의 초상승 진리를 깨닫고 잃었던 본바탕을 되찾으라"고 법어를 전했다.


부산 광명사가 12월 12일 '일주문 현판 제막식 및 낙성 법회'를 신축 일주문 앞에서 봉행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일주문 불사의 의미는 미혹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해탈성불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불사의 공덕이 우주 법계에 넘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량에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주지 월장 스님은 "일주문을 건립한 공덕으로 광명사 불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심청정 관음정진 수행에 더욱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며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가 법의 향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신나는 힙합무대에 불교도 'Swag'

제1회 '2016 컴페티션&힙합콘서트' 대상 불도저 팀

제1회 '2016 로얄비츠 컴페티션' 대상이 발표됐다. 동아방송예대 소속 '불도저' 팀이다. 5명의 여성 멤버로 구성된 불도저는 대상 수상의 기쁨을 만끽하며 뜨겁고 격렬한 무대를 채웠다. 그리고 대회장인 원허 스님에게 신나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스님을 뵈면 공손히 합장으로 예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허 스님은 반갑게 그들의 손을 잡는다. 이렇게 벽을 허무는 것, 이번 행사를 주최한 혜원정사 원허 스님의 포교법이다.

로얄비츠 페스티벌(대회장 원허)이 12월 10일 오후 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서 처음으로 열렸다.

랩과 댄스 등 청소년과 청년들의 소유물로만 여겼던 분야에 불교가 손을 내밀었다. 대회 전 전국에서 예선에 참가한 팀만 800여 개다. 치열한 예선을 넘어 찾아온 15개 팀은 댄스, 보컬, 랩 등으로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날 대상은 '불도저'에게 돌아갔으며 △댄스 부문 1위 미니멀리스트(19·아현산업정보고) △랩 부문 1위 MuSchiz 허석무(26·EDPD) △보컬 부문 1위 정연경(24·투산타워) △인기상 보컬 장성수(23) 등이 수상했다.



제1회 로얄비츠 페스티벌 대상 수상팀 '불도저'와 대회장 원허 스님.

불도저 팀은 "무대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기대를 못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허 스님은 "불교색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순수하게 후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며 "꿈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로 청소년을 위해 매년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송년의 밤 개최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는 12월 12일 부산 코모도호텔서 '2016년 송년의 밤'을 열고, 한 해 동안 가르침을 준 승가와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진〉 이날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앞으로 포교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대성 회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모든 회원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다음 정유년에는 역대 회장의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초심을 지키고 불교 홍포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경선 스님은 "회원 불자들의 노력이 불도 부산을 빛나게 한 원동력"이라며 "모두 올 한 해 고생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법문에서 "2016년을 회향하며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얘기를 나누고 듣는 각자의 마음자리를 보면 모두가 존귀하다.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발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聯·신세계안과 MOU 체결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2월 9일 서면신세계안과 5층 신세계문화 나눔터서 신세계안과(원장 허준)와 '의료나눔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앞으로 신세계 안과는 불교계 의료나눔 활동에 이바지하고 의료기술을 승가와 재가자를 위해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이번 협약은 스님과 재가불자에게 큰 의료혜택이 될 것"이라며 "승보공양에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사무총장 정산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 스님, 능후 스님과 신세계안과 허준 원장 등이 참석했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소원을 이루는 크리스탈 칼라 테라피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하지 못한 동기(부족함 때문)
②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8주완성

(색) 칼라의 힘

■ 1교시 :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칼라공부
붉은색 :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노랑색 : 예전의 두려움, 전생부터 짐져온 불안 초조 (내면에 숨어있다)
■ 2교시 : 정확하고 재미있는 아주 쉬운 숫자로 보는 사주
■ 3교시 : 다가올 건강을 지적해주고 성형을 지적, 상담해 줄 수 있는 관상학

자기 자신을 먼저알고 자신의 기운을 먼저 바꾸고
상담해 주는 당신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 010-5658-2657


김소희셰프
고운사 사찰음식체험

천년 솔 향 가득한 사찰음식전문 특화사찰

고운사 템플스테이 '찰나에 알아차림과 쉼!'

■ 일반 프로그램

천년 솔향을 맡으며... **찰나에 알아차림과 쉼!**을 통해 휴식, 재충전의 기회를 화엄도량 고운사에서 가지세요.

-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체험형**) : 타종체험, 예불, 108배, 참선, 선체조, 단주만들기, 송림 숲 걷기 명상, **사찰음식체험**(둘째날 점심) 등
  ▷참가비(1박 2일) : 성인 – 6만원, 학생 – 5만원
- 솔향을 찾아서..(**휴식형**) :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참가비(1박 2일) : 성인 – 5만원, 학생 – 4만원
- 참가자를 위한~(맞춤형 **당일체험**) : 명상, 단주만들기, 스님과 차담 등
  ▷참가비 : 1만원 ~ 3만원(프로그램내용에 따라 협의)

※ 사찰음식체험은 5인 이상일 경우 가능, 휴식형, 당일체험은 재료비 별도

■ '가는해 오는해' 템플스테이

묵은 것을 버리고 2017년 새해를 산뜻하게 출발하세요.

- 일 시 : 12월 31일 ~ 1월 1일

주요 프로그램 : 고민과 갈등 적어 태우기, 연꽃 등 만들어 소원지 달고 탑돌이, 제야의 종 타종체험, 해맞이, 떡국먹기 등

- 참가비(1박 2일) : 성인 – 5만원
  학생 – 4만원

문의 : 054-833-6933 www.gounsa.net

“불교 위상 높인 불교대학 효과”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영암불교대학장 설도 스님

흔히 ‘산에 가보면 절을 안다’ 고 한다. 영암 월출산은 해발 809m의 비교적 높지 않은 산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산에 오르면 보통 산이 아닌 것을 실감하게 된다. 산세는 ‘호남의 소금강(小金剛)’ 이라 칭할 만큼 다양한 기암괴석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만 산행길은 ‘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험준하다.

월출산 자락 도갑사는 이런 기(氣)가 센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고찰이다. 그래서 신라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갑사는 영암을 대표하는 산사이자, 최고의 문화유적지이다. 이런 도갑사는 지역불자들에게 조금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바로 영암지역 불자들은 도갑사에 대해 ‘불교세 약한 곳에서 불교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찰’ 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대설을 앞두고 만난 도갑사 주지 설도 스님〈사진〉은 영암불교대학 학장으로서 지역 불교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스님은 불법(佛法)을 공부하는 참 도량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보다 오직 ‘부처님 공부’ 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읍 인구 8천여 명으로 전형적인 시골동네인 영암읍 군청 앞 작은 건물에 영암불교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매주 50여 명의 불자들이 찾아와 공부하는 이곳은 30평 규모의 작은 공부방이다. 100만, 1000만 인구의 대도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불교세가 약한데다가 전남의 작은 시골인구를 감안하면 ‘엄청 많은 학생들’ 의 공부 열정이 남부럽지 않다.



설도 스님은 “처음엔 ‘단체가 잘 굴러갈까?’ 란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난 7년간 여정이 만든 결과를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영암불교대학은 2010년 개강 후 7년 동안 지역에서의 도갑사 이미지를 많이 변화시켰다. 도갑사는 예전에 관광지나 종교시설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영암 하면 도갑사, 도갑사가 운영하는 불교대학’ 이라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영암에서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이란 평까지 얻었다. 즉 사찰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공무원들과 불자부부 10쌍, 가정주부 등 구성원은 많지 않지만 지역 내 불교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증명한다.

“신도가 젊어졌어요. 그리고 포교사가 3번째 배출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이 많아졌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주말에 사찰을 오더군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사찰 구성원들이 젊어진 데 대해 설도 스님은 밝은 목소리로 힘줘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가 아닌 군에 불교대학이 생긴 뒤 지역주민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며 불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향후 도갑사는 가족법회, 주말법회 등을 계획적으로 열어 단순한 공부뿐만 아니라 신행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찰에서 철야정진, 수계식,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영암은 시골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나이든 불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회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사찰이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도 스님의 말처럼 현재 영암불교대학에 다니는 중장년층은 고민이다. 그런 연유로 스님은 100세 시대에 맞춰 사찰음식, 요가, 꽃꽂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공간이 활용되는 불교교양대학 운영을 꿈꾼다. 이를 위해 동문회를 만들고,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로 추위 녹이는 군산불교계

군산사암연합회, 12월 10일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5천장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자비의 연탄을 나눠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들은 12월 10일 군산시 구암동 인근 달동네 17가구에 자비의 연탄 5000여장을 전달했다.

상주사 도연 스님, 동국사 종걸 스님, 흥천사 법희 스님, 은적사 석초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수도암 무진 스님 등 군산사암연합회 소속 스님과 불자 100여 명은 군산시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각 연탄 300장씩 직접 배달했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탄나눔 행사를 계획했다”며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암연합회가 처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불교사암연합회 스님과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이 저소득가정에 연탄을 옮기고 있다.

스님은 또 “그동안 군산불교계의 대사회적 활동이 많이 미진했다”며 “사암연합회 스님들의 뜻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한 군산불교자원봉사단 여여심 불자는 “타 종교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불자로서 내심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면서 “지역불자들이 앞으로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에게 보살의 손길을 내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암연합회는 군산지역 종교인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군산 4대 종교인 평화합창제를 주관하는 등 종교간 소통과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인재로 바르게 성장하길”

선운사, 군산여고 파라미타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전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자원봉사 성적이 우수하고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고교생들에게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선운사는 12월 11일 군산여고 파라미타 템플스테이 회향식에서 평소 돈독한 신심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전세미(군산여고 2) 양 등 5명에게 장학금 각 50만원을 수여했다.

이 자리서 경우 스님은 “그동안 학업과 자원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선운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군산파라미타 학생들을 눈여겨봤다”며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면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잃지 말고, 지역의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운사는 12월 10~11일 1박2일 일정으로 군산여고 파라미타 학생 35명을 초청해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선운사 스님들과 장학생들이 장학금 전달식서 환하게 웃고 있다.

모처럼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원정 스님의 지도로 사찰예절습의, 예불, 108배, 단주만들기, 도솔산 트레킹, 명상, 스님과의 대화, 소원등 날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특히 풍선에 소원을 적어 하늘에 날리는 소원등 날리기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박2일의 일정을 마무리한 노진주 학생은 “사찰에서의 하룻밤은 매우 뜻있는 시간이었다”며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준 선운사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방황 않고 빛으로…”

청암봉사協, 광주소년원서 원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청암봉사협의회(회장 지암)는 12월 8일 2016년 학예발표회가 있는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원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암 스님, 월성 스님(보광사 주지), 김애준, 김도연, 김애자, 주해군, 서효숙 불자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전달식에서 지암 스님은 “늘 작은 것에 만족하고,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전달식에서는 청암사 신도 김애준 불자가 전국 우수멘토활동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애준 총무는 2006년부터 소년원생들을 위한 인생상담과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멘토활동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왔다. 특히 대전 · 광주 · 전주 · 제주소년원과 여수복지공단 등에서 10여 년 동안 매월 멘토활동과 점심제공, 간식제공을 이어왔다.

김애준 총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

12월 9일, 교구종회도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성우)가 불기 2560년 병신년 동안거 포살법회와 제4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12월 9일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포살법회에서 포살법사로 등단한 일원 스님은 110명의 대중스님들을 향해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강조했다.

일원 스님은 “포살법회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안거기간동안 수행자의 자리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화림선원에서 교구종회가 열렸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 종무계획안과 예산계획안의 승인에 이어 말사 종무감사 결과보고, 전북불교인 송년대법회와 신년하례법회 개최의 건, 호남 6본사 신도회 임원회의 개최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靈鷲山雲門寺

雲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17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기간 _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우편, 전화, 직접 방문접수 가능)
도착일시 _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_ 2017년 1월 17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_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바랍니다.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연수교육사항 : ①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연수 ② •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 4학년 졸업 후 서광스님 '명상 심리상담사 자격증'취득
3)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4)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요강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7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당일접수도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_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전문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명성
원감 진광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홈페이지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三學 이루는 길, 서유기의 여정 마치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㊼ 대장정 마친 현장법사 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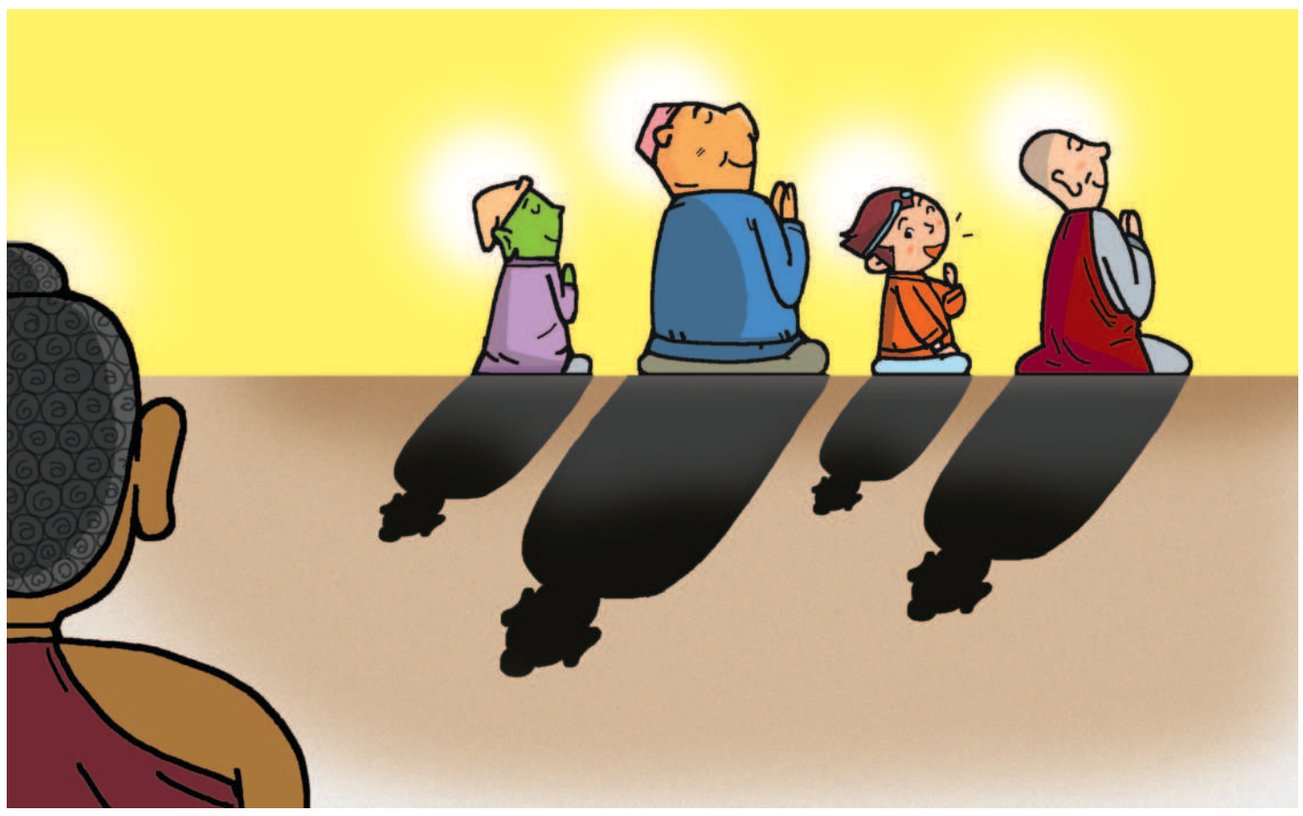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알고 보니 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영취산의 뛰어난 경치 감상하며 조금 오르니 바로 정상이요, 거기 꿈에도 그리던 뇌음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장법사 따라 들어가 부처님 뵈옵는 거지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산문을 지날 때마다 "당나라 성승이 경전을 구하러 이곳에 왔습니다"라는 사대금강의 알림이 부처님 앞에 전해지고, 드디어 일행 모두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 예를 표합니다. 지극한 공경과 찬탄의 마음을 담아 아룁니다. "제자 현장 왔습니다. 동쪽나라 황제의 뜻을 받들어 경전을 구하러 왔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려는 뜻 어여삐 여기시어, 큰 은혜를 베푸소서!"

부처님 만면에 웃음을 띠시고 이르십니다. "참으로 큰 고생을 하였구나. 그리하여 여기까지 왔구나…내 그대들의 노고를 찬탄하며 오묘한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내리노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중생을 구하는 큰일을 펼치도록 하거라. 다만 그 땅의 중생들이 어리석고 고집이 세어 이 위대한 가르침을 쉽게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이로다."

그리곤 아난 가섭에게 경전을 주라 이르시니 두 존자, 일행을 경전이 보관된 전각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두 존자가 손을 내미네요.

"설마 맨손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에게 줄 선물을 좀 내놓아 보십시오. 그래야 경전을 드리지요."

참으로 당황스런 순간입니다. 그 고생하며 오는 여정에 무슨 선물준비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존자는 정말 집요하게 선물을 요구하며 이죽거립니다.

"오호? 그렇게 빈손으로 경전을 전한다면 후인(後人)들은 굶어 죽을 겁니다".

이런 작태에 손오공 분기가 치밀어 바로 석가여래한테 가서 직접 받아가자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경전을 내어 주네요. 그래서 말에 싣고 봇짐으로 짊어지고 나와, 석가여래께 감사의 인사 여쭙고, 돌아가는 길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군요. 두 존자가 내어준 경전은 글자 없는 경전[無字之經]이었네요. 선물을 안 주어서 심통을 부린 것인지는 몰라도…. 연등고불(燃燈古佛)께서 이 사태를 알아채시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동녘 땅의 중생들이 우매하여 글자 없는 경전을 알아보지 못하면, 성승이 헛걸음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백웅존자라는 분을 시켜 글자 없는 경전을 회수하게 합니다. 백웅존자 잽싸게 구름타고 달려가 경전을 탈취하여 달아나니,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기겁을 하여 추격하지요. 급해진 백웅존자 경전을 쌌던 보자기를 찢어버리고 경전을 티끌세상으로 던져버렸지요. 떨어져 내린 경전 주워들고 보니 글자 없는 경전이네요. 그래서 아난 가섭 두 존자를 욕하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돌아와 하소연을 하면서 새롭게 경전을 내려 주십사 청합니다. 그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은 가벼이 전할 수도 없고 또 공짜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빈손으로 와서 가져가려 하니 빈 책을 준 것이다. 빈 책이란 '글자 없는 참된 경전'이니 도리어 참으로 훌륭한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동토 중생들이 우매하여 깨닫지 못할 터이니, 이제 이것(글자 있는 경전)으로 전할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글자 없는 경전은 단순히 가짜 경전이 아닙니다. 연등고불이 말씀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듯이, 단지 우리 중생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 본디 참된 경전이 바로 글자 없는 경전입니다. 최상의 진리가 어디 글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던가요. 모든 가르침은 달은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경전의 문자들은 단지 손가락일 뿐입니다. 달은 손가락을 넘어서 있지요. 마찬 가지로 진리는 문자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 문자를 넘어서 있는 최상의 진리를 바로 글자 없는 경전으로 상징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손가락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달을 볼 수 있고, 글자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기가 문제이지요. 그런 점에서 아난 가섭 두 존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이 우매해서 글자 없는 경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 데는 역시 심통이 좀 끼어 있다고 보아야 할 듯 하네요. 하하.

다행이 연등고불께서 알아채시고 사단을 벌이

부처님께 〈무자지경〉 받아
하계에 찢어 뿌림은 가르침이
세상 곳곳에 있음을 의미

셔서 다시 경전을 바꾸어가게 되지만, 서유기의 이 대목은 삼쾌선생이 보기엔 좀 밋밋합니다. 삼쾌선생이 서유기를 쓴다면 이 대목을 좀 극적으로 바꾸어 보고 싶네요. 백웅존자가 글자 없는 경전을 탈취하니 손오공 삼형제가 추격한다. 백웅존자 보란 듯이 구름 위해서 글자 없는 경전을 산산이 부수어서 하계로 뿌려버린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신다. 손오공 삼형제 떨어지는 경전 조각을 보니 글자 없는 것을 알아채곤 다시 돌아와 경전을 바꾸어 간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구요? 글자 없는 경전을 부수어 하계로 뿌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유기 판본에는 단지 "보자기를 찢어 경전들을 티끌 속으로 던져버렸다"고 간단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삼쾌선생 식으로 고쳐 쓰면 어찌되느냐…. 글자 없는 참된 경전이 우리 이 세상 속으로 부서져 들어와 있다는 의미가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단지 오탁악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넘어선 참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담겨진 글자를 넘어선 진리를 찾는 마음,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대학 재학시절에 읽었던 서유기는 이런 묘사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러한 묘사가 되어있는 판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정말 정말 끝났습니다. 글자 있는 경전으로 바꿔가지고, 예정된 재난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마지막 재난도 가볍게 넘기고, 팔대금강의 인도로 바람타고 구름타고 당나라로 돌아옵니다. 정말 금의환향인 셈인가요. 당태종의 융숭한 환대 속에 경전을 안탑사라는 절에 봉안하고, 필사본도 만들어 널리 배포하게 되지요. 이런 큰 공덕을 읊은 서유기의 시구를 한번 직접 음미해볼까요?

서쪽 끝 인도에서 자비의 구름 끌어와
동쪽 끝 중화대국에 불법의 비를 내려 주었네.
성스러운 가르침 빠진 부분 있던 것 온전해 지고 중생들 죄업을 지었으나 다시 복을 받게 되었구나.
……
이 경전 널리 유포되어, 해와 달과 같이 다함없고 큰 복 멀리 전해져, 하늘땅과 같이 크고 영원하기를!

그 큰 복이 멀리 전해져 지금 우리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감동, 저와 여러분 함께 느끼고 있는 것 맞죠? 나칠계님까지도 느끼고 있는 거 맞죠? 맞죠? 우리 모두 만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죠? 현장법사 만세! 손오공 만세! 저팔계 만세! 사오정 만세! 용마도 만세!

역사적 사실로 말하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겠지만, 서유기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한 편의 수행기지요. 수많은 요괴들은 수행과정의 장애일 경우가 많았구요. 그런 모든 장애 물리치고, 육체마저 넘어서는 그 험한 과정을 모두 겪었죠. 그리고 마지막 경을 전하는 임무까지 마쳤다 함은? 수행의 궁극에 도달했다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그 궁극은 무엇일까요? 답은 다 알고 계시는 것!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야 서유기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중국에서 황제에게 경을 강설하려던 현장법사를 팔대금강이 영취산 뇌음사의 부처님 앞으로 다시 모셔 갑니다. 부처님 다시 현장법사 일행을 공로를 치하하시곤 모두 그에 걸맞는 정보(正報)를 내려주십니다. 우선 현장법사. "그대는 원래 전생에 내 제자였는데 나의 큰 가르침을 소홀히 하여 그 죄로 동녘 땅에 태어났는데…. 내 가르침을 잘 지키고 불경을 전하는 큰 공덕을 세웠으니…. 그대를 전단공덕불(栴功德佛)로 삼노라!"

다음은 손오공. "……늘 변함없이 요괴들을 물리쳐 공을 세웠으니…… 그 정과를 인정하고 투전승불(鬪戰勝佛)로 삼노라!"

다음 저팔계는 "……기특하게 불교에 귀의하고 삼장법사를 잘 보호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어리석은 마음이 남아 있고 욕정도 끊지 못하였다. ……. 너를 정단사자(淨壇使者)로 삼노라!"

사오정은, "……네 정과를 인정하고 금신나한(金身羅漢)으로 삼노라!" 마지막으로 용마! "너의 직책을 올려 정과를 인정하고 너를 팔부천룡(八部天龍)으로 삼노라!"

이리하야, 이리하야…. 현장 일행이 모두 공적을 인정받고 부처님 가문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군요. 그 가운데 저팔계가 "왜 저만 격이 낮은 사자(使者)입니까?" 하고 불만을 표하지만, 부처님 한 말씀에 헤벌쭉하지요. "네가 입만 살고 몸은 게으른데다 밥통만 크지 않으냐? 정단사자는 불사기 있을 때마다 제단을 정돈하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관직 아니냐?" 하하…. 저팔계의 약점을 그대로 찔러 버리시는 부처님!

아무튼 다시 이리하야, 사람 마음의 삼독심(三毒心)이 모두 부처되는 길을 돕는 삼학(三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부처님 가문의 일꾼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단순히 현장법사 일행이 정과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의 모든 요소들이 성불의 도우미로 인정받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크게 외쳐야 됩니다. 탐심(貪心)보살 마하살! 진심(嗔心)보살 마하살! 치심(癡心)보살 마하살! 나무 계행(戒行)불! 나무 정행(定行)불! 나무 혜행(慧行)불! 삼독심 돌이켜 삼학을 이루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머나먼 서유기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이루는 큰 과정을 내내 이끌고 가는 것이 현장법사로 상징되는 믿음의 힘과 용마로 상징되는 정진의 힘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의 여러 요소들을 부처되는 도우미로 삼아 큰 길을 나아갈 준비를 이루신 셈이지요. 그리고 그 시작에 이미 원만한 성취를 보여주시는 부처님의 가피 아래 원만히 불도를 성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서유기의 큰 여정의 성취에 우리 모두 함께 만만세를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 "만만세!"를 회향하면서, 삼쾌선생 여기서 스윽~ 물러납니다. 아주 품위 있게!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 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도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

그 절집의 빛

㉖ 봉화 축서사 보광전 비로자나불

우주법계에 충만한 화엄의 빛

법의 세 가지 용법

법(法)은 인도어 '다르마'의 한문 번역어다. 일본 불교학자 마즈다니 후미오는 〈현대불교 입문〉에서 불교 술어로써 '법(法)'은 대략 세 가지 용법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제법무아(諸法無我)'와 같은 용법에 쓰이는 우주만유의 존재 그 자체이고, 둘째는 부처님의 출현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 자체에 성립하는 법칙성, 셋째는 여래께서 무상정등각을 얻어 중생의 능력에 맞춰 설하신 가르침 등이다. 물론 그 셋은 서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과정을 통해 진리법에 도달하는 것이다. 불교 궁극의 법은 상의성(相依性)의 연기법(緣起法)에 이른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인과 연에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므로 일체는 공(空)하다. 그런데 〈잡아함경〉에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온다.

한 비구가 붓다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연기법은 당신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만드신 것입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또한 다른 자가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항상 우주법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만유에 관통하는 법은 그 누가 창조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공을 초월한 근본적인 원리임을 일깨운다. 법은 곧 우주에 가득 찬 진리 그 자체다. 만유의 생명력이고 자비력인 까닭에 광명과 다르지 않다. 그 법, 진리, 광명을 인격화한 몸이 법신이고, 곧 비로자나불이다.

법신은 중생의 여래장과 일체

법신 비로자나불은 법의 인격화다. 왜 그토록 광대하며 근원적인 진리의 법을 인격화 하였을까? 매번 그것이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노자는 〈도덕경〉의 첫머리에서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고 했다. 근원적인 원리인 도를 인격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법을 인격화 하여 화엄의 주존불로 예경한다. 우주의 진리를 깨치는 힘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은 사유와 바라밀을 통하여 진리의 길에 이른다. 선정과 지혜, 정혜쌍수(定慧雙修)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붓다께서 일대사인연으로 오셔서 몸소 생멸과 고행을 통해 그 길을 보이셨다. 우주에 충만한 진리는 결국 사람의 마음 능력에 따라 어둡고, 또 밝아진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람의 밝은 마음이 곧 법이고, 진리 일 수 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라는 한 물건을 지녔다. 번뇌의 불을 끄면 우주법계의 진리를 볼 수 있다. 만유의 실상, 그 본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자등명 법등명의 울림이 크다. 무명을 밝히는 광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저마다 여래의 불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여래의 불성을 가졌으니 중생의 마음이 여래장(如來藏)이다. 석가모니께서 무상정등각을 얻어 마침내 비로자나 법신불과 일체가 되신 뜻도 어렴풋이 알 듯 하다. 법신불의, 일체 중생이 간직한 여래장으로 개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법신의 인격화가 가능했던 것도 그 때문인가? 원효스님께서 〈대승기신론소〉에서 법신을 여래장으로 정의하신 뜻이 그것이던가? 우주에 두루 비추이는 '광명편조(光明遍照)'의 빛, 법신은 중생의 여래장과 일체가 된다. 오른손으로 왼손의 검지를 감싼 법신 비로자나불의 독특한 지권인(智拳印)의 수인(手印)도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님을 일깨운다. 지권인을 한 여래형 비로자나불 불상이 8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한국 불교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목조 광배. 불상 조성후 후대에 제작한 것이다.


목조 광배 하단부. 물고기 유영하는 연지(蓮池)다.

> 비로자나불, 法을 인격화한 법신
> 남향의 보광전에 동향으로 배치
> 화엄주불로 867년 조영한 법신불
> 광배 하단 물고기 유영하는 연지

독창적인 지권인 여래형 비로자나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은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통일신라 혜공왕 2년(766년)에 제작된 불상으로 9세기가 되어서야 제작하기 시작한 중국이나 일본의 비로자나불 불상 조성시기보다 반세기 앞서는 시기다. 또한 중국, 일본에서처럼 밀교양식의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형이 아닌 여래형 비로자나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독창적인 불상이다. 9세기에 이르러 신라의 화엄종찰 영주 부석사를 중심으로 경북지방에 석조비로자나불 불상이 집중적으로 제작되고, 선종의 도입과정에선 전국적으로 철불이 크게 유행하였다. 현존하는 통일신라 석조비로자나불은 30여점에 이른다. 특히 의상스님의 법맥이 흐르는 영주, 봉화일대의 부석사, 축서사, 비로사, 성혈사 등에 지역적 집중성을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화엄사상의 뚜렷한 반영을 의미할 것이다. 부석사 자인당에 봉안한 두 석조비로자나불은 불상, 광배, 대좌가 온존한 형태로 남아있고, 또 축서사 불상과 대단히 유사해서 일맥상통한 통일적인 양식을 보여 주목을 끈다. 특히 축서사 비로자나불은 제작년도가 경문왕 7년(867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삼층석탑 사리석호 기록이 있어 이 일대 비로자나불의 기년작(紀年作)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축서사 보광전 석조비로자나불. 법체에 흰색 호분을 입혔다.

축서사 비로자나불의 867년 제작년도 추정은 적묵당 앞에 있는 삼층석탑 탑신에서 명문이 새겨진 납석제 사리석호가 발견됨으로써 가능해졌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진열중인 사리기의 표면에는 16행 74자의 석탑 조성기가 새겨져 있다. 승려 언전이 진골 가문인 어머니로부터 시주를 받아 부처님의 사리 10과와 무구정경을 봉안하여 함통 8년(867년)에 탑을 세웠다는 명문이다. 이같은 탑신석, 혹은 불상대좌에서 통일신라시대 납석제 사리기가 발굴된 경우는 몇 몇 사례가 있고, 또 비로자나불 불상 조성과 맥락을 같이하는 까닭에 불상 조성시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산청 석남암사지 불상대좌 납석제 사리호(766년),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 납석제 사리호(828년),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납석제 사리호(863년), 봉화 축서사 삼층석탑 납석제 사리호(867년) 등이 그 같은 사례들이다. 특히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일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비로자나불상으로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아름다운 목조광배의 비로자나불

축서사 비로자나불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화강암 육신에 두텁게 입힌 흰색 호분의 인상이다. 성혈사 비로자나불과 괴산 각연사 비로자나불에서도 그 같은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대구 동화사 비로자나불의 경우 10여 년 전에 호분을 벗겨 화강암 질감을 회복했다. 전체적으로는 불상과 대좌, 목조광배, 닫집의 조화로움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화강암 불상과 대좌는 통일신라시대 본래의 조형이지만, 목조 광배와 닫집은 조선시대 후대의 것이다. 원래의 석조광배 파편 일부는 적묵당 앞 삼층석탑 기단에 얹어 두었다.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의 편액은 보광전이다. 80권본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곳으로 칠처구회(七處九會)로 묘사한다. 일곱 곳에서 아홉 차례 설법하신 연유에서다. 2회, 7회, 8회의 설법을 펴신 곳이 보광전이다. 보광전은 화엄의 법당이다. 그런데 법당은 남향이지만 비로자나불은 서쪽 편에 동향으로 모시고 있다. 인근의 부석사 무량수전의 불상 배치와 같은 방식이다.

두터운 호분 너머로 정으로 쪼아낸 의습과 문양이 돋아나 있다. 법의는 두 어깨를 감싸고 흘러내리는 통견(通肩) 양식이다. 옷깃에는 꽃문양을 베풀었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은 평행의 물결을 이루고 있다. 손 아래 저부조로 새긴 우아한 곡선의 띠매듭이 인상적이다. 비로자나불의 입가에는 옅지만 다정한 미소가 흘러 따스함이 흐른다. 법신은 곧추 세워 수직적으로 당차고, 결가부좌의 하반신은 수평으로 처리해서 대조적이다. 남향이라 법당에 빛이 충만하다. 문수선원의 선풍이 밴 고요함 속에 작고 낮은 법당은 온화하기 그지없다. 법당의 거룩함은 불상 뒤 목조 광배와 닫집장엄 속에서 우러 나온다. 검붉은 빛과 황토빛의 묵직한 질감의 광배는 그 자체가 예술적 감동과 종교적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관상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인다. 밝거나 명랑하기보다는 두텁고 차분하다. 색채의 아름다움과 함께 조형의 오브제들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두광의 둥근 광배의 중심부는 범자 '옴'자를 각인했다. 그 둘레에 卍자를 곳곳에 새겨 자비력을 확산시키고 연꽃을 피워 화엄의 연화장세계를 상징적으로 완성해 두었다. 가장자리는 강력한 빛에너지가 붉은 파장으로 너울대는 형세로 처리해서 하나의 우주법계를 연상케 한다. 아래 부분은 물고기 떼들이 연꽃 사이를 유영하는 연지로 묘사하고 있다. 광배 그 자체가 빛으로 충만한 자비력의 세계이고, 화엄세계다. 비로자나불과 광배가 서로의 일체가 되어 우주법계에 충만한 화엄의 빛을 직지하고 있다. 문자와 언어를 여읜 조형의 빛이 교외별전의 빛일 것인데, 그 빛을 관(觀)하는 마음이 화엄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불교 혁파에도 끊이지 않은 인간애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㊱ 용헌 이원

조선전기 관료 문인 이원(李原, 1368~1429)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공헌한 인물이다. 그는 다수의 승려들과 교유하였으며 수행승의 시축에 화답시를 남겼으니 이는 척불(斥佛)이 소명처럼 인식된 시기에 유불교유가 이어진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의 자(字)는 차산(次山)이며, 호(號)는 용헌(容軒)이다. 저서로는 〈용헌집〉과 〈철성연방집(鐵城聯芳集)〉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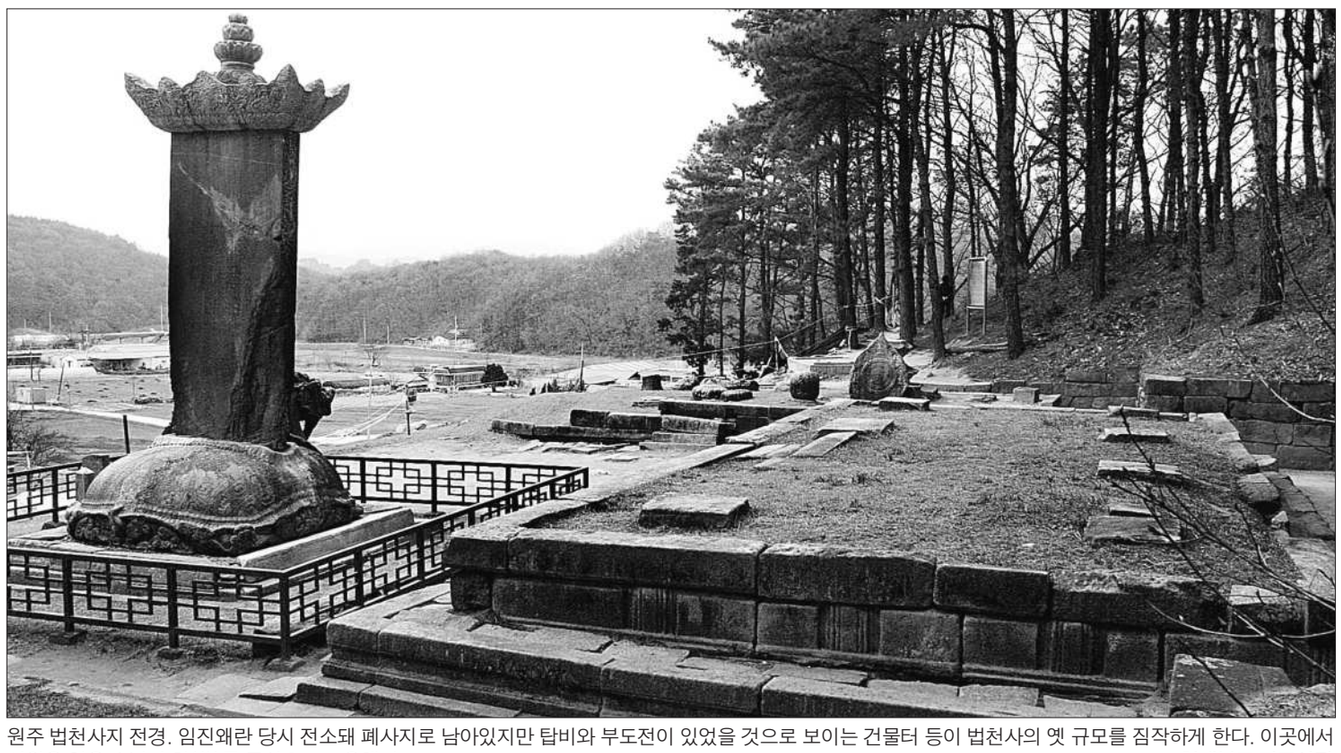
이원의 집안은 3대에 걸쳐 번영을 누린 가문이다. 특히 조부 이암(李 Ⅴ1297~1364)은 재상을 역임한 인물로 동국의 조자앙(趙子昻)이라 칭송될 만큼 예서와 초서에 능했으며 묵죽을 잘 그렸다. 그의 부친 또한 밀직제학을 역임하는 등 공민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가풍(家風)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원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아비를 여이고 매부 권근(權近)의 문하에서 공부했는데, 날로 진취함을 드러내자 "우리 장인이 죽지 않으셨다"고 하였다.

《국조인물고》에 의하면 그가 진사과에 합격한 것은 15세이며, 1385년 문과에 급제했다. 당시 주시관(主試官)이었던 정몽주가 그를 보고 "문경공(이원의 아버지)의 재주와 덕이 크게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런 아들이 있으니 하늘이 보답하여 베풀어 주심이 참으로 징험 있구나"라고 한 점을 보아 그의 부친 또한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는 1388년 사복시승(司僕侍承)에 제수된 이후 공조(工曹), 예조(禮曹)의 좌랑(佐郞)과 병조정랑(兵曹正郞)에 임명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능력을 인정받아 사헌부 지평(持平)과 시사(侍史)를 맡았다. 이뿐 아니라 정종(定宗) 때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올랐다가 태종이 즉위한 후에는 그에게 공신녹권(功臣錄券)이 하사되는 등 순탄한 환로(宦路)를 달렸고, 세종 때에는 우의정에 발탁되는 은택을 입었다. 특히 그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그의 아름다운 수염을 본 황제가 "황염(黃髯: 황금색 구레나룻)의 재상은 뒤에 다시 와야 한다"고 한 사실은 《국조인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삶에도 기복이 있었다. 조선 건국 초 2차 왕자의 난에서 방원을 도와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책록(策錄)되었고, 철성군(鐵城君)에 봉해졌던 그였지만 많은 노비를 불법으로 차지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은 그의 몰락을 예고했다. 결국 공신녹권이 박탈되고 여산(礪山)으로 유배되어 생을 마쳤으니 당시 신 · 구파의 정치적 갈등뿐 아니라 말년이 순탄치 않았던 그의 삶의 일단을 드러낸 일이었다.

무엇보다 정무에 관대하여 경장(更張)을 좋아하지 않고 대체(大體)를 지켰던 그를 상대적으로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았다.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무리들이 있을 때마다 태종은 친히 그의 누명을 벗겨 주었지만 시기하는 무리들의 참언은 계속되었다. 결국 그가 참언을 견디지 못하고 여산으로 귀양 가는 정도에 그친 것은 세종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철성(鐵城: 이원)이 있으면 반드시 잘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은 그를 해배시켜 정승에 임명하고자 했지만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 번번이 저지되었다. 따라서 그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원주 법천사지 전경. 임진왜란 당시 전소돼 폐사지로 남아있지만 탑비와 부도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 등이 법천사의 옛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이곳에서 이원은 일운 스님과 차(茶)를 중심으로 교유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선건국 공헌하며 승승장구
반대파 참언에 말년 유배생활
평양 · 강원도 사찰 유람하며
신분 떠나 승려들과 정 나눠

한편 도량이 넓고 충직했던 그의 성품은 《국조인물고》에 자세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은 도량이 넓고 성품이 충직한데다 바른 학문을 더하였으므로, 그 논의에서 나타내고 사업에서 조처하는 것이 대단히 볼만하였다. 평생 남과 말할 때에 속이고 꾸민 적이 없고 또 모가 나서 스스로 남과 다른 체하지 않았으나, 큰일에 임하여 결단하게 되면 확고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이 산악(山岳)처럼 우뚝하였다. 전주(銓注)를 맡은 10여 년 동안에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자를 선발하되 사심으로 관직을 주거나 빼앗지 않았으므로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참으로 태평재상(太平宰相)이었다.
>
> 그는 강직했고 원칙을 준수했다. 평생 남을 속이지 않았으니 선비의 기상이 준절하고, 평탄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참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할 시절의 재상이었지만 세종의 유신 정치를 돕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한편 그가 승려들과 교유한 자취는 《용헌집》에서 확인된다. 그가 교유했거나 유람했던 사찰은 평양의 망일사와 보흥사, 강원도의 법천사, 흥천사(興天寺), 장단 영통사, 회암사(檜巖寺), 인왕사 등이다. 또한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의 이름도 일운 스님과 인왕사의 장로, 염 스님 등 다수의 인물이 거론된다. 특히 깊이 교유했던 일운 스님과의 우정은 〈기일운상인(寄一雲上人)〉에서 드러난다.

법천사는 앙암 동쪽에 있는데
(法泉寺在仰巖東)
치악산은 드높이 반쯤 허공에 걸렸네
(雉岳山高倚半空)
어느 날 한가로이 시골집에 돌아가서
(何日閒尋田舍去)
분향하고 마주하여 솔바람 소리를 들을까
(焚香相對聽松風)

법천사는 강원도 원주지역에 있는 사찰이다. 신라 성덕왕 때에 창건, 고려 문종 때 지광국사(智光國師)가 머물며 큰 가람을 형성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에 전소되어 절터만 남았다. 지금도 지광국사현묘탑비와 당간지주가 남아 있어 이 절의 위용을 짐작게 한다.

바로 이원이 법천사의 일운 스님과 사귀었던 것이다. 일운 스님은 흥천사(興天寺)의 사리탑 중창을 기념하는 경찬법회를 주관했던 고승이다. 이원이 "어느 날 한가로이 시골집에 돌아가서/ 분향하고 마주하여 솔바람 소리를 들을까"라고 하였으니 솔바람 소리는 바로 찻물이 끓는 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교유는 차로 더욱 돈독해졌음을 드러낸다. 한편 인왕사 장로 스님의 시권에 써준 그의 시 〈제인왕장로시권(題仁王長老詩卷)〉에는 이런 내용이 보인다.

봄이 되니 한가한 날 많아서(乘春多暇日)
앞길 물어 절간을 찾아 가네(尋寺問前程)
소나무 그림자에 누대가 고요하고
(松影樓臺靜)
강물 소리에 절간이 맑구나(江聲院落淸)
이제부터 결사를 함께하여(從今同結社)
여기에서 불법을 배우리라(坐此學無生)
관직을 가벼이 여겨서가 아니라(不是輕軒冕)
물외의 정을 금할 수 없기 때문이네
(難禁物外情)

그가 인왕사의 장로 스님의 시권에 이 시를 쓸 무렵에는 척불(斥佛)의 거센 물결이 일기 전인 듯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결사를 함께하여/ 여기에서 불법을 배우리라"고 했던 것이다. 불법을 배우고 용맹 정진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결사(結社)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스님과의 교유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결사만 할 수 있다면 벼슬길의 부침을 다 버릴 수 있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는 바로 〈장단 영통사의 시에 차운하여(次長湍靈通寺韻)〉란 시에서이다.

한가로이 절을 향해 도림을 찾아가니
(閒向招提訪道林)
시내 따라 오솔길이 솔숲으로 나 있네
(緣溪小逕出松陰)
오관산은 바람과 안개 띤 채 예스럽고
(五冠山擁風烟古)
대각국사비 기울었으니 세월이 오래됐구나
(大覺碑橫歲月深)
삼보(三寶)의 마음은 불경 계율 교화이고
(寶字念心經律化)
노승의 설법은 과거 미래 현재라네
(老僧讀法古來今)
만약에 결사하여 이곳에 눕는다면
(若爲結社亭中臥)
벼슬길의 부침도 다 버릴 수 있다네
(一任名塗昇與沈)

그가 찾아간 장단의 영통사는 오관산에 위치한 절이다. 이 절에 대각국사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대각국사가 수행했던 절인 듯하다. 그러나 그가 영통사를 찾아갔을 무렵에는 이미 대각국사비가 기울어져 있었던 듯하니 세월은 이처럼 무상한 법이다.

한편 노승의 설법은 삼세일여(三世一如)의 법도가 명백하니 그가 영통사를 찾은 이치도 이를 깨치기 위함이었던가. 그러기에 "만약에 결사하여 이곳에 눕는다면/ 벼슬길의 부침(浮沈)도 다 버릴 수 있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리라. 아무튼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그도 왕조의 변화를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고려의 유신으로 건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그였으니 말이다. 왕자의 난에 방원의 정치적 노선을 따랐던 그였고 세종 때에는 높은 벼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불교 혁파 상소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정치적 명분은 분명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유불교유는 이어졌으니 이는 〈기백운산염상인(寄白雲山焰上人)〉에서 확인된다.

몇 자 편지, 아득히 속세에 전해져서
(隻字遙傳落塵ø)
스님께서 백운산에 계신 것을 알았네
(知師住錫白雲山)
눈 깊은 계곡 길에 지나는 이 없어서
(雪深溪路無人過)
솔 아래 바위 문은 항상 닫혀 있겠지
(松下巖扉盡日關)

염 스님은 백운산에서 수행한 고승이다. 이들의 교류가 얼마간 뜸했던지 염 스님이 백운산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님이 보낸 편지에서 알았다는 것이다. 백운산은 깊은 산중이다. 한겨울 눈까지 덮였으니 더욱 인적이 드물었을 터다. 그러므로 솔 아래 사립문이 닫혔을 것이란 말에서 염 스님이 선승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의 격동기를 살았던 이원은 승려들과의 교유에서 무엇을 위안 받았으며 무엇을 소통했던 것일까. 바로 학문적 성향이나 정치, 이념, 가문, 신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따뜻한 인간애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로 이들이 나눈 소통과 배려의 따뜻한 온기는 이 글을 연재하는 내내 가슴을 따뜻하게 한 빛이었다. 그동안 거친 글을 읽어 주신 독자 제위들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한다. 〈끝〉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2.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입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 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031-255-0066 | 010-3045-0085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무문관 傳法講主 釋 眞 性

제주불교 代母 덕희 보살 원력…



12월 11일 제주 삼광사에서 열린 '제13회 삼광사 덕희봉사회 김장하는 날'에서 봉사회 도반들이 김치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道伴의 향기

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

제주불교 100여 년 역사 속에 임덕희 대보살은 제석사 · 불탑사 · 보림사 · 덕흥사 · 용화정사 · 해봉유치원 · 삼광사 화주를 맡아 제주불교 불사의 중추역할을 했다. 임덕희 보살은 제주불교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다가 지난 2004년 1월 22일 아미타부처님의 곁으로 떠났다. 향년 82세.

제주불교 대모의 빈자리를 느낀 삼광사(주지 현명) 신도들이 그해 4월 22일 '덕희봉사회(회장 김문자)'를 창립했다. 13여 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덕희봉사회의 명성은 불교계뿐 아니라 제주 전역에 걸쳐 자자하다.

평생 제주불교에 헌신했던 임덕희 보살의 원력은 현재 덕희봉사회원들에 의해 계승 발전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 되고 있다.

찬바람 불어올 무렵이면 덕희봉사회원들과 소외된 이웃들의 연결고리인 '덕희봉사회의 김장하는 날'은 연꽃이 만개하듯 축제날로 승화된다. 지난 12월 11일 삼광사 도량에서 열린 '제13회 삼광사 덕희봉사회 김장하는 날' 덕희봉사회원 도반들의 끈끈한 인연을 들어봤다.

불교축제 그리고 제주축제로

'삼광사 덕희봉사회 김장하는 날'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 및 백혈병소아암협회 그리고 도내 장애인 · 노인복지시설 식구들, 각종 신행단체장 등이 찾아온 만큼 일일이 인사 나누기 어려울 정도. 김문자 삼광사 덕희봉사회장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랐다. 김장뿐만 아니라 된장과 햅쌀 등을 나누며 소외된 이웃들의 희망을 더해가는 삼광사 김장행사가 단위 사찰 규모를 넘어 지역 축제로, 불교계의 축제로 확장됐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잠시 짬을 낸 김문자 회장은 "13년째를 맞는 만큼 덕희봉사회원들도, 찾아오는 손님들도 모두가 축제처럼 받아들여 얼굴마다 미소를 머금는다"며 "4일 전부터 천막을 치고 배추에 소금을 절이고 소금물을 빼는 등 일주일동안 쉼 없는 일정이다. 하지만 그 어느 얼굴에도 구름 낀 회원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보살행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도반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오전 10시 한편에 몽골천막으로 줄을 지은 배추 버무리는 공간은 왁자지껄했다. 13년의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듯 봉사회원들의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다. 오랜 역사만큼 봉사단의 분업도 잘 갖췄다. 젊은 보살들은 김장을 버무리고, 이를 나르고 옮기는 것은 거사들의 몫이다. 고생하는 도반들을 위해 공양간에선 노보살님들이 구수한 손맛을 담아 빙떡(메밀전에 무채를 말아 만든 떡)을 만들어냈다.

올해 버무리는 김장은 총 1500포기. 잠시 허리를 펴고 쉬는 시간, 공양간에서 가져온 빙떡을 갓 버무린 김치에 얹어먹는 그 맛이 과연 일품이었다. 그 온정만큼은 무엇보다 넉넉해 보였다. 하지만 어딜 가든 군기반장이 있는 법. 시어머니처럼 사소한 것조차 눈 밖에 나는 것을 못 보는 송금순 상임부회장이 배추 속까지 잘 스며들도록 양념을 넉넉히 치라며 꼼꼼하게 참견한다. 잔소리에도 회원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연신 싱글벙글이다. 송 부회장과 단원들 사이엔 염화미소가 번진다. 봉사를 하면서도 즐길 줄 아는 이들만의 여유가 묻어났다.

송금순 상임부회장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지만 김장이 바로 덕희봉사회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회원들에게도 당부를 한다"면서 "무엇보다 김장하는 날은 회원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도 다들 잘 인지하고 있다. 그래도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미소 가득한 얼굴로 설명했다.

이를 지켜보는 김문자 회장은 흐뭇하기만 하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이 밀려들기 때문일까. 이제는 알아서 척척해내는 회원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이고 나눔의 손이라 했잖아요. 요즘 다들 바쁜데 김장을 위해 4일 동안 손길을 보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각자 직장생활을 하는 회원들이지만 손길을 보태지 못한 회원들은 후원금을 대신 전할 정도로 서로 존중과 예의가 단단히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감동한 사람들은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덕희봉사회를 돕는 숨은 후원자들이 돼주었다. 그 사랑은 덕희봉사회원들의 손길을 타고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아라동주민센터, 다문화가정, 도내 노인 · 장애인 복지시설, 소아암협회 등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

오전 11시가 되자 도내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김장과 된장, 쌀 등의 선물을 받기 위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이들을 먼저 공양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덕희봉사회 표 김장 떡국'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다. 시설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선물을 잘 전달해 달라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씨까지 담아낸 떡국공양이다.

소외계층 보듬기 13년

2004년 임덕희 보살 타계 계기
덕희봉사회 창립 후 김장봉사
된장 등 후원물품 다변화

봉사의 새로운 변혁 모색

덕희봉사회의 김장은 초창기 350포기로 시작해 지난 2014년 10회를 맞아 10배에 달하는 3천여 포기를 담갔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이 발자취를 따라 많은 불교계 신행단체를 비롯해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김장행사를 열어 덕희봉사회는 다른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리고 2012년 정기총회에서 이를 화두 삼아 그동안 시나브로 준비했던 된장을 늘려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나눠주기






• 공단등(6cm) @2,500원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청도비닐만월등 160,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3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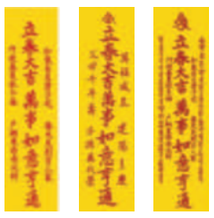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 / 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7.5×30cm



입춘대길(大 / 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 기 : 60×7cm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010-2094-2991-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봉사로 승화시켜 세상 맑혀요”


덕희봉사회는 매주 도시락을 만들어 독거어르신 등을 돕는다.


2012년 2월, 제주 올레길 청소봉사 모습.


12월 11일 김장나눔행사 후 장학금을 전달하는 덕희봉사회 회원들.



김장나눔행사서는 1500포기 가량이 만들어져 된장 등과 전달된다.

로 결의했다.

이에 덕희봉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김장규모를 줄이면서 올해는 1500포기를 담갔다. 대신 된장을 150통으로 늘렸다. 혜택을 받던 도내 각 복지시설 등에 나눠줄 김장에는 조금이나마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했다.

그동안 덕희봉사회원들은 삼광사 부지 3천여 평에 김장배추와 콩 농사를 직접 지었다. 단원들의 부담도 덜 겸 2014년부터 배추농사는 접고, 콩 농사를 확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덕희봉사회원들이 6월에 직접 파종한 콩은 그해 11월에 수확, 대형 가마솥에서 삶고 메주를 만들었다. 이어 100일 동안 자연 건조시킨 메주에 핀 곰팡이를 씻고, 간장에 다시 100일 동안 담갔다가 간장과 분리한 다음 된장에 청국장 가루를 뿌려 다시 찌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숨 쉬는 옹기에다가 3개월을 숙성시킨다. 김장하는 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된장은 1년 이상 숙성시킨 것들이다.

현재 삼광사 뒤뜰에는 250개의 옹기가 있다. 이 옹기는 10년 전 현명 스님이 구입한 것으로 스님의 선견을 엿볼 수 있다.

김자선 회원은 “콩을 직접 꺾어 된장을 담그는 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심이 인다”며 “극진한 정성을 담아 만들었기에 어떤 곳에 내놓아도 자부심이 있고, 나눔이 커져 희망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콩이 밭의 흙심을 딛고 잘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삼광사 거사들의 수행모임인 문수회의 역할이 컸다.

이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던 김영해 거사는 “다들 직장을 다니지만 일요일이면 시간을 내서 배추에 칼슘이 든 영양제를 살포하고, 콩 수확에는 직접 탈곡하는 등 봉사가 곧 수행이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반들이 뿌린 씨앗에 흙심과 햇살을 머금어 속이 꽉 찬 콩으로 만든 된장과 김장은 소외된 이웃의 희망을 심는 씨앗이다.

1년 365일 봉사하는 날

덕희봉사회원들은 1년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봉사회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제주시로부터 독거어르신을 추천받아 ‘자비의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왔다. 초창기 9가구에서 현재는 25가구로 늘어났다. 매주 토요일 직접 사찰 조리실에서 반찬을 만들고, 사찰에 재가 있는 날이면 과일과 떡 등 어르신들에게 전해지는 공양은 더욱 풍성해진다.

찾아가는 ‘자비나눔’ 화제

2009년부터 도시락 배달 봉사

25가구 매주 토요일 실시해

올레길 정화운동 등 전개

특히 11월이면 도시락 배달하는 25가구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셔 ‘조촐한 나들이 행사’를 마련한다. 매년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온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끄는 봉사회원들은 “삼춘, 맹심핸 내려갑서!(어르신, 조심해서 내려가세요)”라는 말씨 덕분에 정겨움을 더한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이 같은 말 한마디가 길을 열어주는 지팡이처럼 고맙기만 하다.

송금순 상임부회장은 “어르신들에게는 반찬을 배달하지만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등 친부모같이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어르신들도 “정말 고마운 게(고맙다). 통 바깥에 나올 일이 어신디(없었는데). 와서 부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구경도 하고 정말 고마워게(고맙다)”라며 고마움을 담아 인사한다.

이밖에도 덕희봉사회는 삼광사 주변의 경로당을 찾아가 전복죽 공양을, 교계 시설인 제주양로원과 제주태고원에 점심공양을, 어르신 생필품 지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그러면서도 2012년 제주서 열린 환경올림픽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앞서 올레길 정화활동을 추진해 ‘청정제주’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제주를 위한 일에도 앞장섰다.

이런 덕희봉사회원들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희망 더하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늘 한 계로 지적받는 노력봉사를 넘어 이웃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봉사를 위해 한 걸음 더 정진하는 것은 서로 보듬어주는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말 ‘김장하는 날’이 이웃온정을 나누는 축제로 승화되었듯 자비나눔을 통한 환희심은 도반의 보살행을 더욱 살찌우게 하는 원력이었다.

김문자 회장은 “배추 한 포기, 메주 한 덩이 자연이 빚어내고 덕희봉사회원들의 정성이 깃들어 만들어 낸 것들”이라며 “쌀 한 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덕희봉사회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김 회장의 말을 귀담아 듣던 현명 스님이 입을 열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로 봉사가 바로 수행입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안고 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도량이 해야 할 일이고요. 이 사회에서 불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아마도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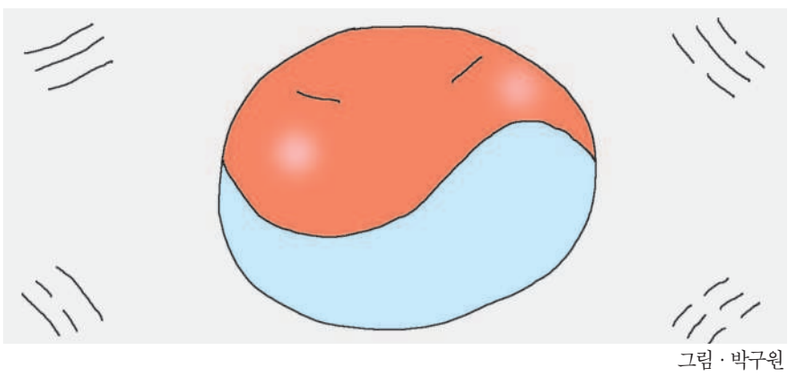
제주=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전법일기

이제는 화 푸세요 ‘대한민국’

학술대회 때문에 부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다녀온 평론가 이형권 교수님과 차를 마실 때였다. 다소 까매지고 마른 모습을 뵈니 말 못할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았다. “잘 돌아오셔서 다행이다. 다음에는 좀 더 편한 곳을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하니 막상 교수님은 뜻밖에 대답을 꺼냈다. “될 수 있으면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말로만 듣던 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의 매력이 어땠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교수님은 사랑에라도 빠진 사람처럼 허공을 부드럽게 응시하며 이야기를 풀어냈다. 교수님은 “승려나 학자, 노동자 누구를 만나더라도 모두 행복한 모습뿐이었는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웃을 준비가 된 것 같다”고 하셨다. ‘웃을 준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과연 우리를 보고 선뜻 그런 표현을 해 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교수님이 돌아온 대한민국은 ‘웃을 준비’보다 이유 없이 ‘화낼 준비’가 더 되어있는 것 같다.


그림 · 박구원

오랫동안 상담한 어느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는 직속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녀의 상사는 상식 밖의 행동과 이상 성격으로 그녀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몇 년간 상사와의 갈등이 지속되자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에 빠졌고, 한 때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갈등은 억압되고 폐쇄된 한국 조직 문화에서 흔히 나타난다. 설사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부조리한 갈등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자기 그룹(가족이나 조직)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지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른바 내 식구 아니면 남이라는 구분이 강한 것이다. 이것은 편 가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크게는 역사적 이데올로기부터 작게는 지역 갈등까지 한국사회의 편 가르기 병폐는 자못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것 같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슬픈 역사가 만들어낸 오래된 방어기제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상처와 피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왔고 대를 이어왔다. 무슨 무슨 기적을 만든 한국인,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라는 최면 속에서 정신적 승화나 해소 기회를 빼앗긴 채 없이 무작정 달리기만 했다. 그것은 선진국을 꿈꾸는 개발도상국의 집단 강박이었다.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국민은 감정과 자신을 숨겨야만 했고 표리부동에 익숙해졌다. 아프든 괴롭든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면서 히스테릭한 방어기제를 쌓아온 것이다.

이제는 그 응어리를 좀 풀어낼 때가 온 것 같다. 미국정신의학회에 공식 등록된 특수 우울증세 ‘화병(hwa-byung)’이라는 명칭만 들어봐도 그동안 쌓여가는 ‘화’에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반성하게 된다. 묻지마 폭행이나 데이트 폭력, 술만 먹으면 너도 나도 에드워드 하이드로 돌변하는 그런 일들이 흔한 뉴스거리가 되어 관심조차 끌지 못한다.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을 꺼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부조리했던 것을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단호히 잘라내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몇 년간 상담자로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귀한 기회를 받았다. 거기서 깨달은 바는 좋은 경험이야말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다. 거대한 파도도 잔잔한 바람에서부터 시작한다. 화(火)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 바란다.

그것이 곧 역사와 사회 또 각자가 쌓은 응어리를 씻어내며 부처님을 마주하는 시작일 것이다. 당신을 바라보는 부처님은 지금 ‘웃을 준비’를 하고 있다. 〈끝〉



신동찬(불교상담심리사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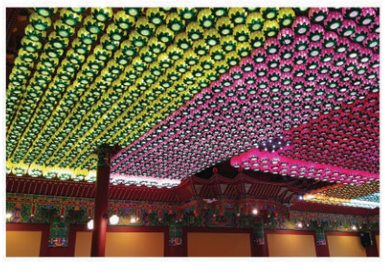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기신론 찬술, 인도인가 중국인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은 인도의 마명(馬鳴, Asvaghosa)이 지은 논서이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바라문 출신인 진제(眞諦, Paramartha, 499~569)와 실차난타(實叉難陀, Siksananda, 652~710)가 번역한 두 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지만 한편 일부 학자들은 기신론이 인도에서 찬술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찬술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설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중국 찬술인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

수(隋)나라 때 비장방(費長房)이 편찬한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에는 양나라 태청(太淸) 4년(550)에 진제삼장이 부춘(富春)의 육원철(陸元哲) 집에서 번역했다는 번역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남북조 말엽에 지론학파(地論學派)에 속한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마명의 이름을 도용해 유포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중국 찬술설은 당(唐)나라 초기 혜균(慧均)이 지은 〈사론현의(四論玄義)〉와 통일신라 때 진승(珍崇)이 지은 〈탐현기사기〉를 근거로 하여 나온 설이다.

〈사론현의〉는 삼론학파의 주 이론을 주제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논한 논서(論書)인데 사론(四論)이란 용수가 지은 〈중론(中論)〉, 〈대지도론(大智度論)〉, 〈십이문론(十二門論)〉과 그의 제자 제바(提婆)가 지은 〈백론(百論)〉의 네 가지 논서를 말한다. 〈탐현기사기(探玄記私記)〉는 법장의 〈탐현기(探玄記)〉를 다시 보충 설명한 것이다.

불교의 경론들 가운데 아직 범어원전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기신론도 그렇고 〈능엄경〉이나 〈원각경〉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범어원전이 없는 대부분의 한문 경론들을 중국에서 찬술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들 한문 경론들이 대부분 역자와 번역한 시기가 밝혀져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능엄경〉과 〈원각경〉의 경우 불교학자들에 의해 이미 중국 찬술 경전으로 판명이 났지만, 〈능엄경〉은 원래 중인도 나란타사에 있던 것을 당나라 중종 때인 705년에 인도의 반날밀제(般剌密帝)가 중국으로 가져와 번역하였다고

"563~592년 중국인 찬술해"
日학자 신료 '중국찬술설' 주장
양계초 등 지지하며 학설 확대

하고, 원각경은 북인도 계빈국 출신의 불타다라(佛陀多羅)가 범본을 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당 예종 때인 693년에 낙양 백마사에 머물면서 번역하였다 한다.

기신론 중국 찬술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일본의 불교학자 모츠스키 신쿄(望月信亨)이다. 그는 1902년에 발표한 〈대승기신론 연구〉라는 논문에서 마명이 짓고 진제가 번역했다는 종래의 설을 부정하고 기신론은 563~592년 사이에 중국인이 지은 논서라고 하여 중국 찬술설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후 중국의 양계초(梁啓超) 1922년에 〈대승기신론 고증〉의 서문에서 모츠스키 신쿄의 중국 찬술설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양계초 이후에도 왕은양(王恩洋), 여징(呂徵), 인순(印順)에 이르기까지 중국 찬술설을 인정하는 이는 계속 나왔다.

모츠스키 신쿄가 주장한 중국 찬술설은 문헌 증거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도 기신론은 마명의 저술로 인식되어 있는 편이며 인도찬술이냐 중국찬술이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설이 양존하고 있지만 중국찬술설은 20세기에 들어와 학계에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술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신론은 〈중론〉, 〈유식론〉, 〈능가경〉 등 남북조 시대의 다양한 불교사상의 갈래를 종합적으로 회통하여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논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고통 속에서 보살의 길을 열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⑤⓪ 목숨을 희사하는 것

捨身命品第十二(사신명품제십이)

菩薩為一切種智故。大悲心為眾生故。捨身捨命得果報不空。若一切捨身不得果報名空捨身。菩薩捨身為著財為生欲使生羞恥故。菩薩為為生捨身命者。易於慳貪者捨一團飯。菩薩捨於身命為慳貪者生其羞恥。菩薩所以施命為護他命故。何以故。他命ㄴ是我命。菩薩雖捨身命不濟他者。為觀陰身過故。為益為生復更受身。若非大悲何有智者而樂陰身。若無大悲。施味者不能樂處生死。菩薩常樂行施。大悲自在隨受生死身如涅槃樂。(보살위일체종지고。대비심위중생고。사신사명득과보불공。약일체사신부득과보명공사신。보살사신위저재중생욕사생수치고。보살위중생사신명자。이어간탐자사일단반。보살사어신명위간탐자생기수치。보살소이시명위호타명고。하이고。타명즉시아명。보살수사신명불제타자。위관음신과고。위익중생부갱수신。약비대비하유지자이락음신。약무대비。시미자불능락처생사。보살상락행시。대비자재수수생사신여열반락。)

번역

몸과 목숨을 희사하는 것에 대한 품 12

보살은 일체의 지혜 종자를 위하고 대비심으로 중생을 위하는 고로 몸과 목숨을 희사하여 과보를 얻되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체의 몸을 희사하여도 과보를 얻을 수 없다면 공연히 몸만 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보살은 몸을 희사하여 인색하고 탐욕스런 이에게 수치심을 일게 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몸과 목숨을 희사하는 것은 인색하고 탐욕스런 이가 한 술의 밥을 버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보살이 인색하고 탐욕스런 이로 하여금 수치심이 생기도록 몸과 목숨을 희사하되 보살이 목숨을 희사하는 까닭은 타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째서 그런가하면, 타인의 목숨이 곧 나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비록 몸과 목숨을 희사하여 타인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오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잘못 관찰한 것입니다. 중생을 이익 되게 하려고 다시 몸을 받되 만약, 대비심이 아니라면 무슨 지혜일 수 있으며 오음의 육신이 즐겁겠습니까. 만약 대비심이 없다면 보시의 맛이란 것도 생사도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보살은 늘 즐겁게 보시를 행하거니와 대비심으로 자재함 따라 생사의 몸을 받되 열반의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생사 고통, 즐거움으로 받는 보살
버리는 기쁨이 진짜임을 알기에

해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한다. 불교용어로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고 싶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생사(生死)가 고통인 것은 탐욕과 애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 꼭 어려운 깨달음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보살은 오히려 생사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몸을 받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

왜 그럴까. 이 몸이 너무 좋아서 다시 얻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다시 태어날 때 부유한 곳에 태어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일까.

그럴 리가 없다. 다시 이 몸과 목숨을 받아 다른 이들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어 즐겁기 때문이다. 버리는 기쁨이 진짜 맛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이다. 중생들을 위해 열반을 기꺼이 버리면서 오히려 고통 속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깨달아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라는 가르침은 이제 갖다버려야 할 가르침이 되었다. 고통 속에서 오히려 즐거운 보살의 길을 활짝 열어야만 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세상 살아가는 것

"세상 살아가는 거 뭐 별 게 아니올시다. 인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뭐 별게 아니올시다. 사랑이라는 거 이별이라는 거 뭐 별 게 아니올시다. 잠시 잠시 동안 단막 단막으로 이어지는 몇 마당짜리 연극배우 되어 잠시 잠시 동안 배역과 무대를 바꾸다 보면 뭐 별게 아니 올시다. 세상 살아가는거 뭐 별게 아니올시다. 아! 아! 그런데도 그런데도 뭐 별게 아닌데도 이별은 죽음보다도 더욱 슬프고 사랑은 생명보다도 더욱 깊어라. 그리움은 화두(話頭)되어 뼈에 박히고 지난날은 사리(舍利)보다도 더욱 빛나라.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그리움만 먹고 살았더니 애인이여! 나의 사랑하는 애인이여! 산이 텅 텅 비인 밤에는 바람만 불어도 울고 싶어라. 바람부는 날 밤엔 울고 싶어라."

'세상 살아가는 거 뭐 별 게 아니올시다'는 젊은 시절 청평사에 머물때 쓴 글이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하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그리움만 먹고 사는 것은 젊으나 늙으나 삶의 비늘 같은 생명의 무게 탓만은 아닐 터이다. 요즘도 산이 텅 텅 비인 느낌으로 바람만 불어도 어디론지 떠나고 싶은 바람기운은 남아있다. 바람이 불어 울고 싶은 게 아니다.

오늘은 오늘뿐이므로 오늘의 주인공으로 즐겁게, 고맙게, 감사하게 살고 있지만 비를 맞으며 낙엽을 보며 눈길을 걸으며 울고 싶은 떨림이 있다.

봄날은 저만치 까마득히 사라져 전설처럼 느껴지고 해질녘 산 그림자와 하나돼 삶의 마감날짜를 열 손가락 펴세고 있다. 글쎄, 만남은 설렘이지만 떠남의 미학(美學)은 논리적 분석을 거부한다.

가볍게 죽음을 앞당겨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고 경험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 단 한 줄의 느낌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고승(高僧)들이 죽음 전에 남긴다는 임종게(臨終偈)도 분주하고 번거로워 나의 경우 당연이 생략할 터이다. '떠나는 날'의 시(詩)에서 '안녕이란 말을 차마 반쯤 남기며'라고 끝맺음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죽음 앞에서는 사치스런 어설픈 수작일 터.

곱게 늙어감은 또 하나의 수행이다. 주책부림 없이 망령듦 없이 받아들임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무리. 마무리를 개운하게 누구에게나 짐이 되지 않게 생명의 아름다운 마감을 연습하고 있다.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거 참으로 별게 아니지만 이별은 죽음보다도 더욱 슬플 수 있고 사랑은 생명보다도 더욱 깊을 수도 있을 터이다. 그리움은 화두돼 뼈에 박히고 지난날은 사리보다도 더욱 빛날 수도 있을 터이다. 산다는 것이 글쎄 맨숭맨숭 하여 그렇고 그럴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긴 하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은 천지개벽하듯 또 하나의 열린 세계를 펼쳐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살아있음은 또 하나의 기적이자 축복이기 때문이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음은 선택된 기쁨의 아름다운 느낌표이다. 살아 있음 그 하나로도 경이로운 기적이자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보라. 환자의 팔 다리가 움직이고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며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고 마시며 똥, 오줌을 배설할 수 있으면 또 하나의 기적이자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자 축복
긍정적 착각으로 마음 열고 살아라

볼 수 있으면 눈이 정상이요 들을 수 있으면 귀가 정상이다. 냄새 맡을 수 있으면 코가 정상이요 씹고 말할 수 있으면 입이 정상이다. 웃을 수 있으면 생각이 정상이요 눈물방울 흘릴 수 있으면 감정이 정상이다. 그리운 자가 있으면 기억이 정상이요 화 낼 수 있다면 육체가 정상으로 체크될 터이다. 세상은 커다란 병원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감사할 일이 널려 있기 마련이다. 움직이는 것은 모두 아름다운 드러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청평사에 머물던 전전생(前前生)의 젊은이 향봉은 "세상 살아가는 거 뭐 별게 아니 올시다"며 푸념조로 타령을 늘어놨지만 환생(還生)하여 사자암에 머무는 늙은이 향봉은 "세상 살아가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자 축복"이라며 너스레를 떨고 있다. 자, 선택은 그대 몫이다. 부정적인 착각에서 긍정적인 착각으로 마음 열고 살 일이다.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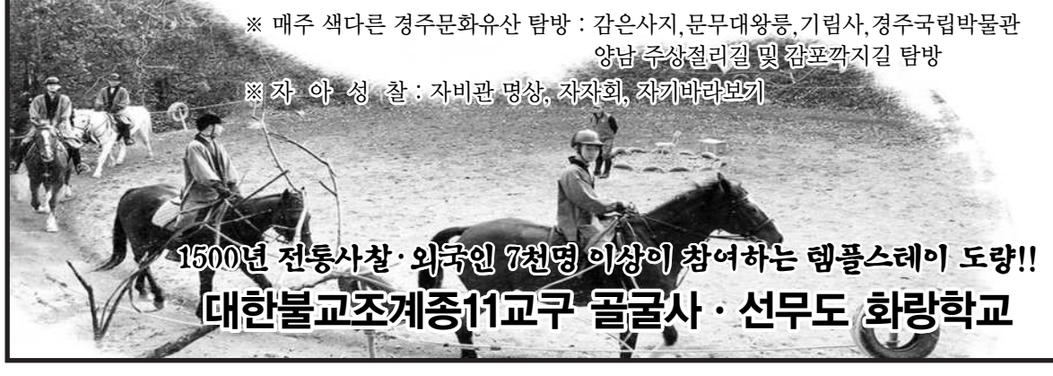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0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언 제 2016년 12월 25일 ~ 2017년 1월 14일
모집인원 60명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방한모, 방한장갑,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수련회비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예약 문의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진행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 아 성 찰 : 자비관 명상, 자자회, 자기바라보기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청정한 마음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

禪과 현대미술
㉔ 케네스 놀란드 (Kenneth Noland)


케네스 놀란드의 작품 〈Via Blues〉는 마음을 관조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Untitled〉는 마음을 관조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원형작품 중 하나이다.

기하학적인 형태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위적인 의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형들은 색채와 함께 새로운 변화와 이미지를 보여주며 마음을 움직인다.

케네스 놀란드(Kenneth Noland, 1924~2010, 미국)는 초기 추상표현주의에서 사용하던 방식들에서 새로운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등장시킨다. 잭슨 폴록, 드 쿠닝 등 초기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주로 표현방식으로 사용했던 행위적인 액션들에서 벗어나 명상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 추상표현의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인 놀란드는 기하하적인 도형과 색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명상을 통하여 새로운 정신성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다. 당시 미국 화단에 붐을 이루던 선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진 그는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마음의 변화와 도형, 색채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시각적인 자극에 의하여 대상이나 색채를 인식하는가? 아니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이나 색채가 인식되는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작품에 도형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그가 명상을 통하여 체험한 것은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일상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도형, 기호, 색채는 모두가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다양한 도형이나 기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형이나 기호, 색채는 현재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마음을 인지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에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 알아차림은 곧 사라지고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무의식속에서 자신만의 기호, 도형, 색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놀란드는 이러한 인식들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듯이 자신만의 도형, 색채를 통하여 마음을 관하는 방법들을 관객들에게 제시하게 된다.

〈Untitled, 1960〉은 마치 화살의 과녁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관조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원형작품 중 하나이다. 서양에 선불교가 확산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 작품처럼 벽에 작은 원, 점 등을 붙여놓고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망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도구들을 그는 자신의 작품으로 확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집중해서 이 작품을 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보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현재의 마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빨간색의 작은 원형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가장 큰 원을 형성하고 있는 파란색의 비정형적인 원형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관점이 아닌 현재 자신이 어디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집착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본능적인 강한 욕구나 욕망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의식중에 내면에 감추어져있는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둘이 복합적으로 현재의 결핍이나 치유를 심리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형과 색채 통해 이미지 표현
명상 통해 새로운 정신성 관심
"집중해서 작품을 봐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게 자신의 마음"

색채심리학에서 색은 마음의 상처와 치유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한다. 즉, 다시 말해 현재 내가 빨간색에 강한 느낌을 받는다면 이 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동시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하는 강한 의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흐름을 관조하는 명상을 통하여 치유와 함께 결핍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예술가들 역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에는 벽에 작은 원형을 걸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관하는 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독일에 유학할 당시 독일 스님이 운영하는 선방에서 수행을 하였던 적이 있는데 수행자 모두가 벽을 보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편한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놓고 관조하는 훈련을 하였던 기억이 난다. 시작하면 이렇게 2시간을 하고 30분정도 선방을 걸으며 보행 선을 하였다. 이후 모두가 차를 마시며 자신이 점을 보며 체험한 마음의 변화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체험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Via Blues, 1967〉은 마음을 관조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각각의 색면들은 수평선을 그으며 끝없이 이어진다.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수행자와 예술가가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한번 길에 들어서면 앞으로 가면 된다. 하지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길만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길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변수들은 그 길을 가는데 중요한 도반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확신이 있어서 인 것이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답은 자신만이 알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연과 인과에 의하여 일어나고 사라진다. 자신의 인연과 인과를 알고 싶다면 지금 현재의 자신을 보면 된다.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자신이 행한 것이다.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수용하든 하지 않든 자연의 이치는 그 굴레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놀란드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와 변화의 관점을 잘 이해하였다고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작품이 표현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다. 수평선은 만날 수 없다. 만날 인연이 없는 것이고 만날 인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서양에 선불교가 전해지면서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었다. 즉, 질서에서 벗어나는 무질서,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자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유방종을 하는 행위들과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불교의 연기론과 무(無), 공(空)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며,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허무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당시에 커다란 표피적 문화 흐름이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중심으로 모든 기존의 가치들을 부정하는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하기 시작하면서이다. 명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신적 자유로움이 외형적인 자유로움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놀란드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바로 이러한 서양의 시대적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질서와 방종에서는 결코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관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색채나 도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마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센서가 작동을 해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는 다양한 자극과 스스로의 정화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며 청정한 상태에서 외부 변화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청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이나 무의 상태가 아닌 적적성성(寂寂惺惺)한 상태를 말하며 비어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며 없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마음을 떠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상을 보거나 색채를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본다는 것이 아닌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즉, 센서가 작동을 하여 있는 그대로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사라진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때에는 다시 그 마음 그대로의 상태이다.

놀란드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알 수 가 없다. 하지만 많은 시간 스스로 명상을 하며 청정한 상태를 찾아가고자 한 것은 그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추상미술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이 인지하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즉,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색채나 도형의 친숙도가 아닌 인식의 친밀함, 학습된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순간 번쩍이는 스파크가 일어나듯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본래의 청정한 상태에서 보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도형이나 색채의 특성이 아닌 본성에서 감지하는 것이다.

서양미술에서 선과 불교가 많은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추상미술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는 이처럼 그러한 작품을 알아보는 선지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현대미술은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관점들을 넘어선 청정한 상태의 예술을 추구하는 커다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놀란드의 역할도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끝〉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불상, 법당시공 및 철거(퇴불), 개금, 단청, 풍수 인테리어 등

좋은 인연으로 성실하게 마음에 꼭 드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미텍 대표 윤승민 두손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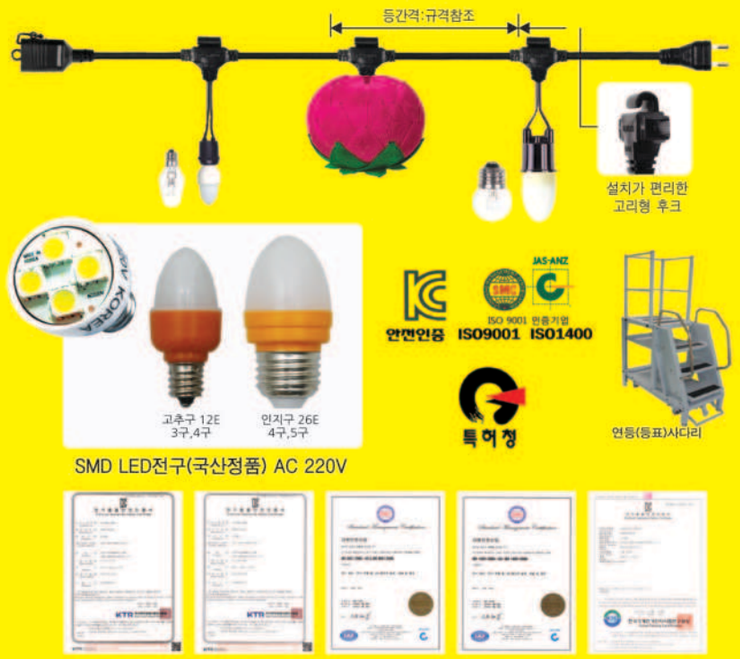


도금 소불 6치 7치 분당 15,000 ~ 21,000원

■ 전시장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167번지
■ 공 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3층 308호 (신길동, 정우벤쳐타운 2)
■ 연락처 : 010-8523-7718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國博 조선실 · 대한제국실 새 단장

16일 재개관… 대동여지도 · 의궤 등 542점 전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2월 16일 상설전시실 조선실과 대한제국실을 새롭게 단장해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했다. 지난해 고려실 개편에 이어 중근세관 개편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조선과 대한제국 역사의 주요 사건을 시기순으로 정리하고 전시품이 지니는 역사적 맥락과 기능을 상세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선 건국과 유교 이념의 전파, 17세기 전란 이후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대동법(大同法)의 시행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1897년 자주 독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제국의 선포와 근대화 노력이라는 주요 변화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보여주는 공간과 조선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양상을 제시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대표 소장품인 활자 · 의궤 · 청화백자 · 마패 · 동국대지도 · 대동여지도를 관람객이 보다 쉽게 찾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배치에 신경을 썼다.

높이 2.7m에 이르는 희귀한 대형 지도인 '동국대지도'와 여러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전시할 수 있는 대형 진열장을 새로 제작해 지도 규모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새로운 진열장에 배치돼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과 대한제국기는 현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이므로 당시 사람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택과 의지가 오늘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조선실 · 대한제국실 개편으로 사회 변화의 원인과 영향 관계를 해석하고, 현재의 사회를 돌이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박물관 소장품 정보 공개한다

박물관 소장품 정보 검색 'E-뮤지엄' 전면 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12월부터 국 · 공 · 사립박물관 소장품 정보와 이미지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과 함께 '이-뮤지엄 사이트(emuseum.go.kr)'에서 제공한다.

'이-뮤지엄'은 국가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물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개설됐으며, 리뉴얼을 통해 전면 개편했다.

새로운 이-뮤지엄 사이트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기본으로 소장기관, 지정문화재, 국적, 시대, 재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목적만 입력하면 검색한 자료의 이미지를 내려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2015년~2016년 추진된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성과로서, 112개 박물관 29만 건의 소장품 정보와 70만 장의 이미지이다. 이 가운데에는 A4크기의 도록 인쇄가 가능한 600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12만 3천여 장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2020년까지 전국 700여 박물관의 소장품 50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더 많은 정보들이 이-뮤지엄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고해상도 이미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박물관 소장 자료들이 학술연구, 교육, 출판, 인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그리스 비극 '엘렉트라', 불교를 만나다

극단 춘추, 25일까지 '엘렉트라 인 서울' 공연

불자 극작가 김영무 각본 집필
윤회를 비극의 배경적 장치로
정욱 등 베테랑 배우 호연 '기대'
"희랍비극의 한국화 시리즈 탄생"

소포클레스(Sophocles)는 그리스 신화의 엘렉트라를 희곡으로 집필했다. 기원전 410년 경 만들어진 소포클레스 희곡 〈엘렉트라〉에서 엘렉트라는 아버지 아가멤논 왕을 살해한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극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소포클레스는 엘렉트라가 자신의 가혹한 운명과 맞서 싸우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친부를 살해한 친모를 죽여 정의를 지키려는 한 인간의 내면적 고뇌를 통찰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리스 유명 비극 '엘렉트라'를 불교와 한국적 정서로 풀어낸 연극이 공연된다. 극단 춘추는 오는 12월 25일까지 서울 대학호 아트홀마리카2관에서 '엘렉트라 인 서울'을 공연한다.

'엘렉트라 인 서울'의 극작은 불자인 김영무 극작가가 맡았다. 김 작가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엘렉트라를 오늘날의 서울로 데려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으로 작품 집필을 시작했다.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 사상〉을 저술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던 그는 그리스 비극 구조의 배경에 불교의 윤회 사상을 대입해 극을 풀어냈다.

김 작가는 "그리스 비극의 미학 구조는 신의 짓궂은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충돌함인데, 오늘날 서울에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을 환경적 배경으로 대입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서울 근교 세업사라는 사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업을 씻는다는 뜻을 지닌 '세업사'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 그리고 또 다른 갈등과 복수, 다음 생에 대한 기대의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주인공 애라는 15년 전 정부와 공모해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어머니에 대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 애라는 세업사에서 스님이 된 오빠 우공 스님을 만나게 되고, 우공 스님은 누이에게 원한을 버리라고 조언한다. 어머니를 만나게 된 애라는 복수의 칼을 뽑아 들지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번 연극에 대해 김혜주 동서울대 연기예술과 교수는 "엘렉트라를 그대로 옮겨 놓은 주인공 애라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정부를 살해함으로써 용서라는 대장정의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불교의 업 · 윤회사상을 풀어나감에 있어, 한 종교의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중용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간 작품"이라고 평했다.

'엘렉트라 인 서울'은 탄탄한 연기력의 정욱(무법 스님 역), 송수영(박기수 역), 민경옥(류여사 역) 등 중견배우와 이윤희(애라 역), 김세홍(우공 스님 역), 박미정(애리 역) 등 젊은 배우들이 신선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더 눈길을 끈다.

한편, 연극 '엘렉트라 인 서울'은 평일 7시30분, 토요일 4 · 7시, 일요일 4시에 공연이 진행된다. 일반 25,000원, 학생 15,000원. 문의 (010)3735-2802

신성민 기자



곡선으로 그려낸 한국 山水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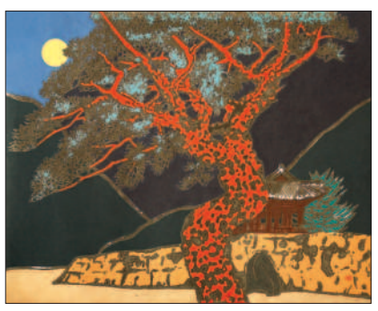
임무상 화백, 12월 27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초대전

산 · 소나무 · 달, 곡선美로 표현

임무상 화백은 한국적인 정서를 화두로 곡선미학을 화폭에 구현해 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그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임 화백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3층 개관을 기념하는 초대전 '곡선미의 찬가-산, 소나무, 달 그리고'를 개최한다.

임 화백은 자연을 관조하는 예술가이다. 미인도의 대가인 운정 김흥종 화백으로부터 사사한 임 화백은 1985년 중앙미술대전에 입선하며 국내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인도 등에서 22차례 개인전을 열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셀렉티브 아트 갤러리(Selective Art Gallery)의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임무상 화백의 작품 '조령교구정(鳥嶺交龜亭)'

임 화백의 화풍은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염료들을 그림의 재료로 사용하는 등 한국만의 색채를 진하게 나타낸다. 작품들은 힘과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표현력에 있어서 커다란 온화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곡선으로 표현된 산수들은 '한국적'이라는 정체성의 풍취로 화폭을 채워낸다.

이번 전시 작품에 대해 임 화백은 "오랫동안 많은 스케치를 통해 얻어진 풍광이나 형상들을 탐구하고 재해석해 탄생된 작품들"이라며 "하나의 테마나 어떤 유형의 방법이나 아류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움에 접근해 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곡선으로 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추구해 온 나의 조형언어로 다양하게 풀어 본 작업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경화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관장은 "임 화백은 한국화의 전통적 회화기법에서 일정부분 벗어나 있으면서도 절제돼 있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단순미는 우리에게 깊은 인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특히 임 화백의 금강산 그림들은 분단 60여년의 한국을 위한 통일 희망찬가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02)722-9969

신성민 기자

생명 · 평화 · 환경 주제로 하루헌, '밥 묵자' 展

선진 스님 기획… 6~18일 개최

인터넷 카페모임 '하루헌'을 운영하는 대구 보현암(주지 선진)는 카페 회원 중 예술작가 30여명과 함께 생명 · 평화 · 환경을 주제로 한 13번째 전시회 '밥 묵자'를 개최했다. 12월 6~18일 대구 범어도서관 갤러리서 열린 이 전시회는 설치미술 · 회화 · 조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주지 선진 스님은 이번 주제인 '밥'에 대해 "빈부격차가 심한 요즘, 공동체 의식을 되찾고자 '밥 묵자'란 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보현암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하루헌이 개최한 전시회 개막 모습.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2.14~2016.12.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6	불교를철학하다	이진경	한겨레출판
2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7	붓다아비담마(체계적으로배우는)	멤틴몬/김종수	불광출판사
3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허암	민족사	8	유마경강의(상)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4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9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용수	나무를심는사람들
5	니까야로읽는금강경	이중표	민족사	10	대방광불화엄경강설48(여래십신상해품)	여천무비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 ‘은유와 마음’ 수업 교과서

은유와 마음

명법 지음 | 불광 펴냄 | 1만 4천원



이 책은 ‘은유와 마음’ 프로그램의 밑바탕이 된 철학, 심리학, 불교, 인류학 이론을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더불어 12편의 실제 사례 이야기를 함께 담았는데, 독자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한 조각을 발견하고 이야기 속 주인공들과 함께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상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은유 속에서 밝혀진 ‘내가 모르던 나’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존재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바, 다시 말해 ‘나’라는 이야기에 따라 삶은 펼쳐진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때로 우리를 억압하고 삶에 그늘을 드리운다. 은유 이야기는 무의식 속에 억압된 절박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문제에 물들지 않은 우리 안의 힘을 회복시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나는 나를 넘어서 있다” 마음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다.

‘은유와 마음’ 첫 번째 수업 시간, 명법 스님〈사진 오른쪽〉이 참가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참가자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것이나 이야기한다. “음… 앉아 있는 새요” “가시가 돋은 선인장이 떠오릅니다” “저는 열매가 안 열리는 은행나무입니다” “내 인생은 잔고가 0원인 저금통장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새는 왜 앉아 있는지, 선인장에 돋은 가시가 싫은지 좋은지, 열매가 안 열리는 은행나무 마음은 어떤지, 잔고가 0원이어서 불행한지 홀가분한지… 등등. 스님이 묻고 참가자들이 답하면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문제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진다. 문득 떠오른 이미지서 촉발된 이야기가 자기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음을 참가자들이 뭉클하게 실감하는 사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참가자가 왜 그렇게 아픈지, 자기가 몰랐던 것들이 왜 지금 이야기로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밝혀질 때까지. 인생은 끝없는 이야기지만, 한 사건에는 시작과 결말이 있다.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끝이 난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문제는 해결된다. “놀랍게도 이야기에는 끝이 있다. 우리의 일상은 끝이 없지만 마음의 이야기는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종결된 사건들은 심리적으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지나간 과거가 된다.”

‘생의 감각’이 되살아나다

부분으로 쪼개진 마음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많은 생각들은 번뇌다. 생각과 일치하는 한 가지 관점에서만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 마음을 쪼개기 때문이다.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1평짜리 독방에 갇힌 듯 세상과 단절된다.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각하지 못해 삶의 풍요로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삶은 회색빛으로 물들고 우리에게선 생기가 메말라간다.

은유와 마음 수업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상을 경계하느라 잔뜩 움츠리고, 시야가 좁아져 있다. 때론 자신감과 긍정성이 과도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역시 생각



의 감옥에 갇혀 있기는 매한가지다. 그런 그들이, 6회에 걸친 수업에서 은유를 통해 자기를 말과 글로 표현하면서 생각의 감옥에서 조금씩 빠져나온다. “감각의 주체로 거듭나는 여정”인 수업을 모두 마치고 나면 거의 모두가 ‘차분한 긍정’ 상태를 보인다. 확 넓어진 눈으로 말하고, 듣고, 글을 쓰고, 세상을 느낀다. 한마디로 ‘생의 감각’이 뚜렷하게 되살아난다.

자신을 멈춰버린 시계에 비유한 어느 워커홀릭이었던 사람은, 탈진되어 일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며 절망했다. 스님이 그에게 말했다. “시계는 멈춰 있어도 하루에 두 번 시간을 맞힙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살아 있는 거지요.” 이 말에 번쩍 인식이 확장된 그는, 이후 수업에서 은유의 전환이 일어나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걸 받아들였다. 수업이 끝나고 7개월 후, 다시 수업에 참가한 그는 이제 쉴 줄 아는 느티나무가 되어 있었다. 나무는 행복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늘 아래에서 놀다가 돌아간다. 그들이 떠나도 이젠 섭섭하지 않다. 밤이 되면 홀로 남아 휴식을 즐긴다. 방해받지 않고 잠을 푹 자려고 안내판을 세워두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오세요.”

나는 나를 넘어서 있다

삶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느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 여기고 인생이 거기서 끝날 것처럼 미리 무릎을 꿇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그건 장벽이 아니라 조금 조심만 하면 되는 낮은 문턱이기 쉽다. 당장엔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연결 속에서 삶은 생각 너머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고 그 정의대로 살아가곤 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꿈이 있고,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고… 등등 ‘나’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정의된 ‘내’가 나의 ‘전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나’는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 너머의 무수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다. “요컨대 나는 나를 넘어서 있다. 그것은 복잡하고 미묘해서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일상적 삶의 차원을 넘어서지만 동시에 일상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 ‘나’는 어떤 특정한 ‘나’로 정의되기에는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그것을 어떤 고정된 것, 다시 말해 정체성으로 정의하는 관점을 바꾸어 본다면 ‘나’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생은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은 사실 습관과 관계의 패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패턴은 우리가 삶에 부여하는 의미, 다시 말해 우리가 써나가고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된다. 따라서 그 이야기가 달라지면 ‘내’가 바뀌고 ‘삶’이 달라진다. 삶은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다.

은유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삶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은유를 이용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순간 우리는 자기가 곧 이야기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이는 먼저, 이야기를 쓰는 행위가 자기와의 거리를 두는 시도이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은유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두루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은유를 통해 내 이야기를 쓰면 ‘나’는 은유 뒤로 숨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오는 안전감 덕분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숨김없이 드러내게 된다. 더군다나 은유는 우리의 무의식과 맞닿아 있어서 의식 수준의 것들뿐 아니라 무의식 수준에 존재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드러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처 몰랐던 절반의 진실, 억눌려 있던 무의식의 목소리, 숨겨져 있던 반쪽의 자기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은유를 읽고 말한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유는 우리에게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제공한다. 은유를 통해 개념과 사고가 재배열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바뀐다.” 접근할 수 없었던 것, 즉 무의식에 접근하여 그 이야기를 쓰고 새롭게 창조해내는 은유의 힘. 바로 이 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삶을 확장하고 새롭게 쓰게 된다. ‘은유와 마음’ 수업은 은유의 바로 이런 기능에 주목해 고안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독자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본 아비담마 연구



아비담마연구
냐나포티카 테라 지음
김한상 역
씨아이알 펴냄
2만원

부처님 입적 후 몇 세기 동안 승가가 벌인 위대한 사업들 가운데 하나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그림을 현상하는 것이었다. 승가가 직면한 도전은 바로 붓다가 상이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설한 다양한 가르침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취합한 것이었다. 옛 불교 스승들의 사상과 경험에 따라 상이한 불교 부파들에서 다소 상이한 체계들이 생겨났다. 붓다의 가르침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이 시도는 아비담마라고 불렸다.

기원전까지 적어도 두 주요 아비담마 체계들이 생겨났다. 북인도서 지배적인 한 체계는 설일체유부서 생겨났다. 이 체계는 티베트와 동아시아의 불교인들이 지금도 학습한 〈아비달마구사론〉에 전해지는 버전으로 마침내 요약됐다. 또 다른 체계는 지금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성행하는 남전, 즉 테라와다의 체계였다. 이는 여전히 살아 있는 불교 전통의 지주들의 하나로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교리의 분석과 명상을 선도한다.

냐나포니카 테라의 〈아비담마 연구〉는 남전의 문헌들을 참고해 아비담마의 토대들을 탐구하려는 대담하고 뛰어난 시도이다. 저자는 아비담마의 근본 원리들을 탐구하는 아비담마 철학에 대한 두 일반 논문으로 시작한다.

그다음 저자는 첫 번째 아비담마 논서인 〈담마상가니〉의 첫 번째 유형의 마음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시작한다. 이는 예리하고 독창적인 통찰력으로 주목된다. 냐나포니카 테라는 아비담마의 옛 해석들을 그저 반복하지 않고, 옛 주석가들이 거의 손대지 않던 분야들을 파고드는 데 그의 명쾌한 지성을 발휘한다.

이제 남전과 북전이라는 두 주요 불교전승의 흐름이 마침내 만났기 때문에, 단순히 학회나 기구 수준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법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깊고 상세히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가 성공키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불교인들이 테라와다 아비담마 체계를 공부해야만 한다. 한국서 이 노력을 촉진하는 데, 냐나포니카 테라의 〈아비담마 연구〉가 소중한 기여를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천의무봉 天衣無縫 명품 우담화
천의-재단하고 봉제하지 않은 원래부터 그대로 좋은 천상의 옷
마음까지 따듯한 프리미엄 목도리
폴리캐시미어 100%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디자인 특허등록 (제 30-0873347호)
튜브리스 에어 컨트롤 기술 적용
내부 보온공기층의 2중 원통형 설계
정전기 방지
비교할수 없는 부드러움
4중 보온효과
원사부터 품질관리까지 100% 국내산 개발
특수원사 사용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꽃 우담화
폭 x 길이 : 15x180~200cm
22x48cm
우담화1호 세트
목도리 /장갑/양말
₩150,000
판매처모집 / 단체주문 / 마크 자수 가능
불교용품 제조전문 우담화
053) 573-3119 010-3299-7190

희소식
뱃살로 고민하십니까?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두통으로 고통받습니까?
뱃살 → 일주일 무료치료
효과 없으면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두통으로 1년에 몇 번씩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은 빙의에 접신되어 시달리는 것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2분내로 고쳐드립니다. 단, 몸 자체에서 일어난 두통은 침으로 무료치료 해드립니다.
소납은 마음 먹으면 영의세계인 사차원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수행을 40여년간 노력하여 완공한 결과 하늘세계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능력의 도를 이루었고 우연히 달마대사를 가르치신 영적 스승인 사부님을 만나게 되어 특이한 신통 묘용을 전수 받았기에 모든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원칙과 진리의 정법 도량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을 수 있는 도의 영적제자가 되고 싶은 분은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절대로 사이비가 아닙니다)
청주본산 청 심 사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83-4 Tel. 043)252-6771
서울법당 주 연 정 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3-41 Tel. 02)3392-2489
상담전화 010-3176-345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상하이 古代史 '열쇠' 불탑 속 유물 화제

사리구슬 · 동전 등 전문가 '고대 허브' 짐작

칭룽 고대 불탑 저장고서 佛寶 · 동전 등 다수 발견 학계 "과거 무역허브 증거"



천 지에 발굴책임자는 12월 8일 대중에 칭룽 불탑 발굴성과를 보고하고 "상하이는 1,000년 전부터 해양 교역의 허브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China Daily



전문가들은 발굴 유물 중 불보 '구슬사리'를 가장 비중 있게 소개했다. 해당 유물은 불교 사리함 양식과 제식을 위한 귀중한 연구자료로도 각광받는다.

지난해 발굴된 상하이 '칭룽 고대 유적' 내 롱핑사(朗屛寺) 불탑서 불보(佛寶) · 동전 · 다기(茶器) 등 유물이 발견돼 고고학계가 흥분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물이 "상하이가 이미 1,000여 년 전부터 '해양 허브'였음을 증명할 자료"라고 내다봤다.

영문 일간지 'Shanghai Daily'는 12월 9일(현지시간) "2015년부터 진행된 롱핑사 불탑 발굴 결과, 불탑 지하층 저장고서 황금와불상 · 아쇼카 왕정기 소(小)불탑 · 동전 수만 개 등 발견됐다"며 "전문가들은 12월 8일 대중에게 유물을 공개하고, 고대 상하이의 번성했던 상업 · 불교 · 건축문화의 증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유물 공개 현장서 발굴책임자 천 지에 상하이 박물관 소속 고고학자는 "저장고는 넓이 1.8㎡ · 높이 1.4m 크기로 내부엔 중국 한무제(기원전 141~87) 당시 동전인 '오수전'을 비롯해 당 · 송 시대 동전 수만 개, 차주전자 · 찻잔 · 차항아리 등 다기, 청동거울, 은거북, 은수저 등이 빼곡 들어있었다. 특히 황금 와불상 · 아쇼카 대왕불탑 2점 · 수정구슬 사리 등 귀중한 불보(佛寶)들이 많았다"며 "이로써 고대 상하이 지역이 해양 교류의 허브로서 상업과 불교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불교 유물인 수정구슬 3개와 사리함를 "가장 눈여겨 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사리용기의 기원은 인도의 '피푸라하와탑'이지만 용기의 형태와 재료는 중국에서 다양하게 발전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리함 발전양상 연구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천 지에 책임자는 "둥근 구슬은 대승불교서 부처님 사리신앙의 상징이다. 롱핑사 구슬사리는 청동병으로 봉합된 후 나무 · 철 · 은 · 금 4개 상자에 담겨 다중 잠금 처리됐다"며 "후속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리함 제작시기와 당시 불교제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롱핑사 불탑은 총 규모 7개 층 · 50m 높이로 상하이 발굴사상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해당 발굴은 2010년부터 상하이 박물관이 주도한 칭룽 일대 유적조사의 가장 최근 성과로, 학자들은 이 지역이 "정교한 강줄기 네트워크와 바다로 닿는 교역지 덕분에 당 · 송 왕조 동안 양쯔강 남부서 부촌을 형성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사찰이 사회문제 토론의 장으로

일본 서정사, 지역주민-전문가 토론 공간 제공



서정사서 각종 현안을 토론하고 있다.

법회 공간이 아닌, 각종 사회현안을 토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일본의 '산케이(產經) 신문'은 12월 9일자 기사를 통해 자살방지 대책, 성소수자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관해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서정사(西正寺)를 소개했다.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시(尼崎市)에 있는 정토진종혼간지파(淨土眞宗本願寺派)의 서정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역 전문가들을 초빙,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정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불상이 안치된 서정사 본당에는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강연을 열고 토론회를 갖는다. 약 30명 인원이 참가하며 전문가의 강연이 끝난 뒤에는 4~5명씩 모여 토론회를 벌인다. 참가자 대부분은 사찰 신도가 아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고, 불교행사가 대부분이었던 사찰은 주민들의 문제해결을 논의하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사찰에서 법회가 아니라 왜 사회문제를 다루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 절의 부주지인 나카히라 료고(中平了悟 · 39) 스님은 "사회를 배우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지역에는 없었다. 사람들이 다양한 '물음'을 갖고 방문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스님은 삶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을 전문가들을 연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사찰을 지역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에 처음 참여한 대학생 나미야마 요시미(浪山喜美 · 22) 씨는 "대학 강의와 달라 신선하다.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 할 때의 어려움도 알게 돼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성원 객원기자

명상 안 하는 정토진종 사찰서 명상클래스를?

美 일본 정토진종 사찰, 신도 수 늘리려 티베트 · 선불교 차용



19세기 미국으로 이민한 일본인들이 세운 불교사찰 BCSF가 최근 교회의 입식 예법과 명상 클래스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사진출처=KALW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본인 타운에 있는 일본인 사찰이 급감하는 신도를 늘리기 위해 교회처럼 입식 예불을 보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라디오방송 'KALW'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불교사원(Buddhist Church of San Fransisco, 이하 BCSF)이 줄어드는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 교회의 입식 예법과 명상 클래스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CSF는 19세기 미국으로 이민한 일본인들이 세운 불교사찰이다. 일본불교 종파의 하나인 정토진종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승려가 결혼과 육식을 해도 되는 등 출가교단보다는 비승비속(非僧非俗)을 지향하는 종파다.

메이지 유신 후 미국으로 건너간 정토진종 신자들은 그 어떤 일본인들보다도 프로테스탄트(로마 가톨릭서 분리된 신교도)적인 문화를 쉽게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BCSF도 불교사찰이지만 교회처럼 입식으로 예불을 보는 등 기독교적 색채를 띠는 게 특징이다.

일본에는 정토진종을 따르는 신자들이 매우 많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세기 미국으로 이민온 일본인들은 대부분 노동자로 일하면서 인종차별을 당하기 일쑤였다. 당시 그들의 종교는 불교였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편견을 갖기에 좋았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정토진종 사찰은 매우 비공개적으로 일본과 미국인 불자들을 받았다.

1950년대만 해도 BCSF는 많은 신도들로 매우 분주한 사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신도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후손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샌프란시스코 일본인타운의 인구수 자체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토진종을 기반으로 하는 BCSF는 미국에서 더 잘 알려진 티베트 불교와 선불교의 방식을 차용해 명상클래스를 도입했다.

BCSF의 레오 조슬린 스님은 "BCSF는 불교지만 정토진종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명상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명상열풍의 대세를 따라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CSF 원로인 진 후카나가는 "BCSF와 정토진종을 샌프란시스코 시와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 작은 일본인 타운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회원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日불교단체, 불교 인재들에게 장학금 지급

한국인 유학생 김연지 씨 선발



장학금을 수여받은 유학생들. 왼쪽부터 김연지 씨(한국), 양루오웨이 씨(중국), 린펀먀오 스님(대만), 응우엔 퉁 쟝 스님(베트남).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 승려와 불교관계자들이 결성해 만든 불교그룹(회장 오타니 기하쿠, 진종불광사파 총장)이 불교학 전공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12월 10일 보도했다.

불교그룹은 9일 교토시(京都市) 시모교구(下京區)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불교를 배우는 유학생 4명에게 각각 장학금 25만 엔(약 250만 원)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은 불교그룹이 개최한 명승명가서예전에서 작품의 매각 대금 및 기부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4명의 유학생은 류코쿠(龍谷) 대학 박사과정의 한국인 유학생 김연지 씨를 비롯해 오타니(大谷) 대학 석사과정의 베트남 유학생 응우엔 퉁 쟝(NGUYEN TUONG GIANG) 스님, 하나조노(花園)대학원 린펀먀오(林芬妙) 스님, 불교대학 불교학과 학부과정 중국인 유학생 양루오웨이(楊若薇) 씨이다.

이중 한국인 유학생 김연지 씨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석사를 마친 후 일본 류코쿠 대학으로 유학, 이리사와 타카시(入澤崇) 교수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Borobudur)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불교 신자들과 뜻있는 스님들이 모여 결성된 불교 친목단체 불교그룹은 네팔 대지진 피해복구 및 네팔 초등학교 건설 지원, 일본 쿠마모토(熊本) 지진 피해복구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주성원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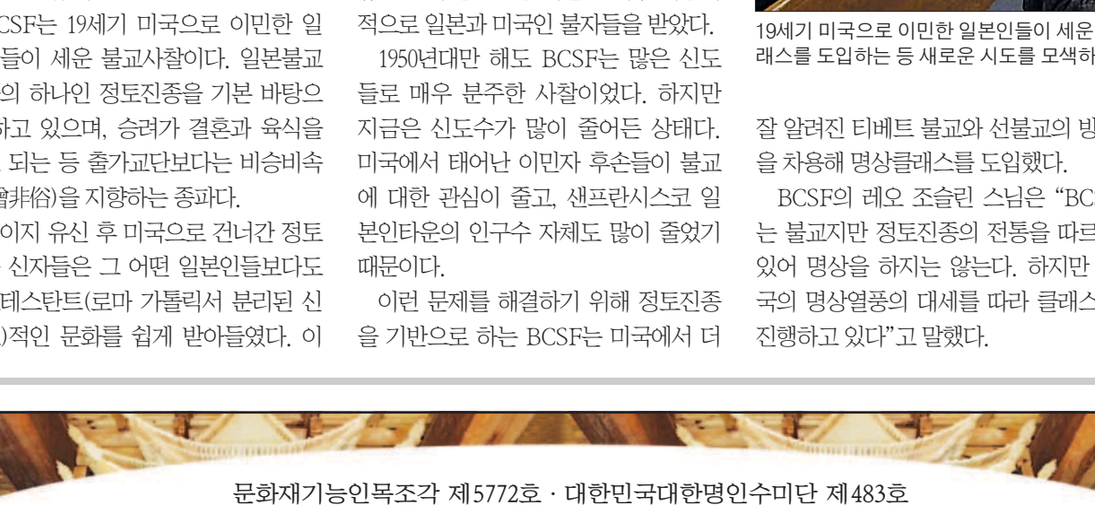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김수소

진액 하수오 추출액 10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054-842-0106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무료배송) 1개월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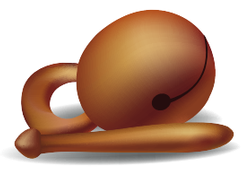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많은 재물을 가진 상인이 동행이 적으면 위험한 길을 피하듯,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 모든 악행을 피해야 된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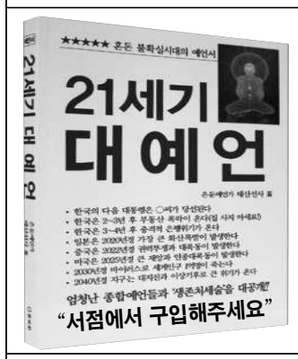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 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사찰 화분장 분재공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선설치 후지불
- 100평 기준 70기 유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www.화분장.kr
010-8458-3310
대표 율평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법당철거전문.개금.단청.
탱화.중.대형불상.공예
탱화 제작 수리
(사찰부동산중개전문)
구리시 아천동 산 4-1
010-9177-7842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 너 지 힐 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칡 판 매
스님이 직접 캔
칡을 판매합니다
경북 예천군 유천면 하천길 21-73
우체국 012-104-02-185640 김재홍
010-5585-0459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청암달마도를 저렴하게 친필로 그려드립니다. 10매 이상은 사찰명과 스님 법명을 넣어드립니다.
▸규격 : 40㎝×60㎝ 1매 6천원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비구스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010-5221-5893

부산 조계종 본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급여 상담 후 결정
– 퇴직금, 상여금 있음
010-9074-3915

천수작법 바라지 하실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010-2168-2800

문두루 기도비법?
원하는 것을 이루게되는 기도이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서울)
010-8721-2198
02)2234-219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新불교문화 전파를 위해 사찰 및 법당의 새로운 장엄물을 개발하였으나, 비용이 부족하여 향후 함께하실 사업 투자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께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인新불교문화사업단
010-7346-3020. 010-9390-1496

새해맞이 해넘이
258회 3000배 용맹정진
착한 불자들이여!
새해 소원성취 절로 절로 저절로 이루어지이다
■ 완벽한 표정, 자세, 동작, 호흡,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철철 넘치는 기쁨으로 무량공덕 쌓고
■ 칠판 지우듯이 병, 불행, 잡생각 싹싹 지워 블랙홀에 넣고
■ 코스믹 우주 사운드 만트라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염송 신나게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새해 소원성취 대원력으로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 영남 알프스 가지산 신불산 와불산의 찬란한 태양광명 해맞이를 따뜻한 법당에서 온전히 ~
일 시 :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9시 ~ 1/1 아침 6시
장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문 의 :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 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관광 사찰◀
- 위치 : 경남 통영 바닷가 근처 전망 최고
- 토지 : 1,600평
- 건물 : 목조법당 24여평, 요사채(최고 신형 주택2층) 건물 2동
- 양도 : 15억

▶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경남 하동
- 토지 : 6,600여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뒷산기암괴석,동백군락지,매실1톤수확,선방 최적지
- 양도 : 11억원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무안 전세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등 토지 10.000㎡
- 조용하며 30년정도된사찰.스님입적하시여 불가피임대함.
- 전세가액 : 1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
◎ 부지 : 80평 ◎ 부지 : 22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외전각
◎ 요사 : 60평 ◎ 요사 : 100평
◎ 양도 : 6억 8천 ◎ 양도 : 3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장유폭포 부근
- 토지: 14,78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건평 80여평, 법당 요사채 등
- 불모산 사찰, 정남향 최고 위치
- 양도 : 몽땅 6억 5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영주 사찰(급)안내

- 토지 7,000㎡
- 한옥기와 법당, 산신각, 요사채 등
- 주변산, 바위, 약수, 토목완료
- 영주 4K 고속도로 접근성 좋음
- 가액 : 4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에서 접수. 상담.안내가능합니다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역5분거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 3층 198㎡ (약 60평)
- 방1, 사무실, 법당, 주방 화장실2, 도시가스 ,바닥 난방
- 가액 : 보1000만 월99만 시설비1억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금정산 외국어대 뒷산
- 토지 : 600여평 점유, 창건 80년
- 건물 : 법당 10여평, 요사채(건축물대장)
- 산신기도 사찰, 해발 300m 동남향
- 양도 : 몽땅 2억 9천만원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중앙로 22, 2층 • 법당 50평
- 아미타삼존불, 약사삼존불, 지장보살,
- 신중, 산신, 용왕, 영가단, 각후불탱화
- 소불 108불 이상, 음향시설, 냉난방기 종, 조명 등 집기일체
- 방,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스님의 건강문제로 급 인계하려합니다. 기도스님 보살님 대환영(몸만오시면됨)
- 가액 : 보 800만원, 월 40만원,시설비 700만원

스님직통 010-3015-5875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3억 2천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257평
- 법당 : 2층 건물 2층법당 25평, 1층 30평.1층 대형방 2칸, 화장실, 샤워장, 해수관음 다보탑, 삼성각 신축
- 요사채 : 공양간, 창고9평, 화장실 2칸, 방2칸
- 전망 : 앞바다 300m 내려다 보임, 뒷산
- 가액 : 4억5천(은행1억5천 대출가능)

010-7169-987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향동 대로변
- 평수 : 3층건물 중 2층 38평
- 가액 : 보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집기일체 600만원 (절충가)

010-7314-87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257평
- 법당 : 2층건물 2층법당 25평, 1층 30평.1층 대형방2칸, 화장실, 샤워장, 해수관음 다보탑, 삼성각 신축
- 요사채 : 공양간, 창고9평, 화장실 2칸, 방2칸
- 전망 : 앞바다 300m 내려다 보임, 뒷산
- 가액 : 4억5천 (전,월세 가능)

010-7169-987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 대지 : 30평
- 1층 : 요사채
  2층 : 법당
- 가액 : 1억 4천만원

010-4137-2168

포교원 임대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건물 : 2층 건물중 2층 (옥상 사용 가능)
- 대도로변 위치 포교하기 좋은곳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됨

010-9908-8017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멋진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마산터미널 부근
- 3층 건물에 2층 약 40평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 300만, 월 30만 시설비 800만원

010-8548-8608
010-3637-2425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500만원

010-9902-3969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10-5050-6252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절터(급)안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4,500만원 (가격 절충)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만, 공부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2499-300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108소불, 주방, 욕실, 방1, 창고, 에어컨1, 냉장고1, 즉시법회가능, 주차1대
- 가액 : 보 1,000만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절충가능)

010-7583-123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자인면 율옥리
- 총평수 : 545평(자연녹지)
- 가액: 평당 20만원

010-6752-933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시내 중심가
- 1층 법당(약 25평) 2층 (방 3개)
- 가액 : 4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약간

010-7459-2977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부지 400평
- 목조법당 25평
-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田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양도) 6,000만원(전세)

010-5780-1415
033-762-2494

포교원 임대

- 위치 : 경남 마산 교방천 남길
- 2층 건물 2층 21평
- 생활 가능
- 가액 : 전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792-055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상가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청룡동 33-4 동산아파트 상가 범어사 90번 종점
- 용도: 사주카페, 불교용품, 소품갤러리
- 가액 : 전세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권리금 천만원

010-9394-1480

청정도량 대구 팔공산 자락

- 사찰부지 약1000(측량후) 혹은 2200평
- 꼭 필요하시신분께만 파격가!
- 전기,수도, 사찰 허가 필!
- 대구,칠곡,왜관,구미,군위, 안동,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
- 용도 : 사찰 외 다양
- 주변 환경: 최적(전원마을 조성등으로 개발 활발)

주인직 010-4512-0813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곳
- 30년 전통, 기와, 단청
- 면적 : 대지 850㎡
- 법당, 삼성각, 요사체
- 도로좋음,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40평, 법당, 요사채, 방3개
- 친견실, 공양간, 샤워화장실2개 밖에 남녀화장실, 산신각, 용왕 연못 등 시설일체 방문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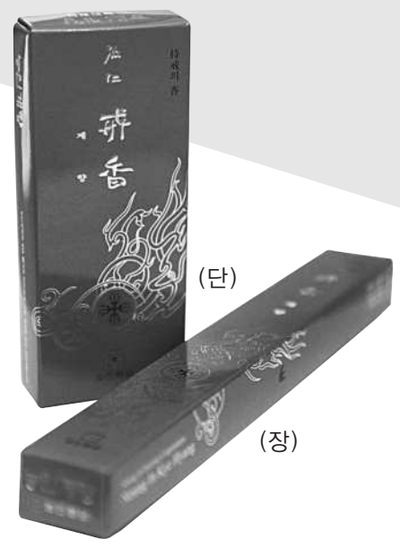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2〉 내면의 참자아는 어떻게 체험하는가?

소심한 당신에도 '무한창조력'이 있다

명상의 목적… 覺性

많은 경우, 처음으로 명상수련이 한 단계 성장하는 지점은 명상의 목적을 깊이 생각할 때다. 당신이 아무리 진지한 수행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명상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이제 막 명상여행을 시작한 당신에게도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순수의식, 빛과 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다. 인도 전통에서는 '내면의 자아', '참된 자아', '마음'이라고 한다. 이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나 '한마음'으로,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부를 것이다.

마치 화살을 겨누는 것처럼, 우리가 참자아라는 과녁을 향해 화살을 겨눌 때는 '내가 곧 참자아'임을 기억해야 한다. '참자아가 명상의 목적이요, 내가 곧 참자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면세계의 무수한 샛길에서 길을 잃는다.

참자아에 관한 비밀 중의 비밀은 '당신이 참자아'라는 것이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그대가 누구인지 보라. 참자아에 머물라"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깨달은 스승들이 전하는 가르침이다. 참자아의 경지를 체험하려면 당신 내면에 있는 '보는 자'와 '아는 자'를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내면의 아는 자를 만나는 것이 곧 자신의 본질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며 각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각성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생각과 감각이 서서히 물러나고, 고요하게 물결치는 순수의식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미세하게 지각되던 각성이 나중에는 거대하게 확장된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동양의 위대한 영적 전통에서는 우리 내면의 각성(기운)과 의식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떠받치는 각성(기운)의 축소판이라고 말한다. 이 각성을 〈우파니샤드〉에서는 브라흐만 Brahman, 즉 광대성廣大性이라한다. 카슈미르 시바파의 현자들은 '치티Chiti(우주의식)'라고 하고, 시바파의 한 철학자는 '한마음'이라고도 했다. 오늘날 물리학에서는 '양자장量子場', 불교에서는 '법신法身(진리의 몸)'이라고 한다. 물론 '신神'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각성은 광대하고 창조적인 지성이며, 본래의 확장된 형태로 만물을 아우르고 만물의 바탕을 이룬다. 명상은 마음을 꼬드기고 방해하는 지각과 생각을 놓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러내고 확장하는 것이다. 광대한 창조적 각성으로서 말이다. 그것은 순수한 빛이요, 황홀경이다. 평화와 권능의 바다요, 참자아다.

'참자아'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의 '아트만atman'을 옮긴 것으로, '그것 자체'라고도 한다. 아트만은 말(言)도 형상도 없는 것, 무엇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것, 감각의 세계에서 지각할 수 없고 직접적인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다. 아트만은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래서 현자들은 '아트만(그 자체)'이나 '타트tat(그것)'라고 했다. 인도의 베다 시대 현자들은 순수한 존재의 체험을 암시할 수 있는 직유와 은유, 심상 등의 비유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다.

참자아는 에고의 근원

순수각성과 참자아는 마음이라는 투박한 질료에서 찾을 수 있는 미묘한 본질이다. 참자아는 마음과 감각에 힘을 불어넣어 생각하고 지각하게 한다. 꼭두각시가 줄 당기는 사람을 인식할 수 없듯이, 보통의 마음은 참자아로 가는 길을 헤아릴 수 없다. 찾는 자가 바로 찾는 것(대상)이다. 선사들은 일상의 감각으로 참자아를 보려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흥미롭게 표현했다. 일본의 한 선사는 "그것은 눈(目)을 보는 눈(目)과 같다"고 했다.

현자들이 밝힌 사실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트만, 즉 참자아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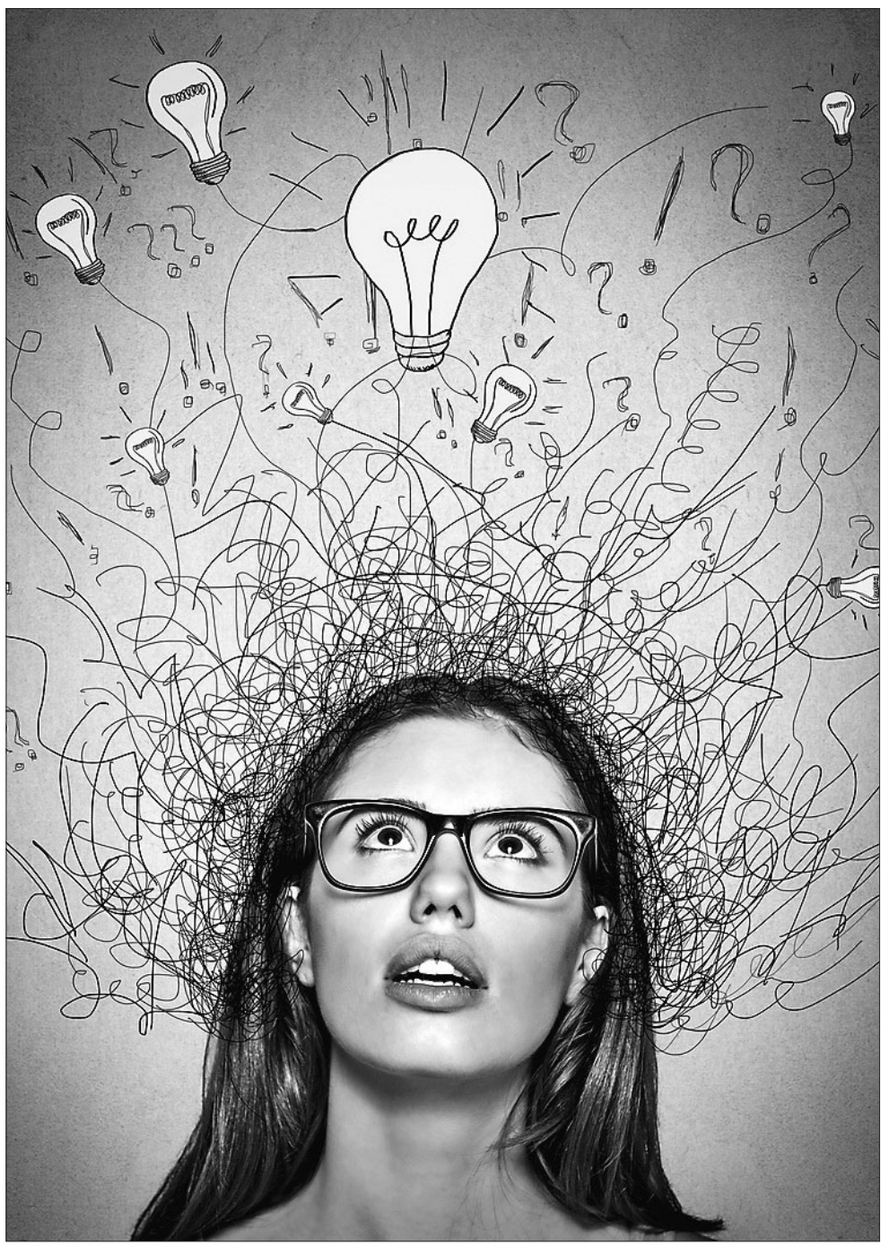
에고는 항상 비교 · 질투해
타인과 평등한 관계 방해,
명상으로 참자아 체험하면
광대한 '창조력' 모습 드러내

하는 개인의 에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참자아는 육체나 인격과 동일시하고, 경계를 만들어 한계를 짓고, 나와 너를 구분 짓는 '내'가 아닌 것이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참자아가 아니라 에고라는 것을 알려면 '에고는 언제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여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에고는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에고는 타인을 자신보다 높게 보거나 낮게 보고,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고, 친밀하게 보거나 적으로 본다. 한편 참자아는 그냥 존재한다. 모든 사물과 사람을 자신과 동등하게 본다.

에고와 참자아의 관계는 마치 전구와 전기의 관계와 비슷하다. 전구는 혼자서 빛을 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구는 일종의 용기일 뿐이다. 진정한 빛의 근원은 전구가 아니라 전구에 흐르는 전기다.

마찬가지로 에고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에고가 설정한 한계가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참자아다. 에고는 유익한 도구다. 만약 에고가 없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개별적 자아로 인식할 수 없다. 에고는 제한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한다. 몸이 어디에서 왔는지,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에고는 항상 나쁘다거나 없애버려야 할 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베단타학파의 현자들은 참자아에 세 가지 기본 속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사트sat, 영원히 존재하고 영구히 실재한다. 다음은 치트chit, 자신을 비롯한 만물을 자각한다. 마지막은 아난다ananda, 참된 이치를 깨닫고 황홀한 기쁨으로 넘쳐흐른다.

에고는 왔다가도 사라지고 다른 에고와의 관계에서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지만, 참자아는 어디로 가는 법이 없다. 참자아를 제외한 삶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뀐다. 인간의 육체는 자라서 늙는다. 삶의 환경도 바뀌고 성격도 변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흐르는 참자아는 변하지 않는다. 꿈을 기억하는 각성처럼 참자아는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안에도, 더 깊은 수면에 들어가도록 현존한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순수의식을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참자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참자아는 모든 생각의 근원이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의식의 질료에서 나와서 다시 같은 의식의 질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참자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한다.

참자아 체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참자아 체험은 순수 존재의 체험이고, 알아차림의 체험이다. 모든 대상은 물론 참자아까지도 관조하는 것이다. 둘째, 참자아 체험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지복의 체험이다. 하나의 성질이 유난히 강력하면 다른 성질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성질이 모두 드러나게 좀 더 깊이 체험하면 앞에서 언급한 성질들이 모두 참자아의 체험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참자아 만나는 다양한 순간들

문제는 우리가 참자아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다. 참자아를 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의 참자아 체험은 연속적이고, 참자아는 항상 현존하기 때문에 체험하는 각도와 방식도 다양하다. 참자아는 비범한 체험인 동시에 매우 가깝고 단순하며 친숙한 체험이다. 참자아는 빛이요, 지복이다. 각성은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에 참자아의 각성 안에 있으면 만물이 나의 일부처럼 여겨진다. 또한 참자아는 생각을 지켜보는 자와 동일시할 때 나타나는 평정이다. 미운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눈에서 보이는 의식이 곧 당신 안에서 체험하는 의식과 같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참자아를 체험한다. 꽃 한 송이를 보며 그 빛깔과 향기, 꽃잎의 곡선으로 드러나는 창조력을 감지할 때 참자아를 체험한다. 또는 '흐름' 속으로 몰입할 때, 즉 내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 행위 속으로 몰입할 때 참자아를 체험하기도 한다. 혹은 삶의 흐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간에 참자아를 체험하기도 한다.

내 제자가 보낸 편지 속에 그런 순간이 표현되어 있다.

"어제 숲 속을 산책하다가 낙엽이 지는 걸 봤어요. 떨어지는 한 장의 이파리에서 나 자신을 봤어요. 침묵 속에서 의식이 각성으로 바뀌었어요. 온 세상에 나와 그 잎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는데, 마치 거대한 공간에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의식이 확장되어 그 공간이 되었어요."

명상 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눈을 뜨고 의식이 확장되는 큰 체험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의식이 확장되는 극적인 체험, 시각적으로 느끼는 강력한 변화 등은 분명 신의 선물이다. 인위적으로 체험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카타 우파니샤드Katha Upanishad〉에서 "참자아는 저절로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표현한 것처럼 참자아의 체험은 때가 되면 은총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어떤 기법이나 수행, 열망을 동원해서 참자아가 그 광대성을 드러내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면이 있다. 비록 우리가 체험을 억지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도, 자연스럽게 체험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참자아와 명상수련, 내면의 샥티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관건이다. 명상수련을 고취하는 사랑의 힘을 존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힘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도하게 된다. 참자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참자아의 현존과 축복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도혜사
● 법 명 : 도혜 (전아영)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616-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비로소 알게 된 것

바닷가 암자에 오르니 멀리 바다가 보인다. 쏟아진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작은 섬 하나는 오래된 기억처럼 떠있다. 묵언을 한다한들 저 바다만 할까. 가부좌를 튼다한들 저 섬만 할까. 그렇게 보니 너와 나는 오래 된 것도 아니다. 너와 나는 하는 것도 아니다. 너와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도 아니다. 깊이를 보여주지 않는 바다와 온 종일 일어서지 않는 작은 섬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너와 나는 있는 것도 아니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내 이름은 이필구 ㊦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마음먹기 '나름'

주영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이필구. 난 네가 그 별명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 내가 실패한 뜀틀을 네가 가뿐하게 넘어서 질투심이 좀 난 것 같아."

필구는 주영이가 내민 손을 마주 잡았다. 화가 가라앉고 난 후 주영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사과하면 주영이가 받아줄지 걱정이었다. 주영이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마웠다.

"미안하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때린 건 정말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선생님이 필구와 주영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별명은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친구의 기분도 헤아려 줘야 해. 화가 났다고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잘못이고. 진심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너희들이 친구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필구는 부끄러웠다. 친구들이 서로 별명을 부르는 데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그냥 재미로 그렇게 부른다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났고, 화를 참지 못했다.

'이게 다 이름 때문이야.'

이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필구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과 우진이는 법회에 참석하고, 필구는 암자로 올라와 우송 스님을 뵈었다. 지난 겨울 동안거 들어가시기 전에 인사드렸으니 거의 1년 만에 뵙는 거였다. 그동안 스님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데, 표정은 점점 동자승처럼 변했다. 때로는 해맑았고, 때로는 짓궂었다.

묵향이 은은했다. 필구는 다소곳이 앉아서 먹을 갈았다. 앉은뱅이 탁자 위에 화선지를 펼쳐 놓고 시를 쓰신다기에 필구가 먹을 갈겠다고 나섰다.

"스님, 먹을 다 갈았습니다."

"아직 묽구나. 조금 더 갈아야겠다."

늦가을 공기가 차가운데 스님은 창을 활짝 열어놓고, 차를 홀짝이면서 멀리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먹물도 보시지 않고, 붓을 적신 것도 아닌데 먹물이 된지 묽은지 어떻게 아세요?"

"향으로 알지."

먹물은 핑계인지도 모른다. 시심은 스님의 시선을 따라 멀리 달아나 버린 것 같았다.

"저기 저 등성이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소나무가 보이느냐? 다른 소나무들은 다 남쪽을 향해 자라는데 저 소나무만 북쪽을 향하고 있지. 바람과 햇빛을 거슬러 있으니 밑동이 가늘고 삐뚤빼뚤 참 못난 소나무로 자랐어. 내가 머리를 깎던 날 은사 스님께서 저 소나무를 가리키며 우송(愚松)이라고 하셨단다. 그러시곤 내게 우송이라는 법명을 내리셨지. 어리석은 소나무라니, 나는 대번에 그 이름이 싫었단다. 너도 잘 알겠지만 내가 여간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 않으냐. 학교에 다닐 때는 1등을 놓친 법이 없었지."



그림 · 강병호

필구는 몰래 한숨을 쉬었다. 슬슬 스님의 주특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스님의 주특기는 딴죽 치기와 자기 자랑이었다. 필구의 이름을 바꿔 달랬더니 자신의 이름 얘기나 하시고, 어물쩍 자기 자랑으로 넘어갔다.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법명을 내리신 은사님의 뜻을 말이다. 어떤 때에는 역설인가 싶다가도 다시 생각해 보면 직설인 것 같기도 하고, 잘나도 너무 잘난 놈이라 하심을 배우라는 뜻인가 싶다가도 조롱인 것 같기도 하고. 절 마당 건너편에 저리 딱 버티고 서 있으니 좋든 싫든 매일 저 소나무를 볼 수밖에 없었단다. 어떤 날은 참 못나 보이고, 어떤 날은 초라해 보였지.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꽤 그럴싸해 보이고, 어떤 날은 구불구불한 줄기며 듬성듬성한 솔잎이 운치 있어 보였지."

"오늘은 어떠세요? 멋진가요? 아니면 추한가요?"

"멋지지도 추하지도 않단다. 그냥 소나무일 뿐이거든. 저기에 우송이라는 이름을 붙이니 어리석어 보이는 거지. 소나무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소나무를 바라보는 내 감정과 관점이 변했던 거지. 저 소나무에 잣나무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저것은 그냥 소나무일 뿐이란다. 잣나무라 부른다고 솔방울에서 잣이 열리지는 않는단다. 필구 너에게서는 돌돌돌 맑은 여울 소리가 들리지. 그건 너의 이름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너의 성품, 너의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지."

스님은 식어버린 찻물로 목을 축이고, 붓을 들었다. 붓을 들기까지는 하염없이 뜸을 들여도 붓을 들고 나면 거침이 없었다. 춤을 추듯 붓이 머물다 지나간 자리에는 힘차면서도 부드럽고, 유려하면서도 소박한 일곱 글자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소대청산 산역소(笑對靑山 山亦笑).

"푸른 산을 보며 웃었더니 산 또한 웃더라. 무상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내가 바쁘면 세상이 바쁘고, 내가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깨달음도 그렇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온 우주가 눈을 뜨고, 내가 눈을 감으면 온 우주가 눈을 감는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글이니 가져다가 붙여놓든 엿을 바꿔 먹든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수업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선생님은 별명 대신 원하는 직업으로 서로 불러주자고 하셨다. 마리아는 최검사가 되었다. 오궁은 닥터최가 되었다. 나무늘보는 정선생, 홍마담은 홍작가, 묵은지는 김화백, 원숭이는 최순경이 되었다. 찌질이는 이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과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진희의 꿈은 농부가 되는 것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시골에서 노인 분들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그 마을 최초의 여자 이장이 되겠다고 했다.

미래에 어떤 아이들은 별명이 직업이 되어있을 것이다. 또 어떤 아이들은 별명과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은 새로운 별명을 무척 좋아했다. 친구의 별명을 부르는 것도 자신의 별명을 듣는 것도 모두 신나고 재미있었다.

6단으로 올라간 뜀틀은 까마득하게 높아 보였다. 필구는 숨을 후후 몰아쉬며 발목을 빙글빙글 돌렸다. 그동안 멀쩡하게 걷고 뛰고 했는데 뜀틀 앞에 서니 삐끗한 발목이 다시 콕콕 쑤시는 것 같았다.

"이선수! 파이팅!"

아이들이 소리쳤다. 필구는 아이들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아이들이 웃었다. 푸른 산들이 웃었다. 필구는 힘차게 구르기 판을 굴렀다. 필구의 몸이 가볍게 날아올랐다. 〈끝〉





대행 스님

본래 우리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질문 누구나 그러겠지만 저도 역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고 성공해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버리라고 하시겠지만 자꾸 생각하고 지향해야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그 생각조차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날마다 목표를 생각하며 집중해야 하나요? 잠재의식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자를 옳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고요. 뭐가 옳은 걸까요? 진심으로 성공을 바란다면요. 아니면 이 모든 저의 생각이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는 허망한 건가요? 그래도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요.

답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력을 용도에 따라서 만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 그릇대로 씀씀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얼마 쓰고, 또 공장에서는 모터를 돌려야 되니까 얼마를 쓰고, 용량을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쓸 줄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무명 때문에 이 색(色)을 보고 너무도 취하는 겁니다. 사랑, 성취, 욕심, 착 이런 걸로 인해 하나서부터 열까지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을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묻겠죠. "어떻게 놓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는 데 놓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도 할 수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다 버리게 되면 뭘 가지고 삽니까?" 이러거든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요, 돈을 갖지 말랬나요? 다만 사람이 누구나가 다 육신이 자기 실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육신을 이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이요,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안다면 그 용량을 필요한 대로 아주 멋지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걸 해냈어도 내가 이걸 다 했다, 내가 해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놓고 또 딴 거를 합니다. 이 용량의 기계를 썼으면 그 스위치는 자동적으로 꺼야 합니다. 꺼집니다. 쉬니까. 딴 일을 하려면 그거를 또 돌립니다. 안방에서 불을 켜고 쓰다가 거기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을 끕니다. 끄고 이쪽으로 또 와서 불을 켜고서 또 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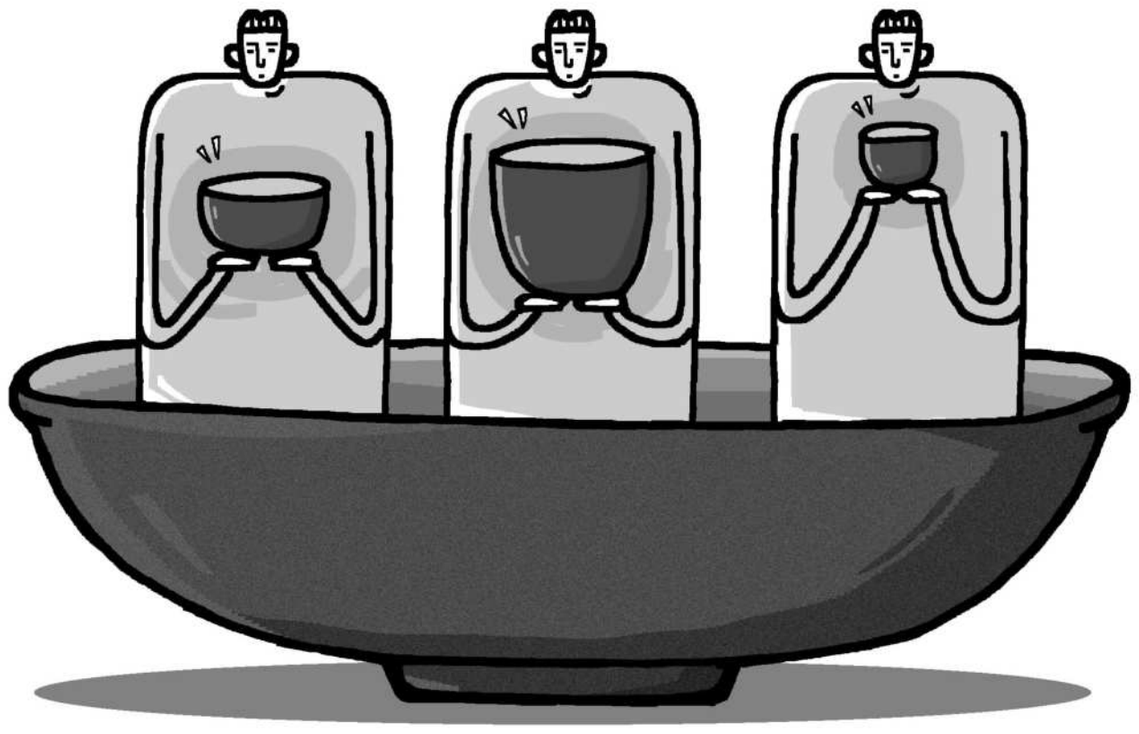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하나하나 놓고 가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놓고 갔는데도 불구해 놓고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 하고 나면 돌아서서는 딴 거 하고, 그것은 놓고 벌써 또 딴 거 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가야 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아까 씀씀이를 쓴다고 했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내 그릇대로의 용량을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지금 쓰고 있듯이. 자기의 살림대로, 차원대로, 생활 수준대로 씀씀이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성공을 꼭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도 주인공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일체를 모두 놓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고 몸은 부지런히 뛰어 보세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걸리지 않고 진정 자재로이 사방이 탁 터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질문 사람이 싫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또 나쁜 사람은 과연 얼마만큼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뻔히 보이기에 더욱 괴롭습니다. 차라리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부딪치고 나면 나름대로 안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면서 무시해도 마음이 쓰이기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내 업보다 하면서 내내 다스려 보려 하지만 이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용서나 이해 이런 것에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자기 내면의 주인공이 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와 같이 지금 차가 놓여 있는데 모든 차들은 운전수가 하지, 이 차가 운전수를 몰고 다니는 법은 없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면 운전수가 차 끌고 다니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 차가 고장이 나면 운전수가 고쳐서 끌고 다닙니다. 딴 사람이 해 주지 않습니다. 꼭 운전수가 차 고치는 데를 가든지 손수 고치든지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를 내가 끌고 다니는 거와 같은데, 그 주인공이란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진화되면서 끌고 온 장본인입니다. 운전수가 지금 현재만 운전수가 아니라, 과거도 운전수였고 지금 현재도 운전수고 미래도 운전수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수를 믿고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생각이 나면은 거기다가 맡기세요. 일하면서 불화증이 일어나도 '그것도 당신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거기 놓고요. '해 주세요' 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지. 여유가 있으면 앉아서도 생각나면 거기다 놓고, 물통을 가지고 가면서도 거기다 놓고, 일상생활에 어느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시시때때로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주고, 거기서만이 해결해 주고, 거기서만이 낫게 해 주고, 거기서만이 화목하게 한다' 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보셨죠. 큰 얼음덩어리가 있는데 끓는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어 보십시오. 잠깐 그 거죽만 녹는 듯했다가 다시 끓는 물 한 바가지 부은 것이 되얼어서 같이 두더기가 돼 버려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몰락 그냥 놔 버리면, 봄이 오면 끓는 물 한 바가지 떠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 딴딴한 얼음은 스스로 녹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방 속상하고 힘들어도 주인공에 넣어 한번 돌려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찔러 죽이리만큼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르르 봄이 와서 얼음장 같은 그 딴딴한 마음이 다 녹아 버리는 겁니다. 이걸 말로만 듣고 가서 '그냥 그러더라' 이렇게 이해만 하고 돌아가지 말고 실천에 옮겨 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실천을 한번 해 본다면 벌써 스스로서 알게 되고 절대로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실감하실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감으로써 내 안의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을 수 있을 때,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인공 안에서 나를 공부시켜서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끌어 주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주인공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큰스님 책에 써 있기를 생명의 근본을 주인공이라 한다는 것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몸과 업식과 생명의 근본이 합친 것이라고 돼 있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주인공은 움죽거림과 마음 내는 거와 근본과 그렇게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가는 거를 주인공이라고 합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모든 걸 닥치는 대로 한데 흡수할 수 있어야 집어먹는다

☞ 25면에서 계속

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죠.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시듯이 말입니다. 주인공은 시공을 초월해서, 안에도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거니와 밖으로도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 있고, 천차만별의 의식에다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그 개체 하나가 세계와 같다 이겁니다. 몸속에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한 공장이 만약에 침체되고 부도가 났다 이런다면은 사람의 몸, 집 자체가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세요. 몸뚱이 자체가 나만이 사는 내 것인가. 더불어 같이 살죠. 그러고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억겁 전부터 진화돼서 온 그 모습을 자기 육신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과로 인해서 바로 자기한테 인연이 돼서 자기 영혼 근본과 더불어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태어날 때 바로 같이 해야만이 한 개체의 덩어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 또 한 가지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작으냐 크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자기가 과거에 살아나온 그 차원에 따라서 이 몸속에 인과성이 더 많으냐, 영계성이 더 많으냐, 유전성이 더 많으냐, 세균성이 더 많으냐, 업보성이 더 많으냐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알고 살고 모르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컴퓨터와 같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입력된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니까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니까 팔자 운명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이런 공부 하는 인연을 한번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행복이란 무엇인지요

질문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여자 법우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나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 문득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다 보니 매일매일이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너무 편하다 보니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대로 심각하답니다. 남들처럼 가정을 갖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되는군요. 조개껍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요. 현실에 만족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 자비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답변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늠름하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자랄 때 빼고 늙은 후를 빼고 살면서 얼마나 행복을 느꼈습니까? 이것저것 잘못되고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행복이란 그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패기가 자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 줍니다.

마음이란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마음이란 이름을 하나 가져 보지만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씁니까.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돈도 안 내고 쓰는 마음이라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부부지간도 자식지간도 모두 누구나가 대신 살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 주고 깨달아 주고 잠자 주고 똥 눠 주고 또는 밥 먹는 거 대신해 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각기 모두 마음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시인이 봄을 찾아 밖으로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산 너머에는 행복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일에는, 내달에는, 내년에는…' 이렇게 내일과 저곳에다 희망을 걸고 사람들은 고된 현실을 살아나가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거짓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어저께에는 내일로 불리었으며, 그때 오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워 보였던 그날이 오늘로 된 지금 사람들은 오늘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다시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과 저곳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저 먼 어느 곳에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결코 진리를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선지식들에게만 있다고 믿고, 진리는 먼먼 훗날에야 있으며, 저 우주 끄트머리의 어떤 신비스런 나라에만 있다고 믿는 이들은 진리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밖에서 봄을 찾던 시인은 자기 집에서 그것을 만났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먼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위대한 스승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스승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처럼 되기 위해서는 나 또한 나의 마음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선은 매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이 있는 자유스러움을 얻으려면

질문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에 펼쳐진 삶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위정자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주말이면 광화문 앞을 가득 메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새해에는 마음공부를 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을 내야 암울한 어둠을 거둬 버리고 내일이 있는 자유스러움을 얻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본래 우리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금방 무슨 말을 했는데 금방 없어졌으니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 초 전도 과거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팔자 운명이 이럴까.' 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 초 전도 과거라는 거를 알고 내가 천차만별로 공했다고 돌린다면 자유스럽게 마음을 쓸 수 있거든요. 움죽거리지 않는 데를 뚫고 깨뜨리려면, 그리고 내일이 있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움죽거리지 않는 주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깨트리고, 또 나와서 이 우주의 움죽거리지 않는 데까지 결과적으로 뚫으면 그냥 자유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름은 많습니다. '그 선을 넘어야 한다. 깨트려야 한다. 증득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근데 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말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요. 지금 내가 묵묵히 실천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있는 자유스러움을 맛보려면 그 움죽거리지 않는 것까지 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덕산 스님이라는 고승이 계셨는데, 대선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게 하려고 바리때 들고 척 나갔더니 대중들이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왔느냐고, 종도 안 쳤는데 왜 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말 다 했죠, 뭐. 말이 뭐 이어지기나 해요, 어디? 시간도 안 되고 종도 안 울렸는데 왜 나왔느냐, 어청거리느냐 이 소리인데. 그러니 바리때를 들고 나갔다가 '이거를 어떻게 무마를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에 돌아서서, 그 다음에 한 판 웃는 걸로 그걸 무마를 시켰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후구를 알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모르는 줄 모르고 저 스님이 말후구를 모른다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도리를 모르는, 자기 앞도 채 못 가리는 사람이 어떻게 말후구를 아느냐는 얘기죠.

>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없어요.**
>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니까**
>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니 팔자 운명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참, 예전에 선사들께서는 그렇게 마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뛰어넘어 가게 하기 위해서 기왓장을 갈아서 면경을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물기는 하지만 그거를 정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둥그렇게 그려 놓고 "여기 들어오면 넌 죽는다." 이러니까 스르르 발로 지우고선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묘미가 있고 그렇게 허공 길을 아는 사람이라야 허공 길을 묻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묻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물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안 물어서 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점수 행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모두 공식한다면 공생으로서 공심이 되고 공체로서 공용을 할 겁니다. 즉 말하자면 공생을 알면 공심을 알고 공심을 알면 공체도 알고 공체를 알면 바로 공용도 알고 공용을 알면 공식을 안다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자체가 한데 합치면 원식이 됩니다. 이게 공식이죠. 먹는 것만 공식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 가지고 공식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닥치는 대로 내가 한데로 흡수할 수 있어야 집어먹는 게 되겠지요. 체가 없는 거를 만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고 수만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두드러집니까? 그래서 마음에다가 수만 개를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고 했던 거죠. 마음은 그렇게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구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주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병 속에 새를 한 마리 길렀는데 병은 그대로 있고 새는 커졌으니 어떻게 그걸 꺼낼 수 있겠느냐?" 하셨다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수좌들이 그걸 꺼내지 못해서 애를 쓰고 다니다가 끝을 못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왜 끝을 못 보겠습니까. 글쎄 자기 몸이 병 속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새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선언을 해 놨는데, '고등 동물인 사람은 그와 같이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있다, 자유스럽게 마음을 쓸 수 있으니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맘대로 하라' 고 선언을 해 놨는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아, 병이야 고대로 있죠. 어떻게 병이 커지나요? 새가 커지면 자연적으로 나올 줄도 알아야죠. 이렇게 오글랑노글랑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 병에서 새 한 마리도 못 꺼내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선지식들이 방편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죽였다든가 하는 이유를 '이것이 무슨 뜻으로 이렇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해요. 또 조주 스님은 짚신짝 하나를 머리에 이고 나갔다는데 그건 어떤 이치로 그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가 튀어나와서 자유자재할 줄을 알아야 내일도 알고 내일도 있는 거지, 그걸 자유자재 못하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암흑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걸 바꿔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주 특별한 말인 줄 알지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복작거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일도 없고 어저께도 없고 오늘도 없는 그 가운데 주장자도 박차야 내일이 있는 세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는 줄로 알지 마세요. '우린 주머니 안에서 꼼짝 못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저 닥쳐오는 대로 살고 있으니 자유는 영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일이 있는 자유를 한번 맛보시게끔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고 어저께도 없는 오늘, 이 주머니 속에서 허덕이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이 없고 어저께가 없는 그런 속에서 내일이 있는 세계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자비의 촛불' 함께 듭시다



승한 스님
서울 금산사 주지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오르지 않고 있다. '좀처럼' 이라는 말도 어색하다. 2016년 세밑, 대한민국의 인심이 어쩌다 이리 됐을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도 아닌데 어쩌다 이리 꽁꽁 얼어붙었을까?

누구는 정치를 탓한다. 맞다. 결정적 주범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다. 현 대통령부터 최순실, 문고리 3인방들의 농단에 대한민국도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 인심도 차갑게 얼어붙었다.

경제는 또 어떤가.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 더욱 악다구니를 쓰고, 못 가진 자는 어떻게라도 생존하기 위해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그런 시간에도 연탄 한 장의 무게마저 무거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 언덕을 오르는 사람들의 허리는 오늘도 노곤하다.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진 이후 23일이 지난 14일 오전 현재,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겨우 12.1도. 한겨울 북풍설한은 쌩쌩 광장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정치계는 물론 경제계 누구 하나 제대로 풍찬노숙을 덮어주는 이 없다. 지난해 모금 시작 일주일만인 11월 29일 414억 원으로 12.1도를 가리켰던 것에 비하면 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불과 1년 만에 백의의 대한민국 인심이 왜 그토록 황량해진 것일까. 꽁꽁 얼어붙은 것일까. 매스컴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진단하고 있다. '경기불황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여파로 기부금 모금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고.

모금회 관계자들도 입을 모은다. "정치 사회적인 현안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나눔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런데 꼭 그뿐일까. 우리 마음이 지레 먼저 얼어버린 것은 아닐까. 내 한파만 한파고 남의 한파는 한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광장의 촛불에만 너무 매몰된 나머지 나눔의 온기를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도 '얼굴 없는 기부천사' 는 올해도 어김없이 황량한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지난 1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익명의 기부자가 현금 500만원이 든 흰 편지봉투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에 놓고 갔다고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 측면에 세워진 사랑의 우체통에서 발견한 봉투 겉봉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고, 봉투 안에도 5만 원권 지폐 100장이 담겼을 뿐 편지나 쪽지는 없었다고 한다.

맞다. 이게 진짜 나눔이다. 사랑이다. 자비다. 연민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얼굴 없는 기부천사' 가 있는 한 우리 마음의 사랑의 온도탑은 항상 100도를 가리킬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을 통해 말씀하셨다. "나만을 위해 보시하지 말고 중생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라.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하면 큰 공덕을 얻게 된다"고.

또한 〈잡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버리고 조건 없는 깨끗한 보시를 행하면 어느 곳에 처하더라도 항상 기쁨이 함께 하리라"고.

매주 토요일, 아직도 광화문 광장은 촛불의 뜨거움으로 채워지고 있다. 촛불의 열기 못지않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탑도 뜨거워지길 바라본다. 그리하여 단돈 1천 원이라도 들고 내가 먼저 '얼굴 없는 기부천사' 가 되어 광화문 광장에 서길 바라본다. 내 안에는 이미 '얼굴 없는 기부천사' 가 살다. 그분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의 길이고, 깨달음이다.

참고로 사랑의 온도탑은 사랑의 열매가 매년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금 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도록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 설치해놓은 것이다. 올 목표액은 3588억 원이다.

함께 쌓을 때 탑은 더 빛난다. 내 촛불의 뜨거움이 그 탑이 되길 기대해본다.

발언대

종교 성역화 국고 지원 논란

최근 종교계는 여러 성역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성역화 사업에는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교자유종책연구원 등은 12월 12일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종무실 · 보조금 지원사업 폐지해야"



김정수 교수
한양대 행정학과

한국처럼 종교국가가 아닌 세속국가에서 종교에 대한 각종 국고지원사업은 종교에 대한 특혜부여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비종교부문과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예컨대 2013년 보건복지부 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 지원' 예산이 127억, '장애인 재활지원' 예산이 187억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종무실의 종교시설 건립지원금만 무려 204억 이상이었고, 불교계를 위한 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만 해도 124억 원 이상이었다. 장애인 복지는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지원이란 점에서 보편적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결코 핍박받는 소외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막강한 특권계층에 가깝다. 그런데 국고지원금까지 더 많이 받는다면 이는 행정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단 점에서 그 잠재적 위험성이 대단히 심각하다.

종교편향 시비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정부의 철저한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 배분과 관련된 종교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종교라는 요소를 분리하여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국고지원사업이라면 마땅히 '일정한 사회문화적 효과와 의미를 갖는 활동인지' 가 최우선적 기준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종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주무부서인 종무실은 폐지돼야 한다. 종교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킬 우려가 짙은 보조금 지원사업들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종교는 결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국고사업 공공성 확보 중요"



박수호 연구위원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국고지원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제다. 그러나 나는 국가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되는 정교분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한다. 정교분리 원칙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국가의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건국된 나라다. 따라서 국가 간섭을 배제하는 문화적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와 종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돼 왔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토대로 하는 정치 및 사회질서에 의해 국가가 운영됐을 만큼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했다.

따라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와 종교가 각각 상호배타적 영역을 설정하고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 각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상호 간섭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종교의 본질이 초월적 영성 추구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기독교적 종교관에 부합할지는 몰라도 유교나 불교 등 동양 전통종교의 종교관과는 맞지 않는다. 유교나 불교는 조화로운 세상의 구현을 위한 개인적 수양(수행)과 다양한 차원의 실천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종교 본연의 기능 외에도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을 수행한다.

종교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국고지원사업과 종무실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사업의 결과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공공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쪽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社說

차별금지법 제정 미뤄선 안된다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 일화다. 한 청년이 부처님에게 브라만이 특별한 잘못도 없는 이를 비난하거나 구타하는 행위를 벌인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한다.

"사람의 고귀하고 천함은 혈통이나 신분이 정하는 것이 아닌 행위가 정한다네."

부처님의 이런 차별없는 사상은 불교가 세상을 밝히는 종교가 된 씨앗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성별과 나이, 종교와 성적 취향 등으로 다양한 차별과 편견이 있다. 특히 경제난이 겹치며 2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에 대한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UN이주민 권리협약도 비준하지 않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개악해왔다. 현장에서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들린다.

이주민을 비롯한 각종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들의 후세는 건강한 사상을 갖게 될까.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 카스트 제도 하의 브라만들처럼, 나와 계급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멸시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혐오, 멸시, 차별은 우리 사회를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단순히 처벌 규칙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대국민 의식 개혁 등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도 함께 명시하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만약 부처님께서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민하는 한국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이제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이젠 그만

연말연시가 되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바빠진다. 바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와 맞물려 공개되는 것이 국세청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다. 다시 말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58곳으로 종교단체는 48개로 전체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적발 종교단체 48곳 중 46곳이 사찰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중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도 포함됐다. 특히 태고종 소속 사찰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신생종단 소속 사찰이거나 종단 확인이 불분명한 사찰들이 다수였다. 이중에는 사실상 점집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차제하더라도 사찰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당장 가톨릭 성당이나 원불교 교당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소식은 접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에 요구되는 것은 재정의 투명화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재정 공개와 더불어 실천돼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이기도 하다. 특히 신생 종단일수록 건강한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화다. 이는 범불교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문화이다. 내년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에서 불교계 사찰 명단이 전무하기를 기대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깨달음수행법의 고통 해탈문인.....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고통해탈과 깨달음을 향한.....

진귀방장의 특별한 수인(手印) 수행법을

한국불교 수행역사상 최초로 근기별,

병통별, 단계별, 날자별로

정리된 수행법을 공개합니다.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깨달음門 1899-9532







※ 위 사진은 실제 진귀 수인 수행법과는 다릅니다.

2017년 무료공개강좌 일정

〈2017년〉

1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은 진동부터
일시 : 2017년 1월15일 일요일 오후2시

2차 공개강좌 : 주제 : 집착 그리고 분노
일시 :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3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과 사견의 전도몽상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4차 공개강좌 : 주제 : 붓다의 충격?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5차 공개강좌 : 주제 : 이뭣꼬?의 정체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 경전은 어떤것인가?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범부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수행자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일승기신론과 대승기신론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괜히 오지 않는다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길없는 길속의 내비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희망은 있다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예약 (선착순33명 제한)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산문 - 방장 진귀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깨달음門